건축사 528

KIRA 2013 04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1966년 창간

취임사 건축사의 위상을 새롭게 점검하고
정립해 나갈 것!

에세이 아직도 건축사사무소 입니까?
회원에게 필요한 최상의 서비스를 선사해 내는 협회

공 고 2013 한국건축문화大賞 작품공모
건축사자격등록 경과조치기간 만료 안내

KOREAN ARCHITECTS

beyond the best

금호석유화학

지키는 것이 **기술**이다

흑연으로 가장 쾌적한 온도를 지키는
신개념 비드법 2종 단열재 **에너포르**

흑연 테크놀로지 | 에너포르는 열을 흡수하고 보존하는 흑연을 첨가한 첨단소재로 기존 단열재에 비해 20% 이상 높은 단열성능을 발휘합니다

슬림 이노베이션 | 뛰어난 단열성능 덕분에 기존 단열재보다 얇게 시공할 수 있어 공간은 더 넓게, 에너지 효율은 더 높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웰빙 신소재 | 내부 구조가 기존 단열재보다 훨씬 미세한 기포구조로 되어있어 습기, 세균, 곰팡이로부터 더욱 안전한 친환경 웰빙 소재입니다

블랙EPS 에너포르 단면

건축법상 [가] 등급 단열재

에너포르는 기존 발포폴리스티렌에 흑연을 첨가, 결정구조상 복사열 흡수기능이 적용되어
동일비중의 기존 단열재에 비해 열전도율이 최대 약 10~20%까지 향상된 신기술 제품입니다

에너포르

www.kkp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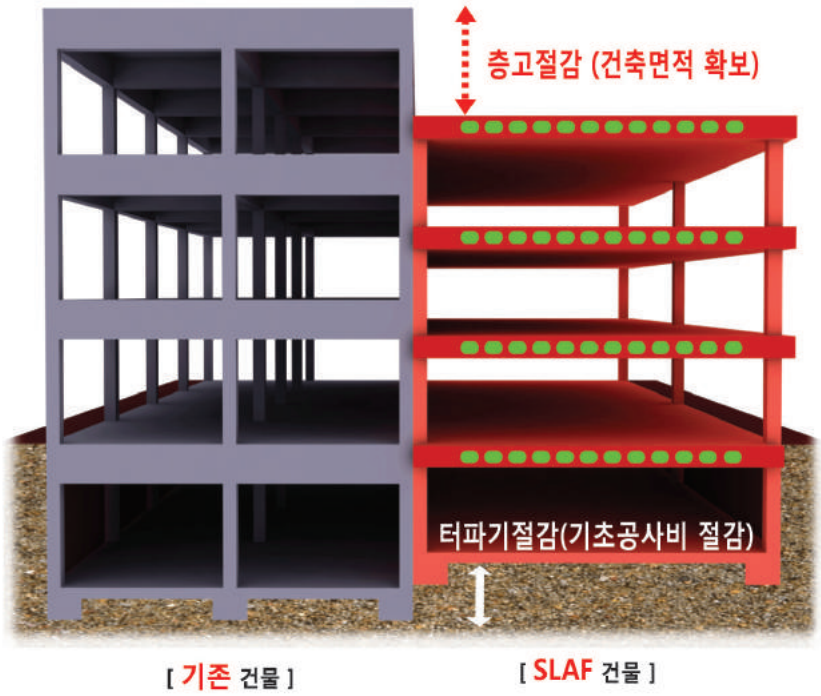
저탄소 녹색성장 공법

건축주의 고민 공사비 절감 !

SLAF® 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 공사비 절감 / 최소 15% 이상
- 공사기간 단축 / 최소 10% 이상
- 가용 공간 증대 / 기둥 수량 10% 감소
- 소음 • 진동 • 보온 • 단열 • 내진 성능 우수
- 구조용역비 SAVE / 초기 구조 디자인 지원

건설 V.E. 공법의 NEW 패러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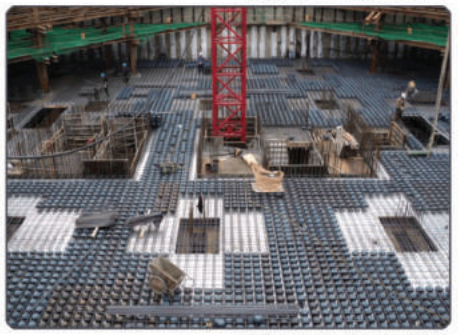
[기존 건물] [SLAF 건물]

Super Light-weight Air-balled Flat plate System

SLAF 공법과 동일한 김포공항청사의 벌집구조

SLAF 공법 적용 후 전경 사진 (무량판 구조 : NO BEAM)

지상층 SLAF 시공 현장사진



지하층 SLAF 시공 현장사진

(주)신화엔지니어링
SHINHWA ENGINEERING CO., LTD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8-20 삼광빌딩 2층 T. 02.3481.3885 M. 010.3745.3885
http://www.sh911.co.kr

콘크리트 사용량을 줄여 대기중의 이산화탄소(CO_2)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환경친화적 공법

The SLAF technology (patent pending) allows an integrated concrete slab construction for long spans without beams which is a requisite to realise an increases sustainability of the building value and at the same time save resources.

슬라프
SLAF
초경량 중공형 무량판 바닥구조시스템

미니로타리식 주차장치의

絶·對·强·者 창공 스카이파크

연속시장점유율 1위　누적설치실적 1위

www.juchagi.com

전국 1544-3335

PL법 영업배상 책임보험 8억 창공주차산업

창공 미니로타리식 입체주차장치 스카이파크

New Trend-Successful Business Power!

구동모터 2개로 보다 강력하고 안정적인 구동력을 갖춤

적용 : **중형급 16대형 / 대형급(RV 수용형) 12대형**

대형(RV급 수용형) 주차기 판매실시

2010년 신개발품! **수용대수 : 5대형~12대형**

일반형, 턴테이블 내장형까지

16대 수용형 및 대형(RV급 수용형)까지

절찬리 판매중!

아주 특별한 주차기 회사

주식회사 창공주차산업

CHANG GONG PARKING INDUSTRY CO.,LTD.

■ 서울사무소 : 서울시 은평구 증산로3길 8, 다동　TEL : 02)333-4448

■ 공장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칠곡대로 2172번지　TEL : 054)973-1900

■ E-mail : sky23487@hanmail.net　■ FAX : 054)973-00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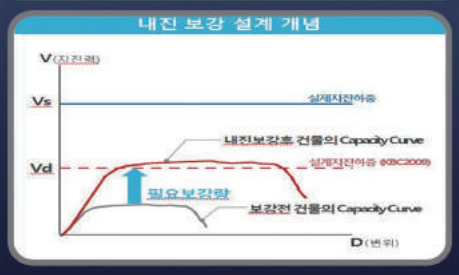
www.cmr.or.kr

CMR 기술연구원(주)
Construction Maintenance Repair&reinforcement

내진성능평가국내최다실적! 댐퍼시스템설계기술확보!
내진보강설계국내최다실적! 비선형해석통한최적구조시스템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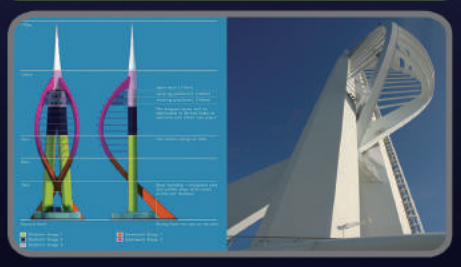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설계 전문가 그룹
비선형정밀해석을 통한 최적의 건축공간설계!

[내진성능평가/내진보강설계]



▶ 중 · 저층학교건물 ➡ 교과부기준
▶ 청사및관공서 ➡ 건교부기준

[비선형정밀해석/최적구조설계]



▶ PUSHOVER해석 ➡ FEMA356/MIDAS
▶ TIME HISTORY ANALSYS ➡ PERFORM3D,CANNY OPENSE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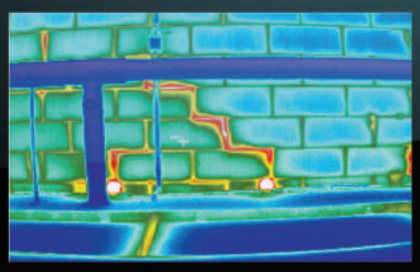
⊙ 사업분야

1. 내진성능평가/내진보강설계
   · 국내외최신기준고려 · 비선형성고려한설계
2. 비선형정밀해석
   · 비선형정적해석 · 비선형시간이력해석
3. 구조물안전진단
   · 정기/정밀점검 · 정밀안전진단
4. 구조관련 컨설팅
   · VE설계 · 최적시스템제안
5. 구조설계
   · 신축구조설계 · 구조도면작성
6. 시공현장지원
   · 건설현장구조지원 · 구조감리
7. 내진/제진/면진장치연구개발
   · 내진기술연구개발 · 제진기술개발

CMR기술연구원(주)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133-16 영풍오피스텔 2층 Tel 02-402-3378 Fax 02-402-43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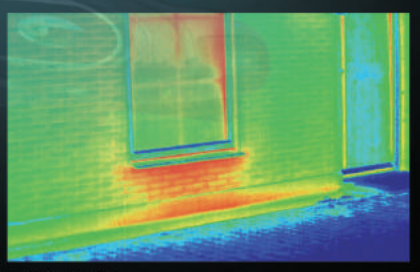
FLIR T640bx / FLIR T620bx

건물/에너지 진단을 위한 전문가용 열화상 카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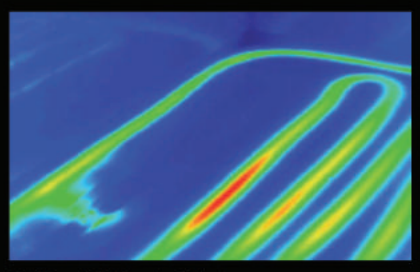


건물 구조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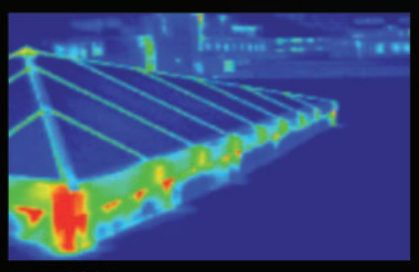
에너지 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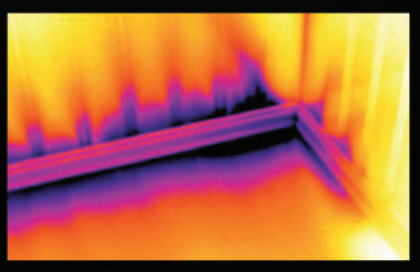
절연 손실



난방 배관 누수 탐지



외기 유입



습기 침투

www.flir.com

(주)플리어시스템코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66, 6층 (삼성동, 구구빌딩) 전화: (02) 565-2714~7 팩스: (02) 565-2718 이메일: flir@flirkore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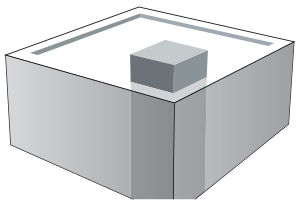
Images/contents are for illustration purpose only.

독일에서 완성한 명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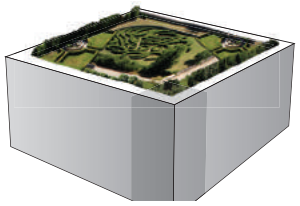
synergy 엘리베이터로 누리는 4가지 시너지 효과

기계실이 필요없어 자유로운 설계와 건축미 표현 가능

건물 옥상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1개층 추가 축조 가능시 건물가치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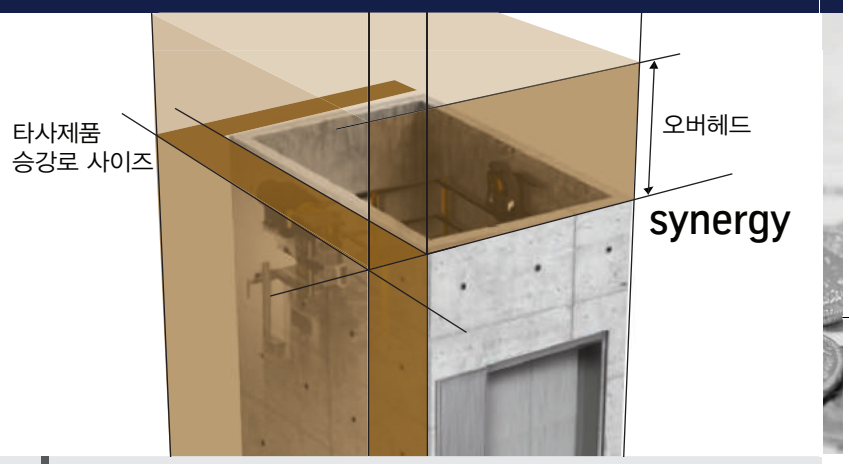


기계실 있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건물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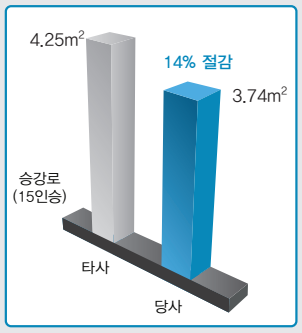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건물의 경우

세계 최소 승강로.오버헤드.피트 사이즈 실현으로 건축비 절감



줄어든 승강로, 오버헤드, 피트 공간 건축비용 절감
총 3,150,000원 절감 (5층 건물, 15인승 기준)



승강로 건축비 절감액 (15인승 기준)
→2,850,000원

› 절감면적 0.19평 X 5개층 X 평당 건축비 3백만원

오버헤드 건축비 절감액 (15인승 기준)
→ 300,000원

› (옹벽길이1.7mX옹벽두께0.2mX절감높이0.35mX2개소) +
(옹벽길이2.0mX옹벽두께0.2mX절감높이0.35mX2개소)
= 0.238㎥ + 0.28㎥ = 0.518㎥

7만원(㎥당 콘크리트 비용) X 0.518㎥ + 철근 거푸집 등
자재비 15만원 + 인건비 = 건축비 절감액 약 30만원

synergy 실물모형을 제32회 MBC 건축박람회에 전시하오니 많은 관람 바랍니다.

일시: 2013년 4월 25~28일 장소: 일산 KINTEX 제2전시장 무료초청장 문의: 02)2610-7930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의 BMW"

공간 절감에 따른 임대수익 증가

줄어든 승강로 면적을 임대면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연간 임대수익 증가

20년간 17,160,000원 수익 증가 (5층 건물, 15인승 기준)

› 연간 임대수익 증가 효과 → 855,000원
층당 0.19평 증가 (15인승 기준) X 5개층 X 평당 월세 7만5천원(서울 비도심 기준) X 12개월 = 855,000원

※ 1개층 확장 시 건물가치 상승효과 (총면적 50평 기준):
50평 X (평당분양가 5백만원–평당건축비 3백만원)=1억원

	구분	폭 X 깊이			폭 X 깊이	고객혜택
승강로	8인승	당사 1800X1550	VS	타사	2050X1700	0.17 평 (17%) 공간절감
	15 인승	당사 2200X1700	VS	타사	2300X1850	0.19 평 (14%) 공간절감

오버헤드	당사	3450	VS	타사	3800	350mm 낮음
피트	당사	1150	VS	타사	1450	300mm 낮음

평범함을 거부하는 최고급 DESIGN

유러피안 스타일의 고급형 캐빈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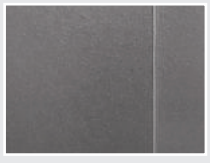
공기청정기 기본 채용

LCD 기본 채용

터치버튼 기본 채용

천장 LED 기본 채용

수평분할 디자인


고급 Vibration 적용

영업문의 : 02)2610-7723, 7736
www.thyssenkrupp-elevator.co.kr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방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세기 건축물 외장재 신개념 PANEL

EURO-ZINC PANEL

다양한 외관창출과 징크패널의 업그레이드 제품
신소재 준 불연 단열재 프로폴보드의 시스템패널

기존 패널의 단조로운 색상과 형상에서 벗어난 샌드위치패널의 최종 집대성 된 패널입니다. 준 불연 단열재 프로폴보드를 사용하여 현존하는 샌드위치 패널의 장점만을 극대화 한 21세기형 최첨단 친환경 패널입니다. 지붕과 벽을 혼용할 수 있는 파형으로 다양한 디자인으로 연출할수 있습니다.

[유로징크 특징/장점]

1.저렴한 비용으로 고품격 디자인 창출
2.비용 절감.공사기간 단축
3.줄눈의 색상 및 간격 조절이 자유로워 깔끔한 와관 창출
4.종.횡 시공에 의한 깔끔한 마감 처리시공
5.다양한 맞춤식 코너 마감으로 건축물의 완성도를 한층 업그레이드 한 제품

특허출원번호-2011-0053998　　디자인등록 제30-0658085호

FREE-METAL PANEL

서진공영의 **프리메탈패널**은 **준불연재**이며 고품격 디자인을 바탕으로 **비용절감**과 코너마감을 더욱 업그레이드 시켰으며 시공상의 우수성과 강도로 반영구적인 제품으로 여러가지 장점과 특징으로 서진공영만의 프리메탈패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FREE-METAL PANEL POINT]

1. 난연성이 우수하여 화재사고에 안전하며 유독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2. 인체에 유해하지 않습니다.
3. 단열성이 뛰어나 에너지소비를 절감하며 경제적입니다.
4. 방수,방습성이 우수하여 외부환경변화에 다른 단열성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5. 강도와 내구성이 우수하여 취급이 간편합니다.
6. 발포폴리스티렌(EPS)이 적용될수 있는 모든 부분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7. 발포폴리스티렌(EPS)의 간편한 시공법과 동일하게 시공됩니다.

특허증 특허 제10-1219639 샌드위치 패널용 외판 제조방법

SJ
서진공영주식회사
Seojin Gongyoung Co.,Ltd.

본사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203-1번지　공장 :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32-1번지
TEL. 032-563-0020 FAX. 032-563-8813
www.i-seojin.co.kr / www.i-seojin.kr

대한건축사협회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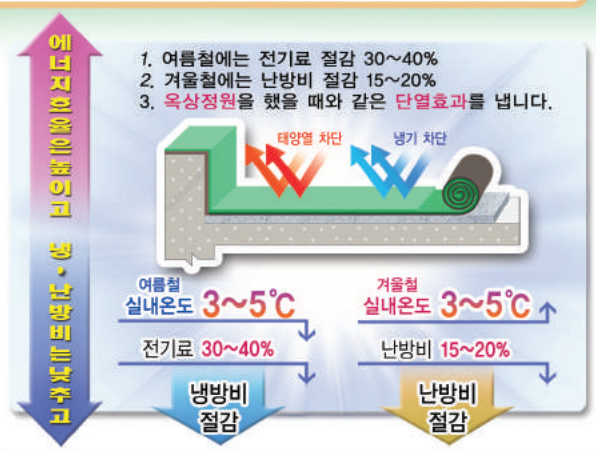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 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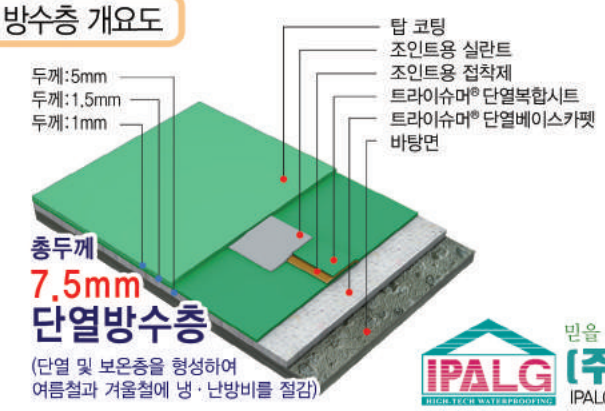
2중단열 방수 | 천정 결로방지 | 절연방식 시공 | 내구성 탁월

트라이슈머®의 에너지효율 및 내열성능 시험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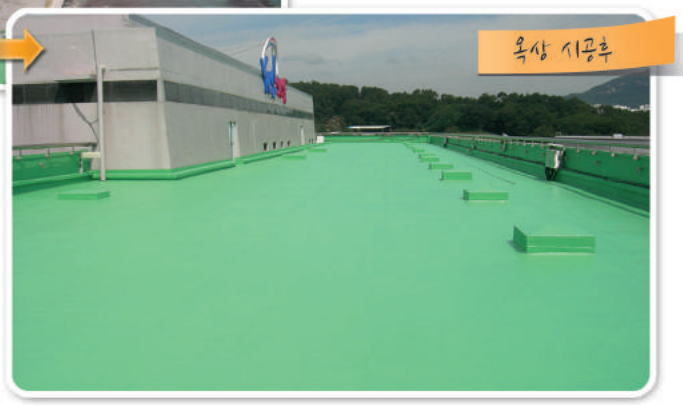
내열성능 시험결과		
시료명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개량형 아스팔트시트
열에 의해 변형이 된 길이 (200mm 기준)	0.1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 5 개량형 아스팔트시트 / 흘러내림길이(mm)	
결과 이미지	변형이 거의 없고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시트에 주름이 발생하거나 파단됩니다.
시험방법	가로와 세로길이가 각각 200mm가 되는 시편을 80도에 일정시간이 지난 후 열변화에 따른 길이변화와 겉모양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시험기준	KS F4917: 2007	
시험기관	한국 건자재시험 연구원	

방수층 개요도



시공사례모음

옥상 시공전


옥상 시공후

수영장 시공전

수영장 시공중

수영장 시공후

믿을 수 있는 제품과 공법 • 신뢰받는 회사 –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IPALG TOTAL & HIGH-TECH WATERPROOFING CO., LTD.

스마트폰으로 QRcode를 스캔해보세요

www.ipalg.co.kr
이파엘지.kr

본 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327번길 52 Tel : 032) 471-6020 FAX : 032) 467-1904

brother
at your side

건축,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을 위한

세계최초 리얼 A3 컬러 잉크젯 복합기
브라더 MFC-J6710DW

A3용지 인쇄 PRINT A3용지 스캔 SCAN A3용지 복사 COPY A3용지 팩스 FAX

PC MAGAZINE EDITORS' CHOICE
MFC-J6710DW
01/Jun/2011

기자들의 선택상 수상제품

(선정 2011. 6. 1)

LC73계열

Cyan	Magenta	Yellow	Black
LC73C	LC73M	LC73Y	LC73BK
600매	600매	600매	600매

LC77XL계열

Cyan	Magenta	Yellow	Black
LC77XL-C	LC77XL-M	LC77XL-Y	LC77XL-BK
1200매	1200매	1200매	2400매

brother
at your side

브라더인터내셔널코리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7-22 백영빌딩 4층
Tel 02-572-4350 Fax 02-572-4363
http://www.brother-kore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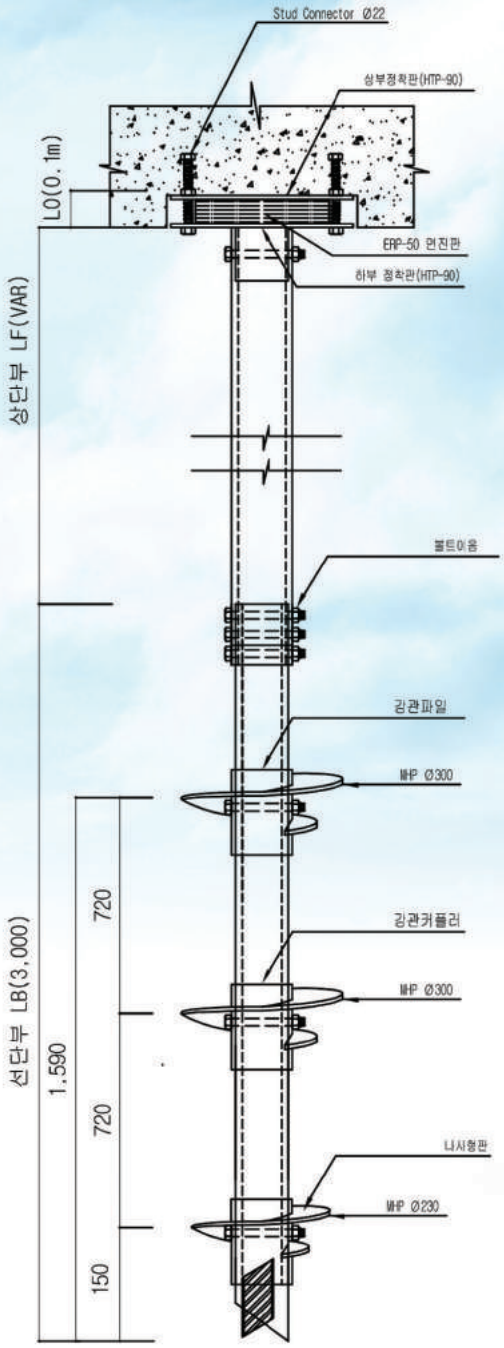
A/S 문의 1577-3340

구매문의 최일환 대리 ilhwan.choi@brother-korea.com
HP.010-2291-5047

METRO T&C
METRO TOTAL CONSTRUCTION

나선형강관파일

www.metrotnc.co.kr



▶ 공법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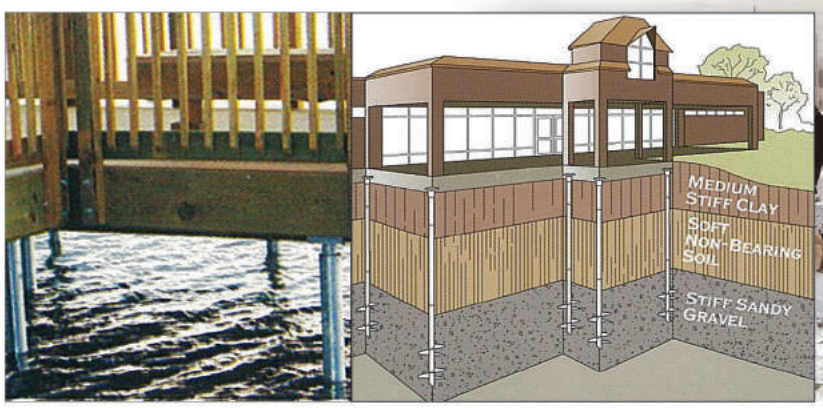
나선형강관파일(MHP공법)은 건축물의 기초공사에 사용되는 파일기초로서 고강도 특수강관 하부에 나선형판을 장착하여, 특수장비로 회전시켜 설계깊이까지 박은 후 파일주변을 그라우팅하는 형식으로 연약지반에서 지지력을 높일 수 있는 기초파일공법이다.
그리고 내진성능이 요구되는 건축물에는 나선형강관파일 기초상부에 면진장치를 장착하여 건축물의 지진 대응력을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다.

▶ 공법의 특징

1. **내진성능**
   기초 상부에 면진장치가 부착되어 내진성능이 우수하다.
2. **안정성**
   나선형강관파일을 회전 관입하고 2차로 기초파일 주변을 그라우팅하여 마찰 지지력이 높게 형성된다.
3. **공기단축**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시공이 간편하고 공사기간이 단축된다.
4. **친환경적**
   무소음, 무진동으로 비토가 발생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다.
5. **시공성**
   수중 및 경사지에서 다양한 각도로 파일시공이 가능하다.
6. **경제성**
   공장제작으로 시공이 간편하여 공사비가 경제적이다.

▶ 공법의 적용

1. 건물신축 기초파일
2. 공장 및 플랜트시설 기초파일
3. 해양구조물 기초파일
4. 기울어진 건물 복원 기초보강
5. 옹벽, 흙막이 구조물 앵커파일



메트로 T&C
건축물 내진구조보강 벤처기업

건축물내진보강 벤처기업 www.metrotnc.co.kr E-mail : metrotnc@naver.com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5길4, 4F(오금동) TEL : 02)402-9395 FAX : 02)402-9396

21세기
첨단 시스템 도어
JUNGWOO safedoor

ISO 9001/2000 인증제품

JUNGWOO safedoor

특허 신제품

정우 스텐레스 단열바 프레임

정우 스텐레스 단열 세이프(강화)도어/정우 세이프(강화)도어

견고한 제작, 완벽한 밀폐에 의한 방음, 방풍, 냉, 난방비 대폭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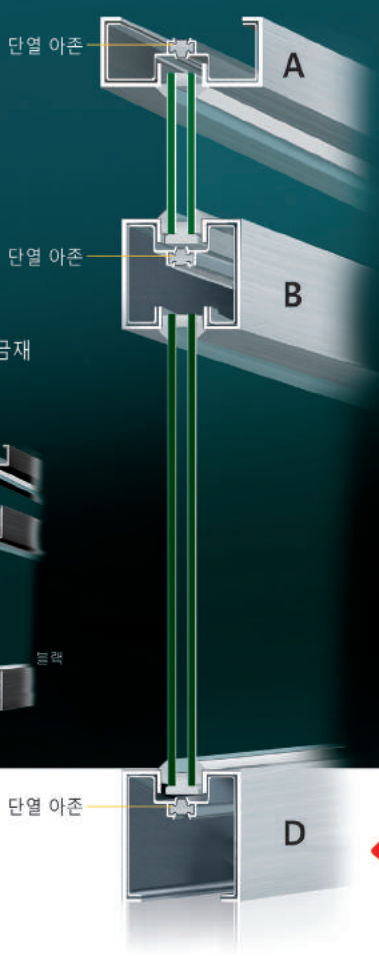
(주) 정우산업만의 노·하우로 제작되는
전 제품은 보이지 않는 곳 까지 정성을 다합니다.

스텐레스 단열바 프레임의 장점

- 아존을 충전하여 내, 외부의 온도를 차단하여 줍니다.
- 완벽한 밀폐에 의한 방음, 방풍으로 냉, 난방비를 대폭 절감해 줍니다.
- 스텐레스 내부 보강재는 알미늄으로 되어 있어 연결부 틈새에 결로 또는 부식에 의한 녹물 흐름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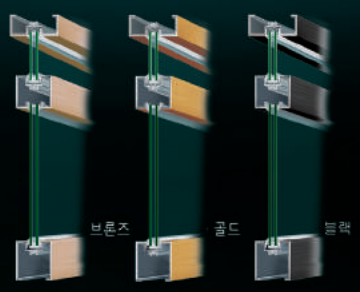
색상선택이 자유롭 습니다.
• 스텐 • 골드 • 브론즈 • 헤어라인 • 밀러 • 갈바 불소코팅

단면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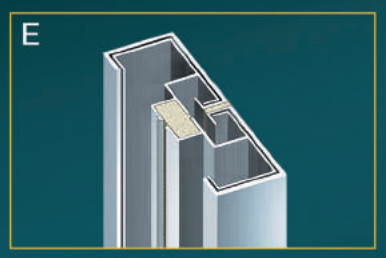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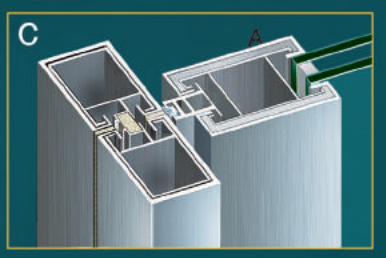
재질/한국산업규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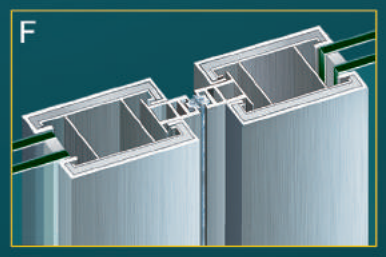
- K.S D 6759, 6063, 알미늄 합금재
- K.S D 3098 스텐레스
- K.S L 2002 강화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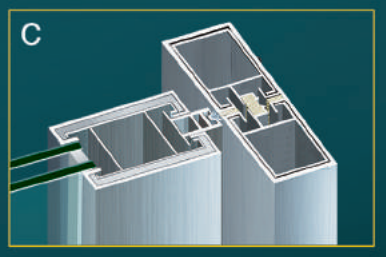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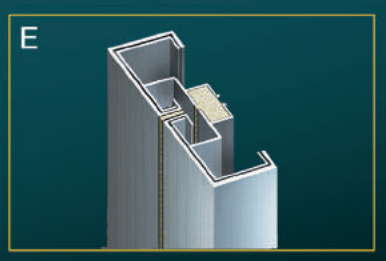
단면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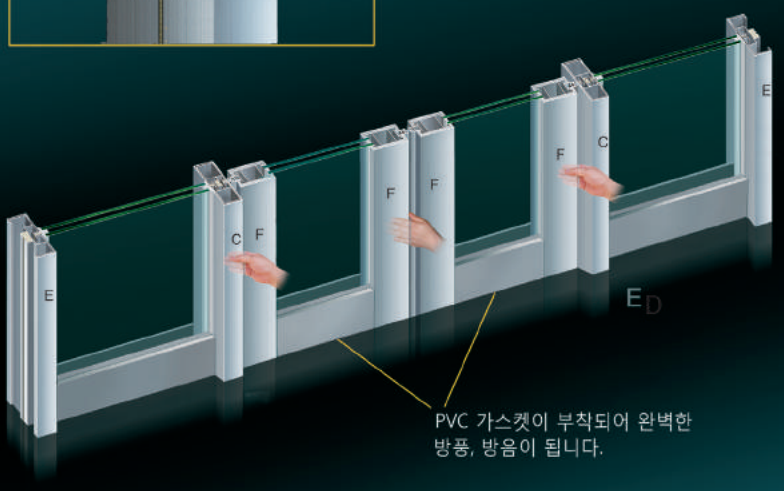












▶ 가격표 :
월간 물가 자료집 586p 참조
(2011년 10월 부터)

어린이 「손」 안전과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는 기업 —

(주) 정 우 산 업

www.safedoor.co.kr

본 사 :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430-8
TEL : (053)325-9800/325-9801~2
FAX : (053)325-9802
E-mail:jungwoo9800@hanmail.net

• 전국 영업망 구축 •

www.wilmat.kr

건축물 유지보수의 새로운 솔루션
고품격 신개념 출입구 시스템매팅
윌매트

Wilmat
Enterance Matting System

윌매트(Wilmat) 매립형 신개념 출입구 매트로써 외부의 오염물들이 건물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며, 건물특성에 맞게 제작하여 설치할 수 있는 고품격 출입구 매트 시스템.
윌매트는 국내생산제품이며 어떤 현장이라도 고객이 요청하시는 규격대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건축물 유지보수의 새로운 솔루션!
윌매트가 바로 정답입니다.

귀하가 요청하시는 현장에 맞게 주문제작 가능한 매립형 시스템출입구매트, 유럽형 신개념 출입구매트의 기능성과 다양한 디자인으로 건물의 품격을 높여드립니다.
윌매트의 가치는 눈으로만 느끼기에도 충분합니다.
최적의 솔루션으로 귀하의 자산을 소중하게 지켜드립니다.

김해공항 국내선

인천공항

ECOSYS (주)에코시스/윌매트 |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544-2 Tel : 02-786-7115 Fax : 02-784-2011

KOREAN ARCHITECTS

건축사

www.KIRA.or.kr
2013 APRIL 4

COVER STORY

표지사진 :

마니커 닭 박물관
천국천
(주.한인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사의 작품 中

발 행 인	김영수
편집인 겸 편집국장	김형수
취 재 · 편 집	최락청, 손석원, 문지은
발 행 처	대한건축사협회
주 소	137-877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03-55 (서초구 효령로 317) 건축사회관
전 화	대표 02_3415_6800
팩 시 밀 리	02_3415_6850
인 터 넷	www.kira.or.kr
디 자 인	(주)랜스에디팅 02_2273_8576
인 쇄	(주)미래엔 031_730_3800
광 고 문 의	홍보편찬팀 02_3415_6862~4

Publisher	Kim, Young-soo
Editor	Kim, Hyung-soo
Reporter	Choi, Rak-chung / Sohn, Suk-won / Moon, Ji-eun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 1-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877
Tel	(02)3415-6800
Fax	(02)3415-6850

월간 「건축사」는 한국간행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019 특집화보 SPECIAL PICTURE REPORT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이 · 취임식 이모저모

020 취임사 INAUGURAL SPEECH
건축사의 위상을 새롭게 점검하고 정립해 나갈 것!
Renew and repositioning the status of the architect!
_김영수

022 에세이 ESSAY
아직도 건축사사무소 입니까?
Is there any other title than "Registered architect's office"?
_최재인

025 에세이 ESSAY
회원에게 필요한 최상의 서비스를 선사해 내는 협회
An institute which can present best services for their members
_김연태

026 시가 있는 여울목 POEM
_유안진 / 해설_강희동

027 만 평 CARTOON
_곽희수

028 회원작품 WORKS
마니커 닭 박물관
MANIKER STORY
_천국천_KIRA | (주)한인 종합건축사사무소

34

42

Contents 528

대한건축사협회 발행 2013년 4월호

문화공장 오산
CULTURE FACTORY OSAN
_박세희_KIRA, 김상윤 | 지안 건축사사무소

잠원동 RIVER HILLS
JAMWON RIVER HILLS
_고은영_KIRA | 건축사사무소 가진

기업은행 종합연수원
INDUSTRIAL BANK OF KOREA TRAINING INSTITUTE
_김관중_KIRA | ㈜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안국빌딩 신관
ANGUK BUILDING
_이기옥_KIRA | (주)필립 종합건축사사무소

066 설계경기 COMPETITION
하남미사2 중학교
HANAM MISA 2 MIDDLE SCHOOL

전주 도시재생 거점센터
JEONJU URBAN RENAISSANCE SERVICE CENTER

076 꽁트 CONTE
초록은 同色
Grass is green
_김현탁

079 건축과 법률이야기 THE STORY OF ARCHITECTURE AND LAW
'맹지'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가
Is it right to construct buildings on a lot where has no access roads?
_박시준

080 연재 SERIAL / 근대건축사 History of Modern Architecture in Korea ⑦
조선, 새로운 나라를 꿈꾸다
Joseon, Dreaming the Modern Korea
_안창모

086 공고 NOTICE
2013 한국건축문화大賞 작품공모
Korea Architecture Award 2013

090 건축마당 ARCHITECT'S PLAZA
협회소식 Kira News
건축계소식 Archi-Net
해외건축동향 _이승석 Overseas News Review
통계 Statistics

103 공고 NOTICE
건축사자격등록 경과조치기간 만료 안내

아직도 건축사사무소 입니까?

Is there any other title than "Registered architect's office"?

최재인 | Choi, Jae-in, KIRA
(주)신화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요즈음 우리 사회에는 '건축사'라는 전문용어가 없다.
모든 국민들이 우리 '건축사'가 설계하여 완성된 건축물 속에서 삶을 영위하면서도 '건축사'에 대하여 모르거나 아니면 '건축사'를 그냥 '설계사'라고 한다.
'변호사' '의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 직종 중 유독 '건축사'라는 직종만 잊혀진 것인가? 아니면 잊혀 질 만큼의 존재도 되지 않았던 것인가?

사회에서 '건축사'란 용어가 부재하게 된 것이 혹시 우리 건축사가 그동안 너무나 자아도취 하면서 안일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살지는 않았나? 우리 건축사 모두는 크게 반성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건축사는 변화의 흐름에 대하여 몰라도 너무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으며, 변화에 대처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반세기 전에 제정된 건축사법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맴돌고 있으니 말이다.

'건축사'인 우리의 고객은 재력(?)과 권력(?)이 있는 분들로 우리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변호사'나 '의사'처럼 고객이 아쉬워서 찾아와 "잘 부탁 드린다~"는 경우와 달리 우리의 고객은 사회적인 강자로서 거드름(?)피워도 우리는 자존심 다 버리고, 설계를 하려는 마음으로 어려움을 감수하고, 고객을 상대 해야만 하는 직업이 건축사라고 본다.

감리 또한 어떠한가? 건설 전 분야에 걸쳐 신기술, 신공법, 신 자재, 실용신안, 특허 등이 새롭게 도입되고 있으며, 글로벌 시대에 맞게 V.E기법, CM제도가 적용되어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 상황에 우리 건축사들은 과연 얼마나 자기 성찰을 하고 전문 능력을 키우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건축물의 대형화, 초고층화 추세에 부응함은 물론 글로벌시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문화, 대형화된 "설계법인"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이다.

최근 건축물은 대형화, 특수화되면서 규모와 특성 등이 세분화된 용도의 건축물로 변화 하고 있는 흐름에 우리 나 홀로 준비 안 된 건축사들은 이렇게 다변화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가 걱정이 앞선다.
종전에 건축사가 건축설계를 수주해서 직접 수행하던 업무는 전력법에 의한 전기설계,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계, 통신법에 의한 통신설계 등 전문화, 세분화되어 건축설계에서 분리 되었고, 최근 구조분야도 전문성의 이유로 분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현실이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를 고려한 친환경 설계, 장애자를 고려한 B/F 설계 등의

필자는 중앙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대림산업 설계부를 거쳐 현재 신화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건축위원, 도시계획위원, 디자인위원이고, 목원대학교, 우송대학교 겸임교수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건축문화신문에 건축만평을 4년째 연재하고 있다.

전문적인 분야도 외부도움을 받게 되면 결국 순수 건축설계 몫은 50%도 안 되면서 '건축사'는 설계 수주에서 설계 납품 및 공사 추진 과정 및 준공까지 모든 책임을 지고 업무를 수행 하지만, 실속은 없는 허울 좋은 '건축사'가 지금의 건축설계의 현실이라고 본다.

변호사 업계도 전문화, 대형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의사도 '전문의' 제도 도입으로 전문화, 대형화하고 있지 않는가? 변호사 홀로 모든 분야의 전문 변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법무법인'화하여 형사 전문변호사, 민사전문 변호사, 인권전문, 의료전문, 부동산전문 변호사들이 함께 '법무법인'이라는 '대형로펌'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의사들도 '의료법인'화하여 각 전문분야의 전문인들로 하여금 종합, 대형화하고 있고, '회계법인' '세무법인' '노무법인' 등 역시 전문화, 대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변호사법, 의료법, 세무사법 등에는 사무소 유형을 '개인사무소'와 '특수법인'으로 구분, 설립토록 되어있다.
우리 건축사법도 시대에 맞게 개정을 하여 용도별, 분야별로 전문화, 대형화 할 수 있게 하여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설계법인'화를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건축사'도 전문 건축사를 요구하는 시대이다. 나홀로 건축사가 모든 특성화된 용도, 규모의 설계는 물론 감리를 할 수 없기에 전문분야 '건축사'집단 성격의 '설계법인'화가 될 수 있도록 건축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변경되는 건축사법에는 '건축사사무소'와 '설계법인'으로 구분 등록토록 하고, '설계 법인'은 분야별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건축사들이 주축이 되어 대형 규모와 전문성을 갖추게 하여 글로벌 시대에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게 한다면 건축 전문 직종으로써 건축사의 위상이 제고 될 것이며, 우리 건축사들은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건축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본다.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시장이 붕괴 직전에 이르고, 그동안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서서 성실하고 열심히 건축 전문가로서 소임을 다 했던 우리 건축사들이 이제 더 이상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되며, '건설사'가 '건축사'를 고용하고 있는 제도를 우리 건축사들은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한다.

건축사의 고유 영역인 건축설계가 비전문가에 의해 침해 받지 안도록 하는 건축사법 개정과 건축사 영역이 보다 전문화 될 수 있게 "설계 법인화"를 가능하게 하는 건축사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

마니커 닭 박물관
MANIKER STORY

마니커 닭 박물관

설계자 | 천국천_KIRA | (주)한인 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CG사무소를 시작으로 다양한 전문분야의 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를 익혔다. 주 업무로는 문화시설(전시관/박물관) 및 목조건축(경골/글루램/한옥) 분야에 전문적으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대한건축사협회 청년건축사유니온 및 건축사한옥연구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한인건축에서 대표를 지내다 법인을 분리. ㈜한인 종합건축사사무소를 개소하여 대표로 재직 중이다.

- 설계팀 : 이영모, 장동훈, 김종재, 양민지_한인종합
  구만재, 박기범, 홍준의_르 씨지엠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다건구조
  - 설비분야 : (주)남경기술공사
  - 인테리어 : (주)르 씨지엠

건축주 | (주)마니커

감리자 | 천국천(주.한인 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자 | (주)르 씨지엠

대지위치 | 경기도 동두천시 하봉암동 141-4

주요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3,209.00㎡

건축면적(Building Area) | 540.05㎡

연면적(Gross Floor Area) | 575.45㎡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16.83%

용적률(Floor Area Ratio) | 16.83%

규모(Building Scope) | B1-1F

구조 | 경량철골조, 조적조

주요마감재 | 외부마감_개비온 월 패널, 알미늄쉬트, 보강블럭쌓기
내부마감_투명에폭시, 수성페인트, 자기질타일

설계기간 | 2010. 05. ~ 2011. 06.

공사기간 | 2011. 06. ~ 2012. 01

사진(Photographer) | Kim, Jae-yun(studio zip)

Client | Maniker

Architect | Chun, Kuk-chun

Project team | Lee, Yeong-mo / Jang, Dong-hoon / Kim, Jong-jae / Yang, Min-ji _ HANIN
Gu, Man-jae / Park, Gi-beom / Hong, Jun-ui _ le sixieme

General Contractor | Le sixieme

Location | 141-4, Habongam-dong, Dongducheon-si, Gyeonggi-do, Korea

Structure | LW.S.C

Structural Engineer | Da-geon Structural

HVAC & Electrical Engineer | Nam-kyeong Engineering

Interior Design | Le sixieme

Finishing Materials | Interior_ Water paint, Epoxy coating
Exterior_ Gabion wall panel, Block, A.L Sheet

Design period | 2010. 05 ~ 2011. 06

Construction period | 2011. 06 ~ 2012. 01

장소와 사물의 울림

Herzog & de Meuron의 도미누스 포도주 양조장은 현대건축의 재료미학과 지역성을 대표하는 건축물이다.

그 지역에서 출토되는 현무암을 사용함으로써 지역주의적 건축을 재료의 고유한 물성을 직접 표현함으로써 건축의 심미성을 확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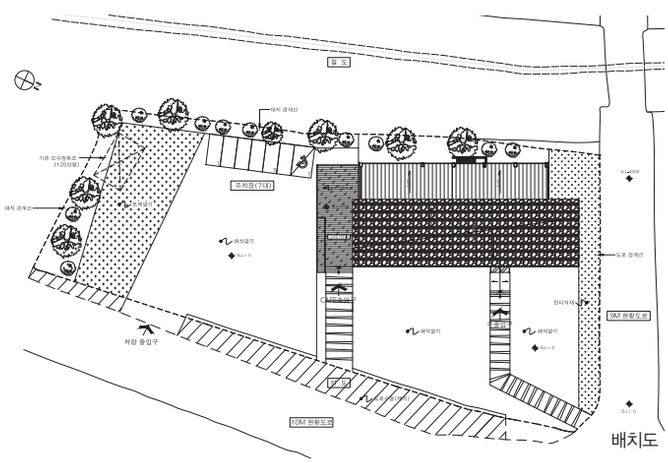
개비온(gabion)이라는 동일한 소재를 사용한 마니커 닭박물관은 낡은 식품가공 공장의 일부를 리노베이션하여 오랜 시간 수집되어온 동서양의 닭 관련 유물을 전시 체험하는 공간이다.

기차길에 의해 양분되어진 공장과 박물관 부지는 강력한 통합적 요소를 요구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순환확장적, 유동적 요구들은 기차길을 수직으로 연장함으로써, 도미누스 양조장의 해석 방법에 상당부분 기대어 있다.

수없이 많은 차등되어지고 특이한 것들로 가득 차게 될 내부 공간은 다양한 공간의 목적과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공간으로 설계되었으며, 교차되고 얽히지만 풍부한 이야기들은 단순화된 형태와 색상 단일소재의 사용으로 정리되고 보편화 된다.

아울러 박물관 외부의 닭 조형물은 이에스더의 그래픽 작품으로 약간 변형된 집의 형상과 아울러 "닭의 집"이라는 동화적 감성을 담아내고자 했다.

카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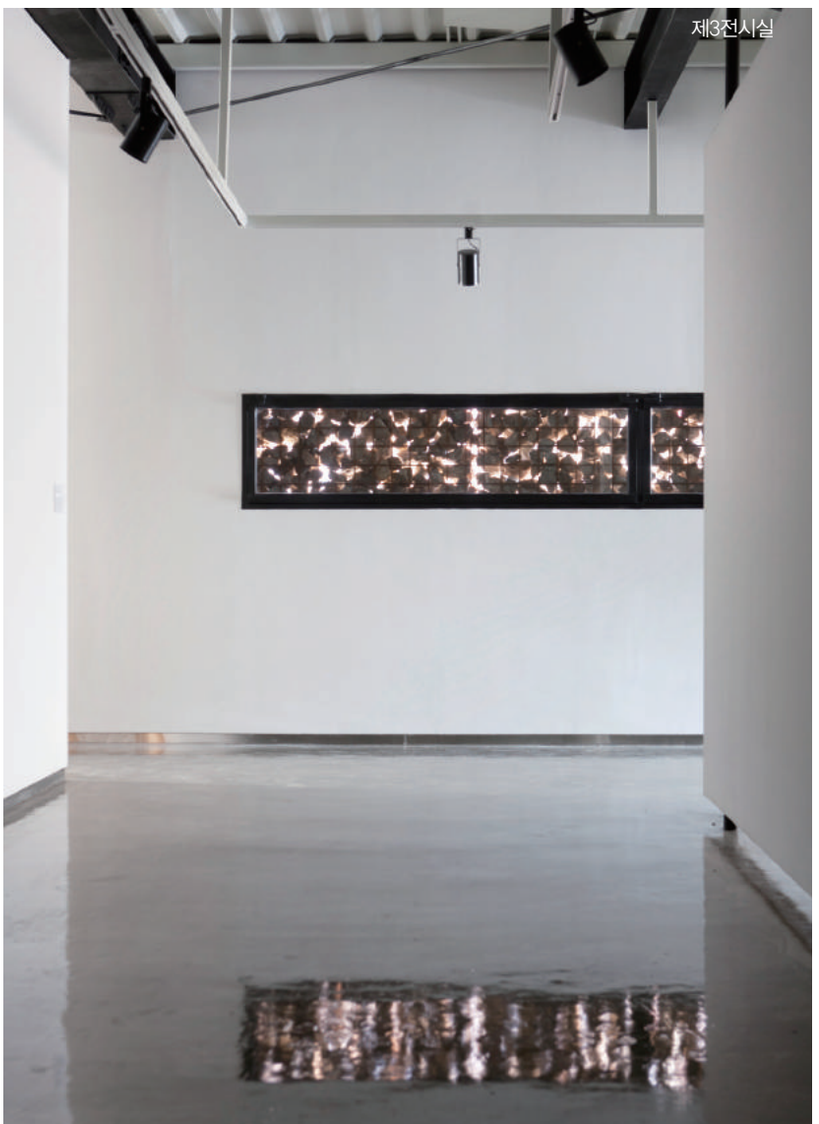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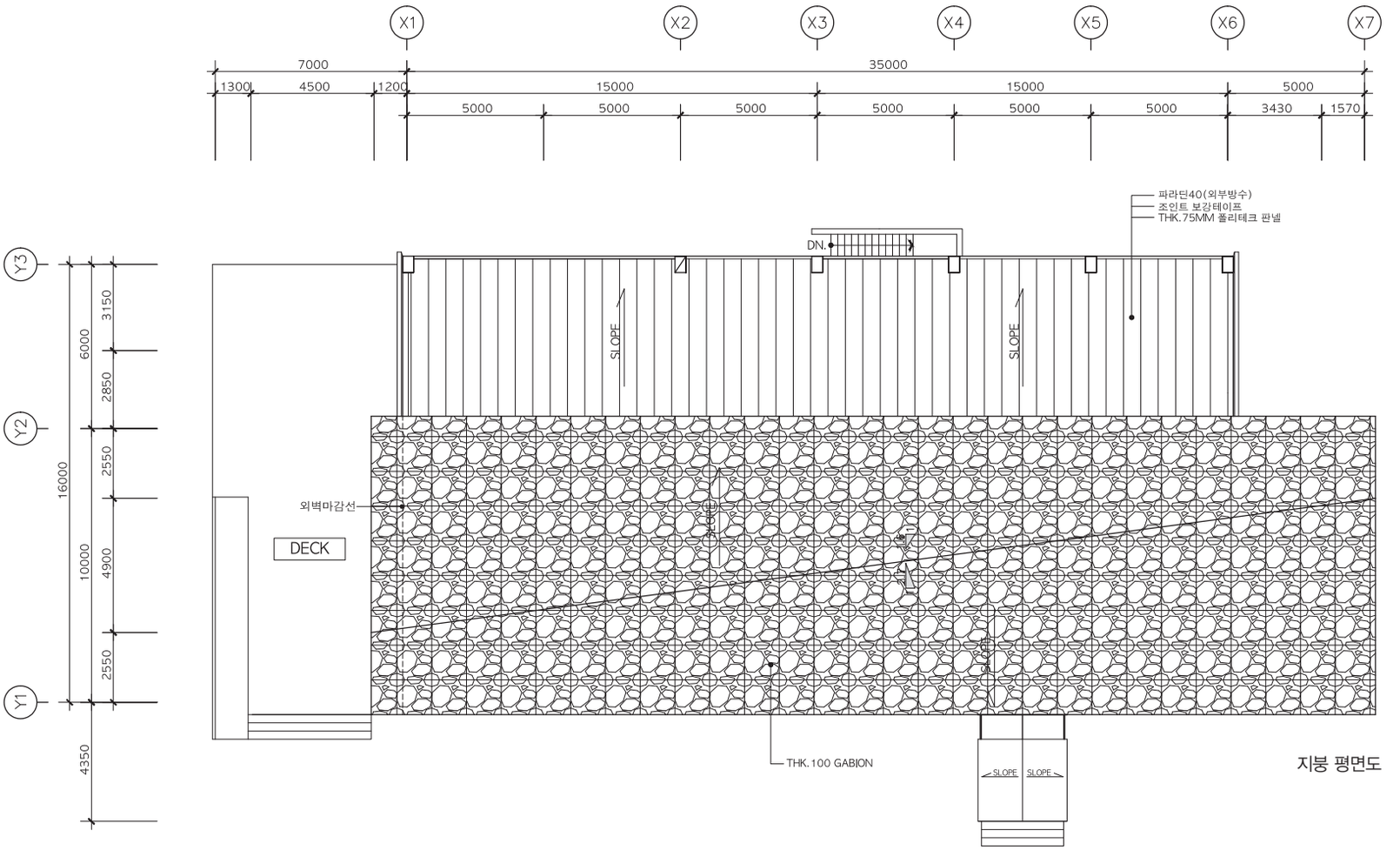
우측면

카페쪽 파사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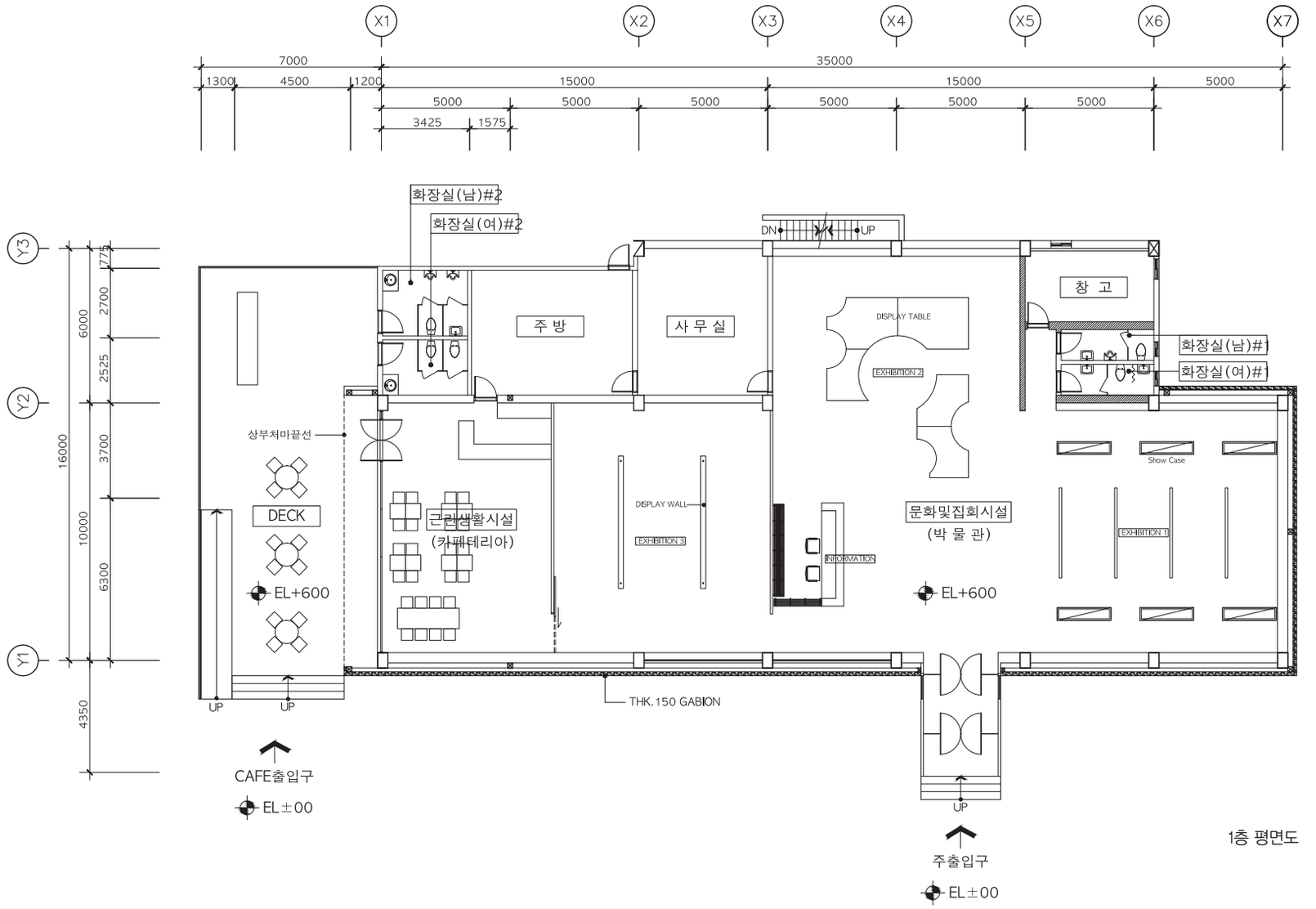
주출입구

홀에서 주출입구 바라봄


제3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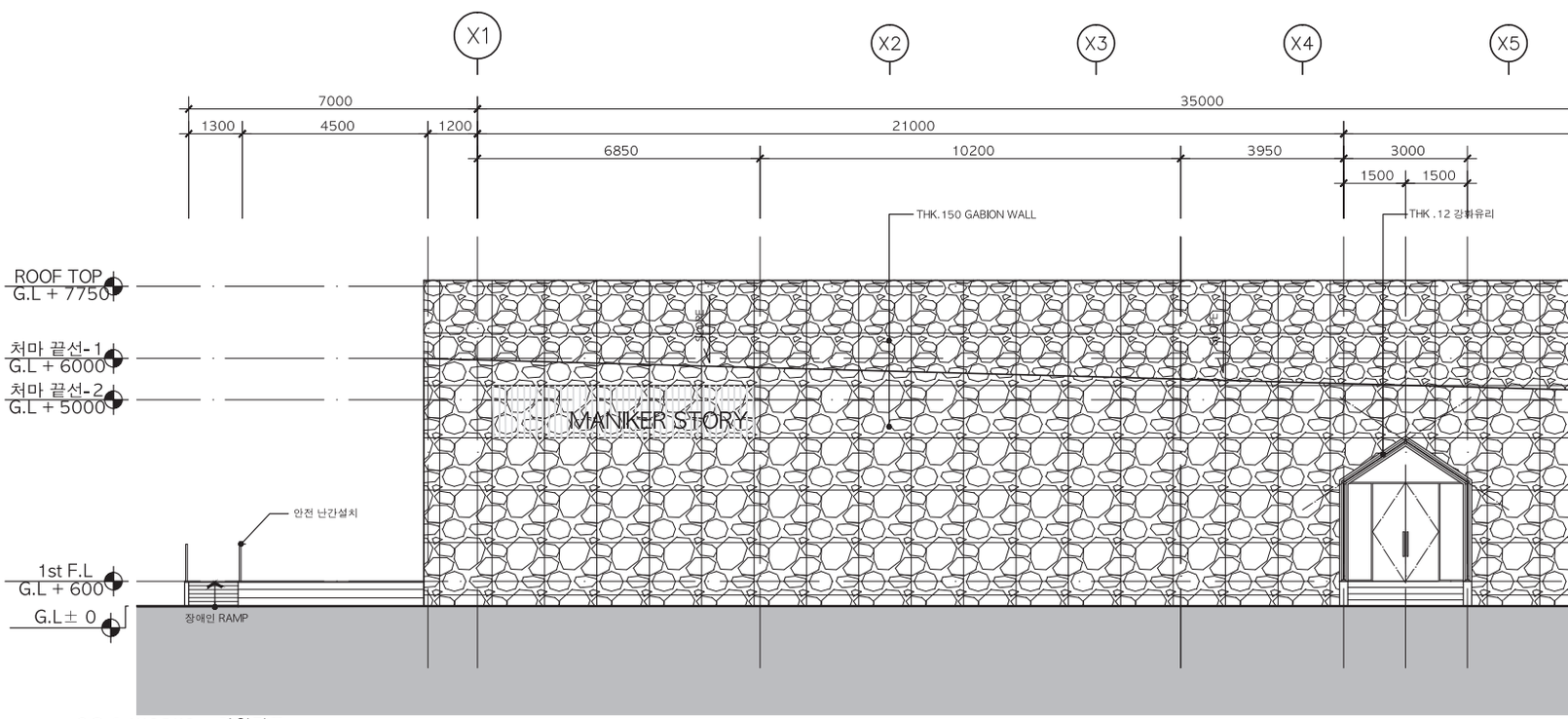

X1
X2
X3
X4
X5
X6
X7
7000
35000
1300
4500
1200
15000
1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3430
1570
Y3
Y2
Y1
16000
6000
3150
2850
10000
2550
4900
2550
4350
파라딘40(외부방수)
조인트 보강테이프
THK.75MM 폴리테크 판넬
DN.
SLOPE
SLOPE
외벽마감선
DECK
SLOPE
SLOPE
THK.100 GABION
SLOPE
SLOPE

지붕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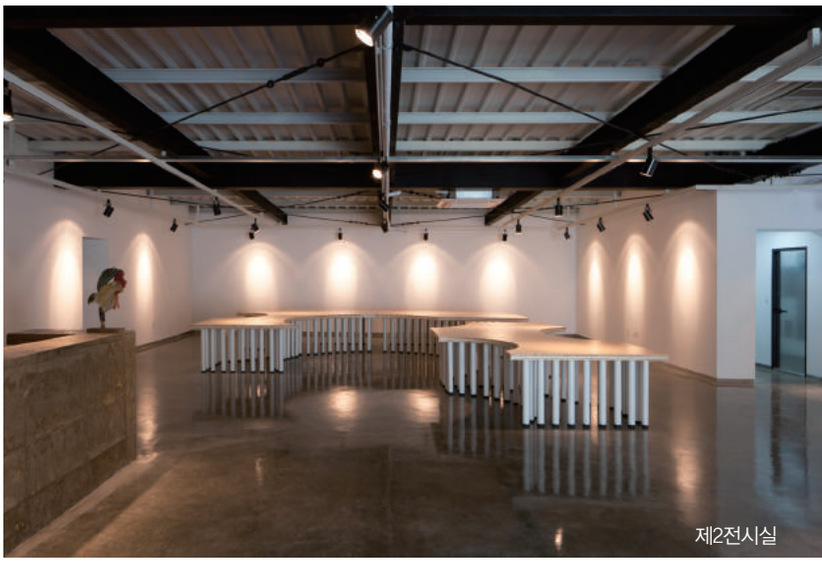

X1
X2
X3
X4
X5
X6
X7
7000
35000
1300
4500
1200
15000
1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3425
1575
Y3
Y2
Y1
16000
6000
775
2700
10000
2525
3700
6300
4350
화장실(남)#2
화장실(여)#2
DN
UP
주 방
사 무 실
창 고
DISPLAY TABLE
EXHIBITION 2
화장실(남)#1
화장실(여)#1
상부처마끝선
Show Case
DECK
근린생활시설
(카페테리아)
DISPLAY WALL
EXHIBITION 3
INFORMATION
문화및집회시설
(박 물 관)
EXHIBITION 1
EL+600
EL+600
UP
UP
THK.150 GABION
UP
CAFE출입구
EL±00
주출입구
EL±00

1층 평면도

Gabion wall


X1
X2
X3
X4
X5
7000
35000
1300
4500
1200
21000
6850
10200
3950
3000
1500
1500
THK.150 GABION WALL
THK .12 강화유리
ROOF TOP
G.L + 7750
처마 끝선-1
G.L + 6000
처마 끝선-2
G.L + 5000
MANIKER STORY
안전 난간설치
1st F.L
G.L + 600
G.L± 0
장애인 RAM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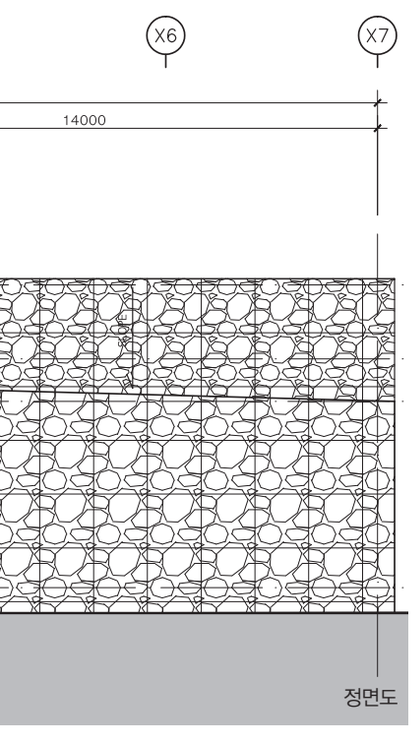
홀 및 안내데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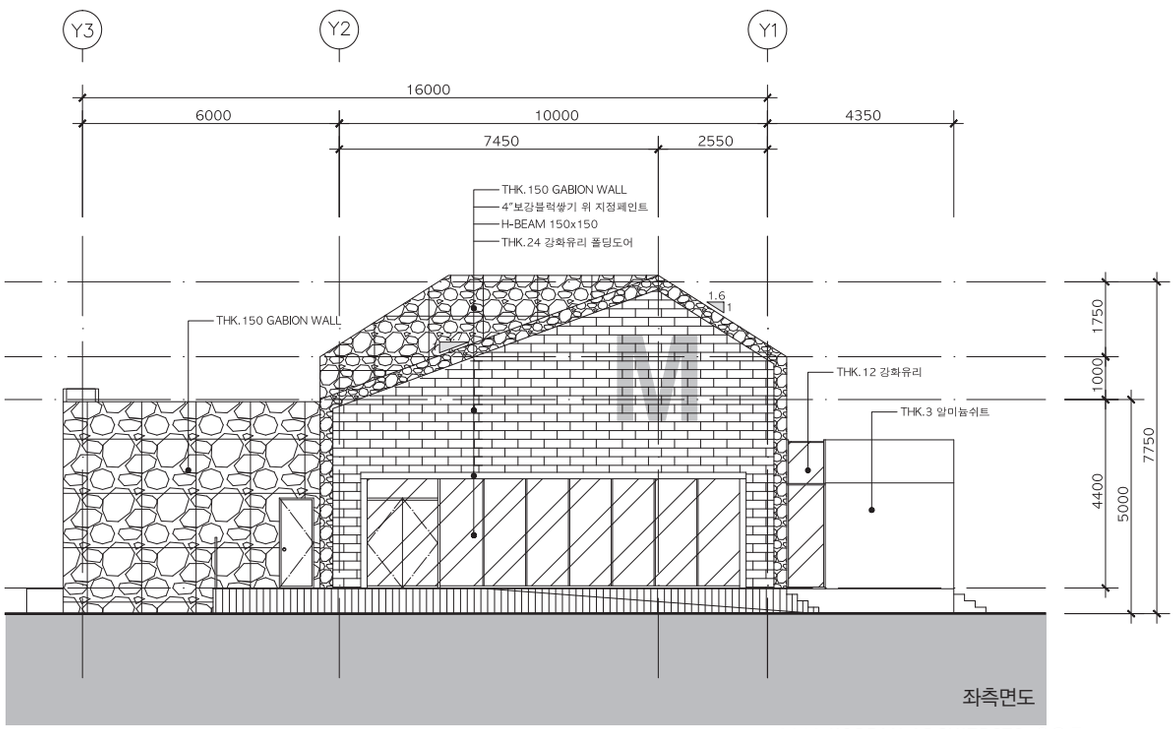
제2전시실

제1전시실

카페테리아



정면도



좌측면도

문화공장 오산
CULTURE FACTORY OSAN

오산천에서 바라본 전경

문화공장 오산

설계자 | 박세희_KIRA | 지안 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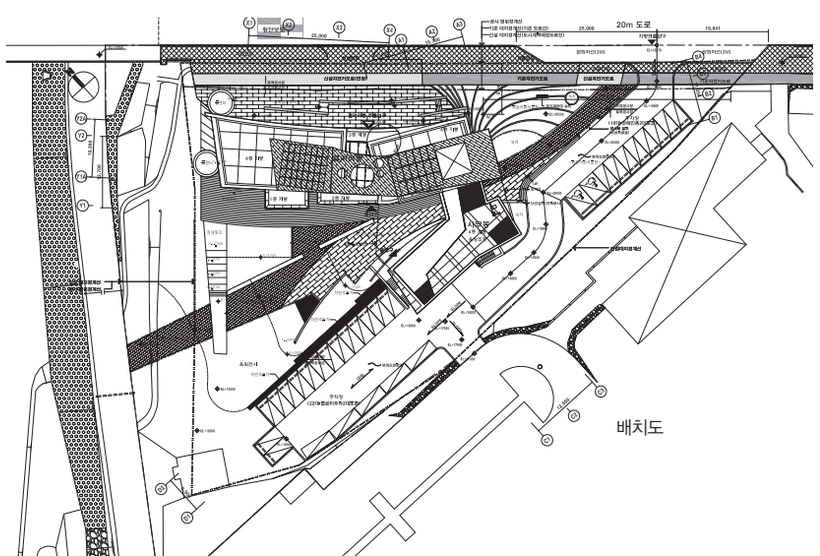
연세대 건축공학과와 동대학 대학원 및 건국대 부동산대학원(건설개발전공)에서 수학했으며, 남서울대 겸임교수 및 한국리모델링협회에서 설계기술위원회 부위원장과 제도개선위원회 특별위원, 대한건축사협회 친환경 리모델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바 있다. 주요작품은 강원랜드 카지노리조트 현상설계 당선과 청와대 사랑채 현상설계 당선, 송산그린시티 전망대 현상설계 당선, 무창포해수욕장 전망타워 현상설계 당선 등이있다.

- 설계자 : **김상윤** | 지안 건축사사무소
- 설계팀 : 허승현, 이창희, 조혜진, 전주화, 김은영, 김지연, 김성식, 남정식, 유인성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터구조
  - 토목분야 : 정인토목설계
  - 기계설비, 기계소방분야 : 선진설비콘설탈트
  - 전기, 통신, 전기소방분야 : 수양엔지니어링

건축주 | 오산시청

대지위치 | 경기도 오산시 은계동 7-7번지 외 2필지
주요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미술관)
대지면적(Site Area) | 4,160㎡
건축면적(Building Area) | 823.85㎡
연면적(Gross Floor Area) | 3,164.52㎡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19.80%
용적률(Floor Area Ratio) | 63.44%
규모(Building Scope) | B1 – 4F
구조 |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
주요마감재 | 화강석, T24복층 유리, 합성목재루버
설계기간(기획/계획/실시) | 2010. 01. 27 ~ 2010. 05. 30
공사기간 | 2010. 06. ~ 2012. 09. 26
사진(Photographer) | Kang, Jae-ku, Jang, Yu-jin(STUDIO 273-8)

Client | OSAN-SI Office
Architect | Park, Se-hui / Kim, Sang-yun
Project team | Heo, Seng-hyeon / Lee, Chang-hee / Jo, Hye-jin / Jeon, Ju-hwa
Kim, Eun-yeong / Kim, Ji-yeon / Kim, Sung-sik / Nam, Jeong-sik / Yoo, In-sung
General Contractor | ZIAN ARCHITHECTS & PLANNERS
Location | 7-7, Eungye-dong, Osan-si, Gyeonggi-do, Korea
Structure | RC+SC
Structural Engineer | THEKUJO STRUCTURAL ENGINEERS CO. LTD
HVAC Engineer | SUNJIN ENGINEERING CONSULTANT CO. LTD
Electrical Engineer | SUYANG ENGINEERING
Civil Engineer | JUNGIN CIVIL ENGINEERING CO.,LTD
Finishing Materials | Granite, pair glass, WPC
Design period | 2010. 01. 27 ~ 2010. 05. 30
Construction period | 2010. 06. ~ 2012. 09. 26



배치도

주진입도로에서 본 전경

오산시 구도심과 신도시, 그 중에서도 각종 문화시설이 모여 있는 오산천변 은계동에 자리 잡은 '문화공장 오산'은 이웃한 문화예술회관,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스포츠센터 및 복지관 등과 함께 오산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이다.

건물은 크게 갤러리동과 사무동으로 나뉜다. 두개의 동은 관람객과 관리자의 동선을 자연스럽게 분리시키며, 브릿지를 통해 연결된다.

20m도로에 전면배치한 갤러리동은 도시적 감각의 입면으로 계획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시선을 유도하며, 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이끌어 내도록 하였다.

사무동은 업무확경과 문화예술회관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문화예술회관과 인접한 대지의 안쪽에 배치하였다.

갤러리동과 사무동 사이에 열린 외부공간을 계획하여 야외 전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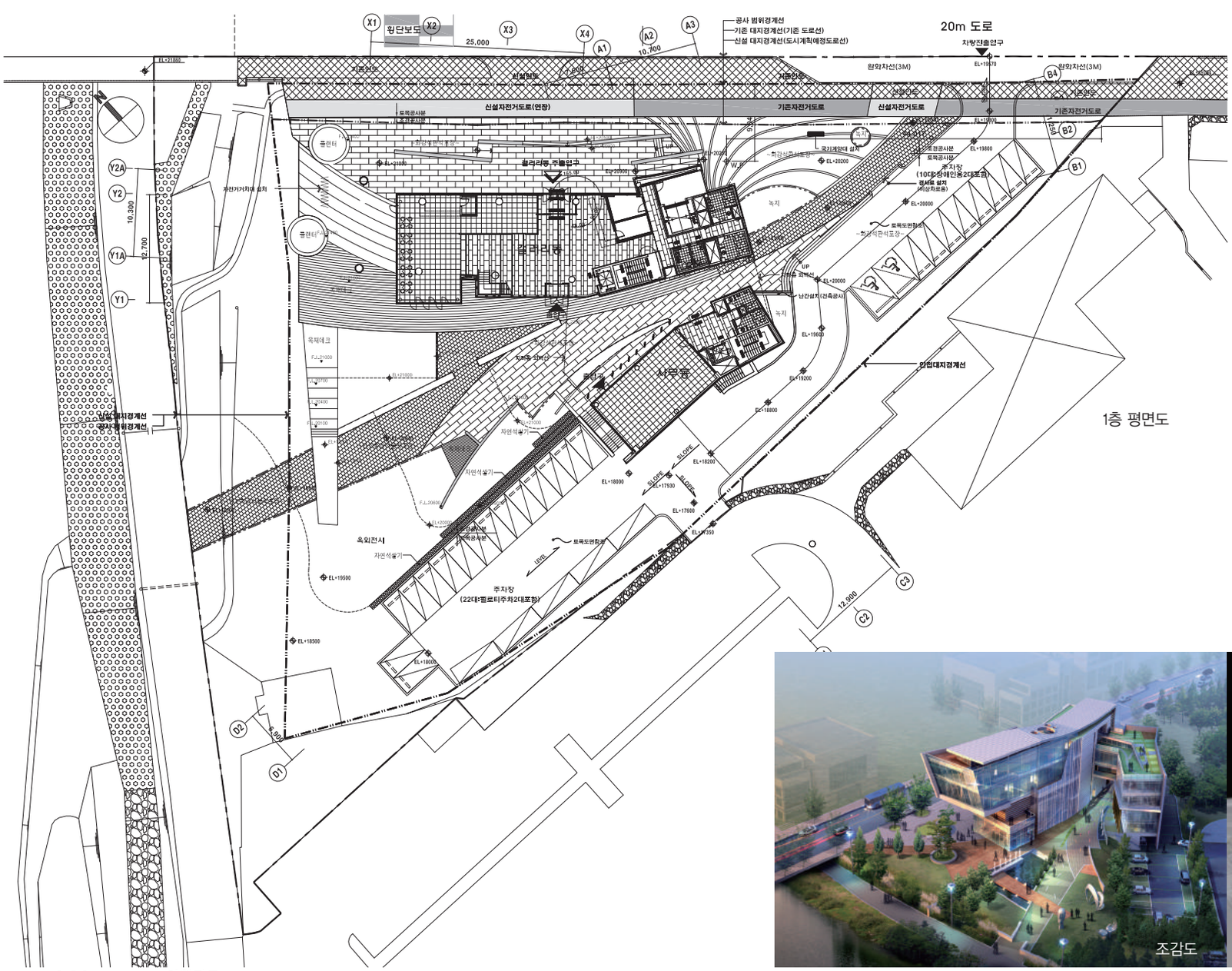
오산천을 향해 열려 있는 야외 전시장은 이곳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휴식의 공간이자, 산책길에 나선 지역주민들에게는 발걸음을 자연스럽게 전시장으로 이끌어 자연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문화산책로이다.

'문화공장 오산'은 자연의 숨결(오산천)과 도시의 활기로 채워져 새로운 문화적 공명과 울림이 되어 오산에 새로운 생명력을 제공하여 문화도시 오산으로 자라나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

지금까지 당선된 건축물 가운데 원안과 가장 근접하게 지어진 건축물이 '문화공장 오산'인 듯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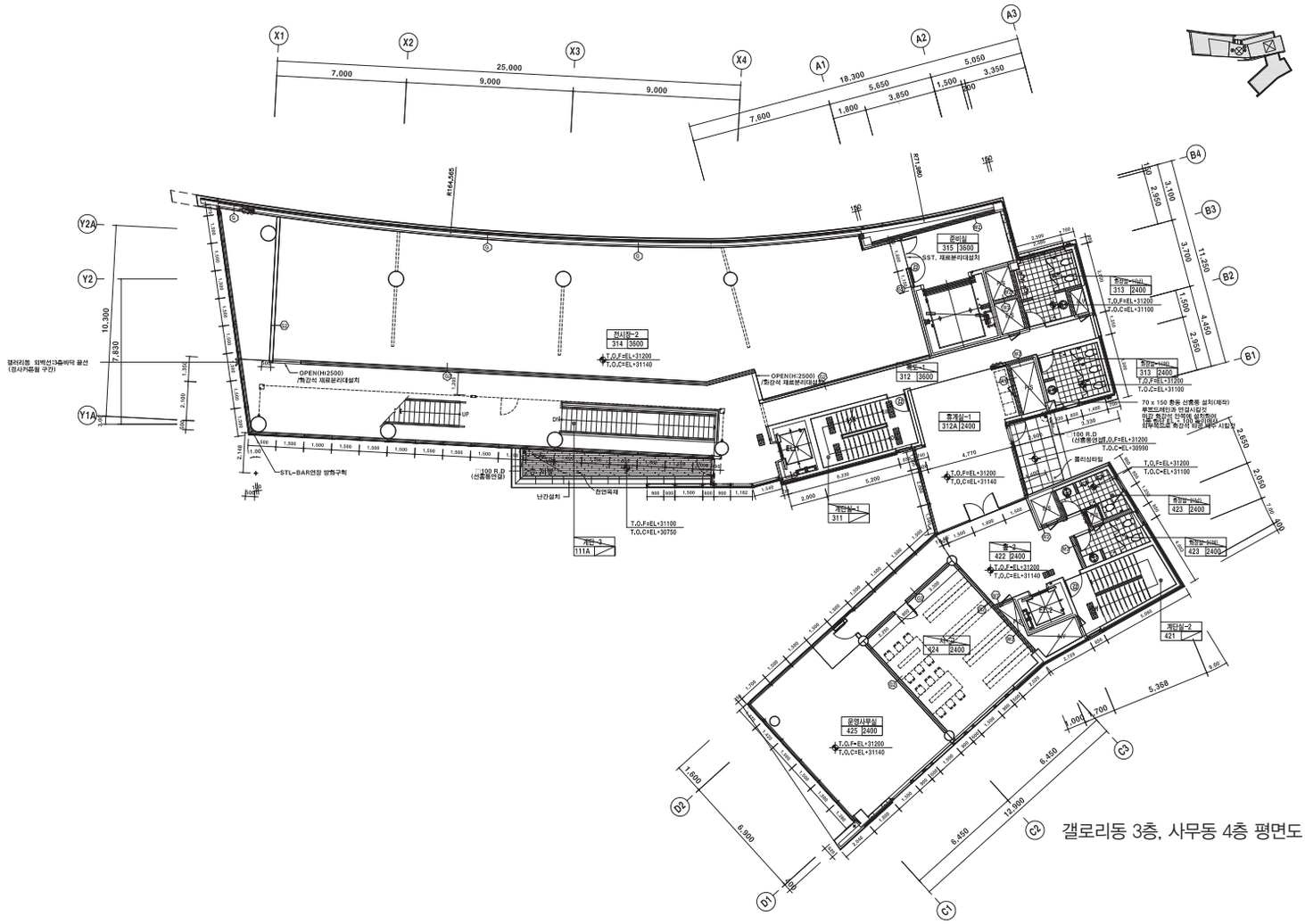
건축사의 디자인을 존중해주는 인식이 문화도시를 자라나게 하는 원동력이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오산천에서 바라본 갤러리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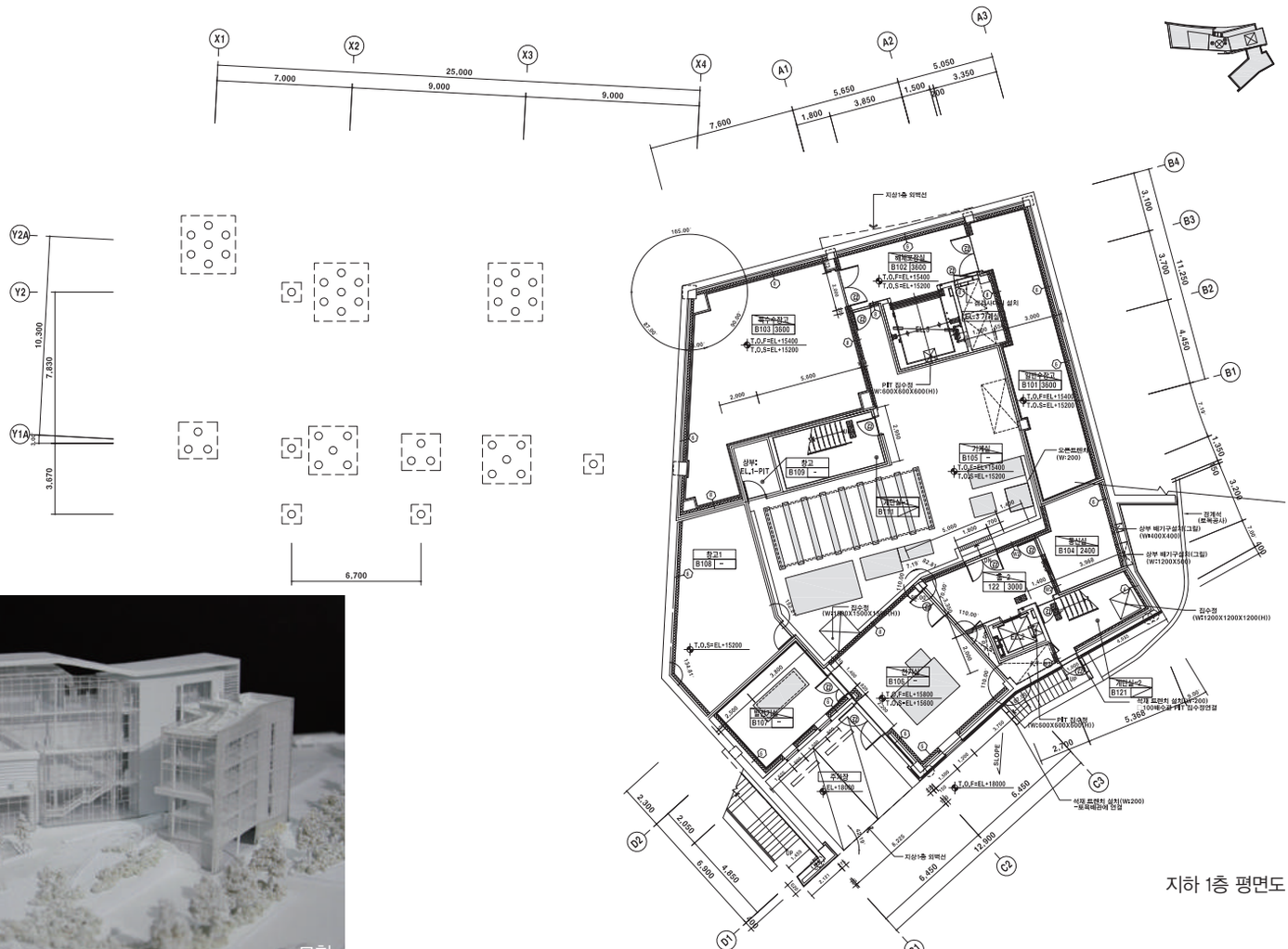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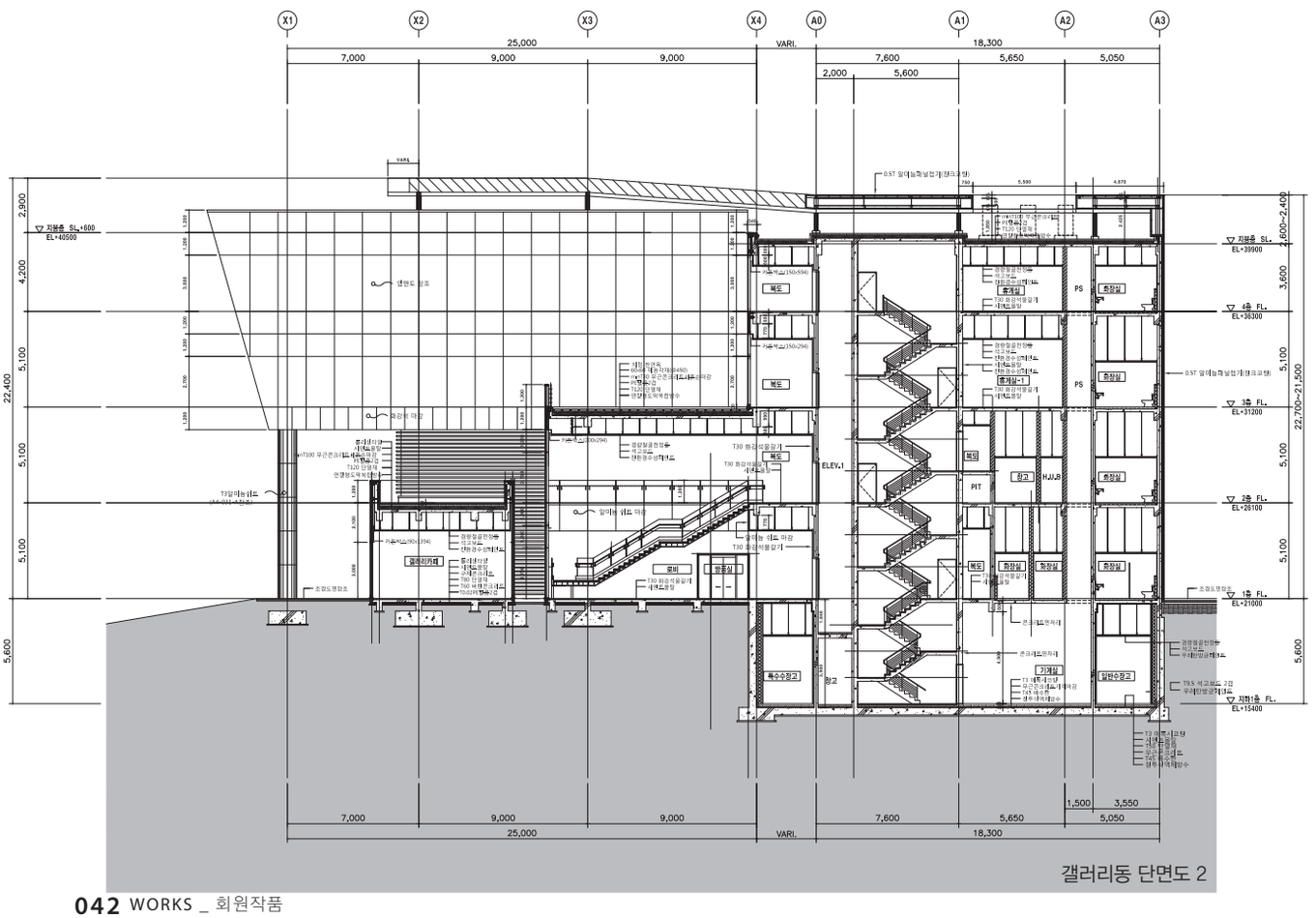
갤로리동 3층, 사무동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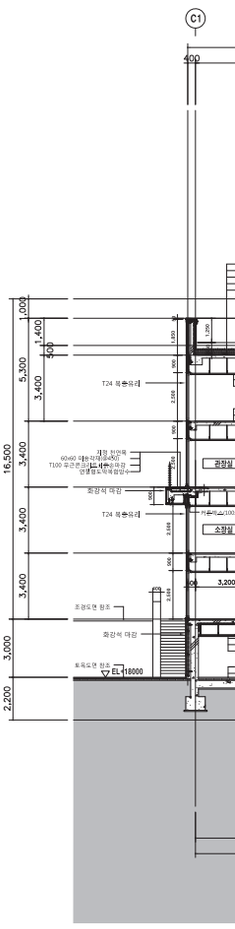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모형

야외 갤러리에서 본 사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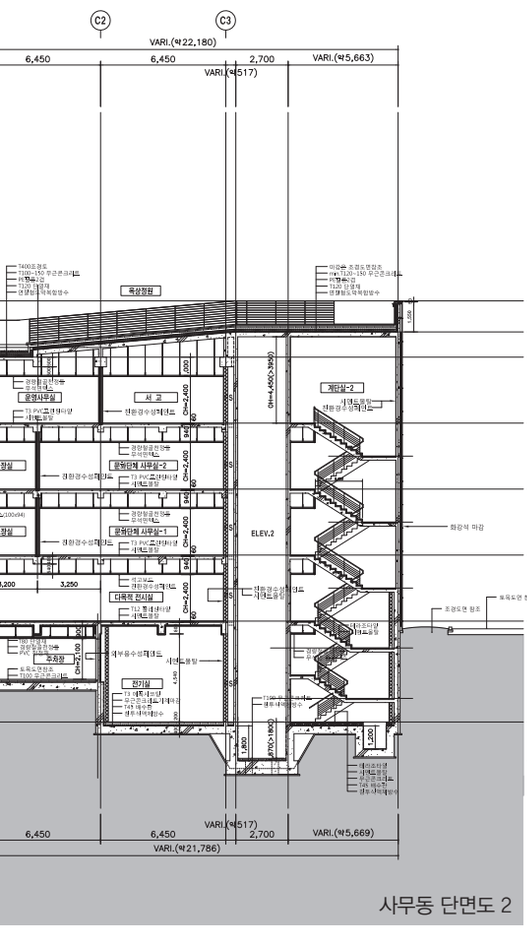
갤러리동 단면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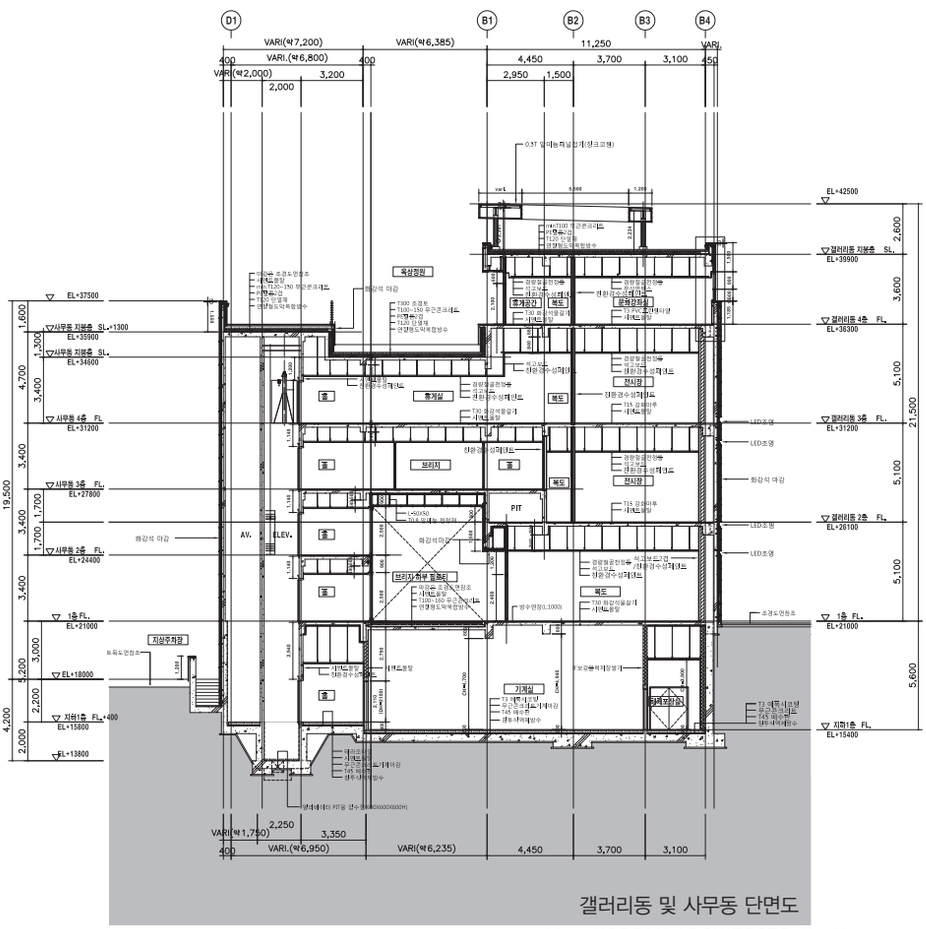
연결브릿지에서 바라본 야외 갤러리

갤러리동 4층 홀 내부

사무실에서 바라본 외부공간



사무동 단면도 2



갤러리동 및 사무동 단면도

잠원동 RIVER HILLS
JAMWON RIVER HILLS

설계자 | 고은영_KIRA | 건축사사무소 가진

연세대 건축공학과와 이화여대 정보과학대학원에서 수학했으며, 충남건설심의위원과 성남시 건축심의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현재는 성남시 건축심의위원과 서울시 동작구 건축심의위원과 대한건축사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작품으로는 마도파상계백화점과 '99강원 국제관광엑스포 현대금강산관, 옥션 용산고객센터, 태일시스템 부평사옥 등이 있다.

- 설계팀 : 조종원, 염지훈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무한파트너스
  - 토목분야 : 보성건설산업
  - 기계설비분야 : ㈜G.K기술단
  - 전기 · 통신설비분야 : ㈜G.K기술단

건축주 | 윤희순
감리자 | 건축사사무소 가진
시공자 | (주)포스톤건설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7-8번지
주요용도 | 근린생활시설, 도시형생활주택
대지면적(Site Area) | 231.70㎡
건축면적(Building Area) | 115.67㎡
연면적(Gross Floor Area) | 706.38㎡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49.92%
용적률(Floor Area Ratio) | 249.95%
규모(Building Scope) | B1 – 6F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요마감재 | 고흥석물갈기, 외단열시스템, 칼라복층유리
설계기간(기획/계획/실시) | 2011. 08 ~ 2011. 11
공사기간 | 2011. 12 ~ 2012. 07
사진(Photographer) | Park, Yeong-chae / Kim, Kyeong-min

Client | Yun, Hui-sun
Architect | Ko, Eun-young
Project team | Cho, Chong-won / Yeom, Ji-hoon
General Contractor | Postone Construction
Location | 7-8, Jamwon-dong, Seocho-gu, Seoul, Korea
Structure | R.C
Structural Engineer | MOOHAN Partners
HVAC Engineer | Global Korea Engineering
Electrical Engineer | Global Korea Engineering
Civil Engineer | BOSUNG Construction
Finishing Materials | Goheung rubbing, External Insulation System, Pair+Glass
Design period | 2011. 08 ~ 2011. 11
Construction period | 2011. 12 ~ 2012. 07

동네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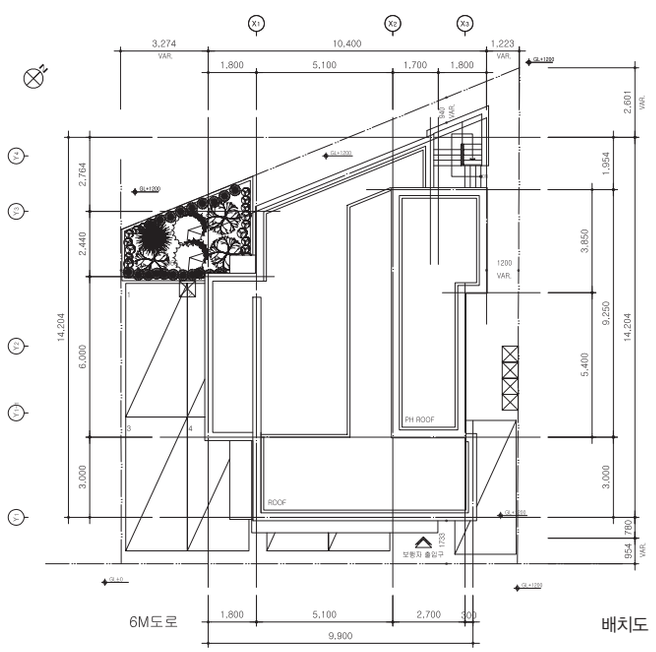
오래된 동네에 부지런한 신축 건물 사이에 30년을 버텨왔던 낡은 타일 건물이 새 단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역세권이면서 상업지역의 끝자락에 위치한 대지는 화려하고 번잡한 도시의 뒤켠 한적한 공원을 끼고 있어 도심주거지로 적합한 곳이었으며, 저층부에 아담한 커피집이라도 구색을 맞추면 동네에 마스코트가 될 듯 한 기대가 되었다.

평면계획

지역적인 특성상 1인가구를 위한 소형 원룸으로 계획하여 투자의 가치를 최대로 끌어올리며,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여 주변 상업 시설과의 콘텍스트를 유지하고 건물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용도를 구성하였다.
원룸은 가구와 가전제품을 빌트인 시스템으로 시공하여 1인가구의 생활 편의성을 고려하였고 최상층은 다락을 두어 차별화된 평면으로 임대가치를 높였다.

외장계획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단열 효과가 뛰어나고 디자인이 자유로워 탁월한 외장재인 외단열 시스템(드라이비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는 외관을 위하여 몬드리안 회화의 면 분할을 적용하여 도회적이고 세련된 젊은 감각을 반영하였으며, 저층부에는 석재와 커튼월 유리로 마감하여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공원쪽으로의 시야를 확보하여 상가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충족시키도록 하였다.
주거부분은 기능적으로 필요한 일률적인 창 모양에 변화를 주어가며 지루한 입면에 생기를 주고자 했다.
건축주의 높은 안목과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던 이 프로젝트는 설계에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즐거운 긴장과 부담감으로 설계하는 일에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었던 만큼, 이제 이 공간에서 생활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편리함과 행복함이 깃들기를 바래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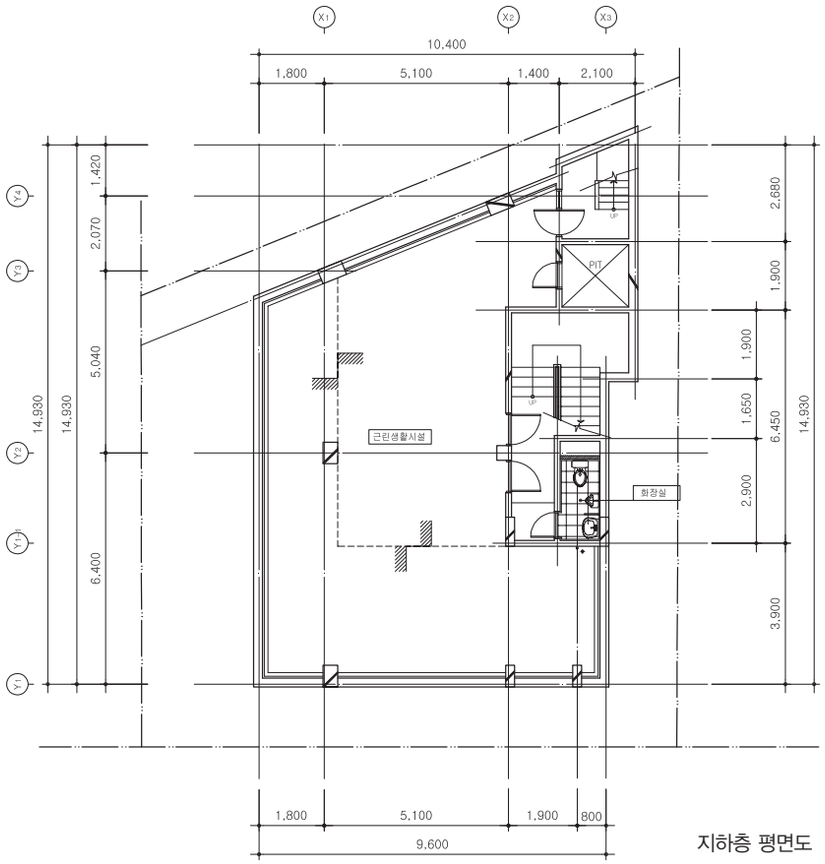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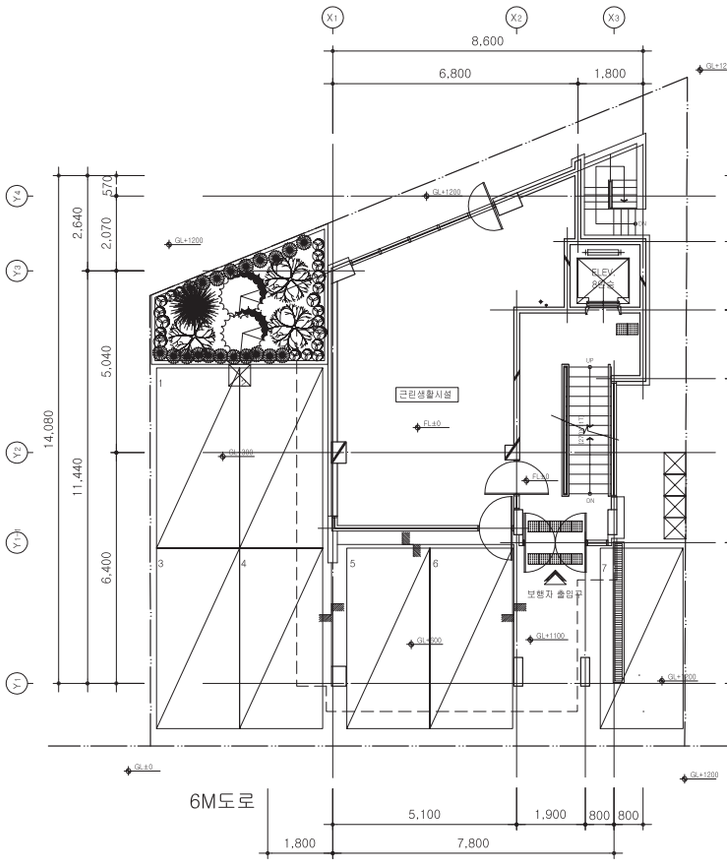
진입로 전경

정면 전경

공원에서 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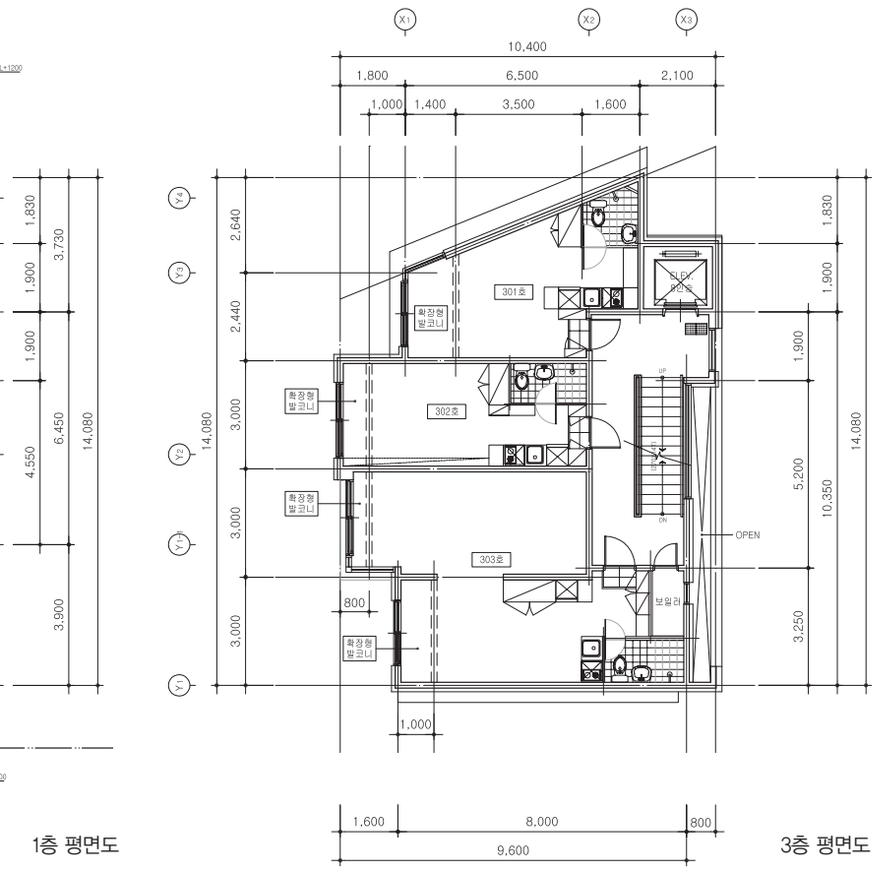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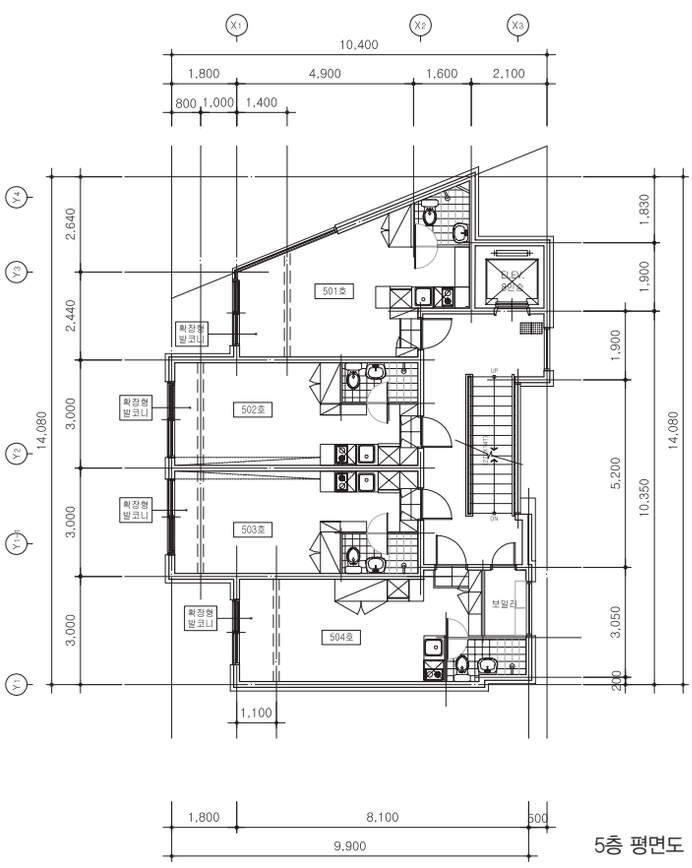
우측 전경

코너 창 부분 전경

프로젝트 창 부분 전경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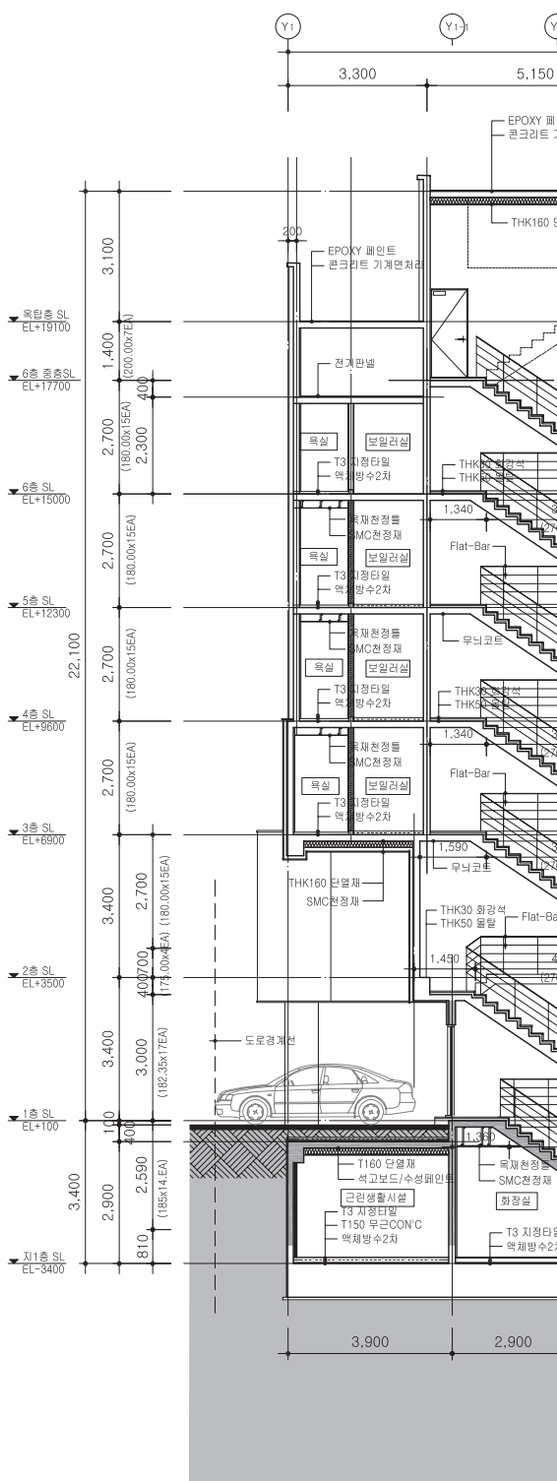
3층 평면도

5층 평면도

2층 근린생활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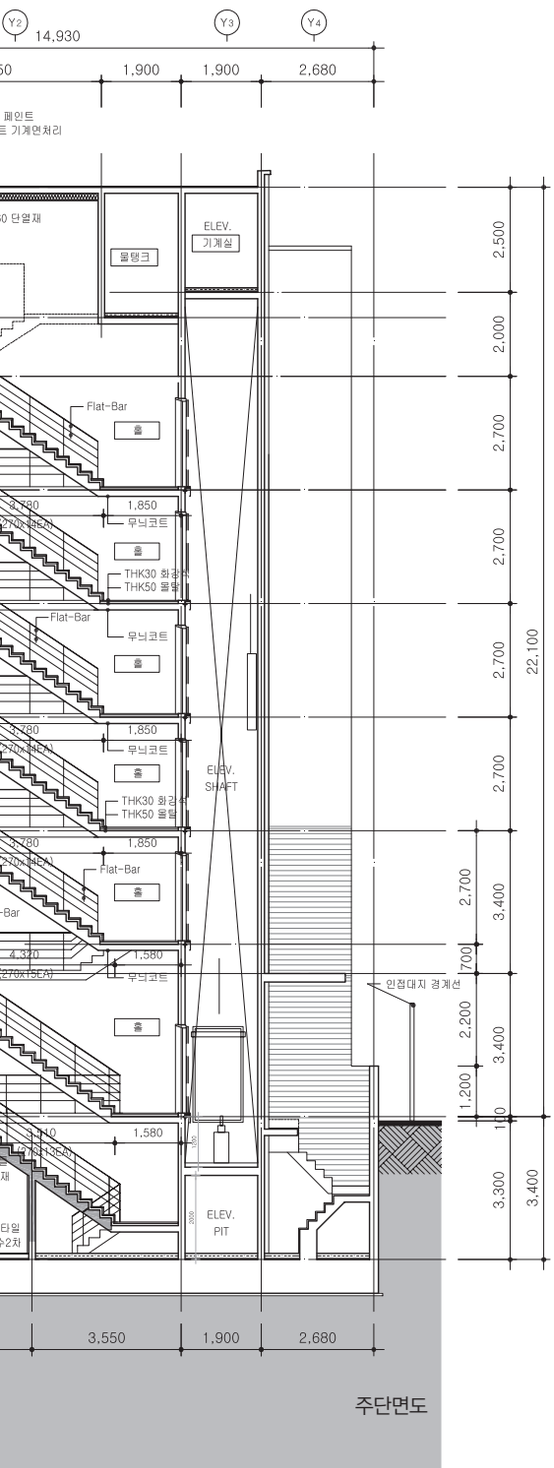
4층 계단실

근린생활 시설



2층 계단실

6층 도시형 생활주택(다락)



주단면도

6층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유니트

기업은행 종합연수원
INDUSTRIAL BANK OF KOREA TRAINING INSTITUTE

설계자 | 김관중_KIRA | ㈜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김관중 부사장은 현재 ㈜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설계사업부장으로 업무 및 복합단지개발 등 삼우의 주요 프로젝트 설계총괄을 담당해 왔다. 대표 프로젝트로는 수원월드컵경기장, 도쿄코리아센터, 대성디큐브시티, NHN 그린팩토리 등이 있다.

- 설계팀 : 허 인, 조형진, 양호정, 김용록, 이종호, 송상근, 정경아, 정길은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삼우구조, 청림구조
  - 토목분야 : (주)에스텍컨설팅그룹
  - 기계설비분야 : (주)선진엔지니어링
  - 전기분야 : 삼우전기컨설턴트
  - 소방분야 : (주)융도엔지니어링

건축주 | 기업은행

감리자 | 한미파슨스

시공자 | 삼성물산

대지위치 |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화암리 578번지

주요용도 | 연수원

대지면적(Site Area) | 99,760.0㎡

건축면적(Building Area) | 12,906.1㎡

연면적(Gross Floor Area) | 54,819.45㎡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12.94%

용적률(Floor Area Ratio) | 36.23%

규모(Building Scope) | B2 – 5F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철골트러스

주요마감재 | 외부마감_테라코타, 징크, 라임스톤, 유리커튼월
내부마감_나무, 석재, 카펫

공사기간 | 2009. 09 ~ 2011. 05.

Client | Industrial Bank of Korea

Architect | Kim, Kwan-joong

Project team | Hur, In / Cho, Hyoung-jin / Yang, Ho-jeong / Kim, Yong-lock
Lee, Jong-ho / Song, Sang-keun / Jung, Kyung-ah / Jung, Gil-eun

Location | 578, Hwaam-ri, Dongyang-myeon, Chungju-si, Chungcheongbuk-do,Korea

Structure | R.C, S.C, Steel Truss

Structural Engineer | Samoo Structural Consultants, Chunglym Structural Consulta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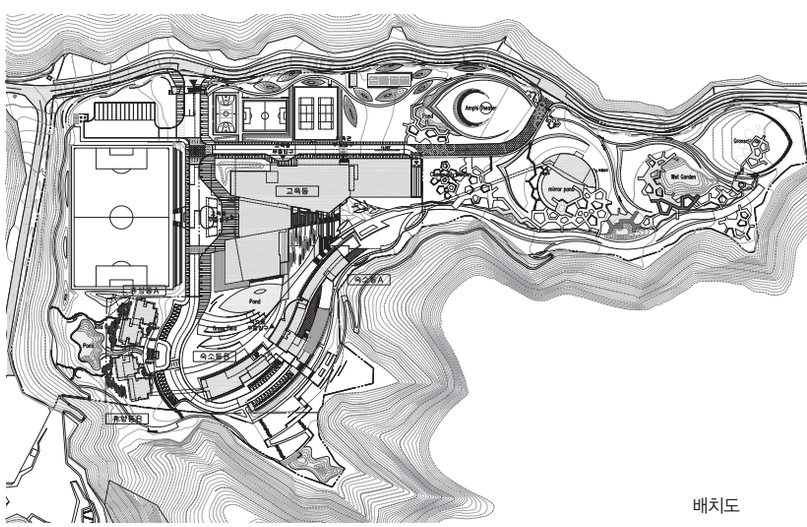
HVAC Engineer | Sunjin Engineering &Architecture Co.,Ltd

Electrical Engineer | Samoo Electrical Consultant

Civil Engineer | S-Tech Consulting Group

Finishing Materials | Interior_ Wood, Stone, Carpet
Exterior_ Terracotta, Zinc, Lime Stone, Glass curtain wall

Construction period | 2009. 09 ~ 2011. 05.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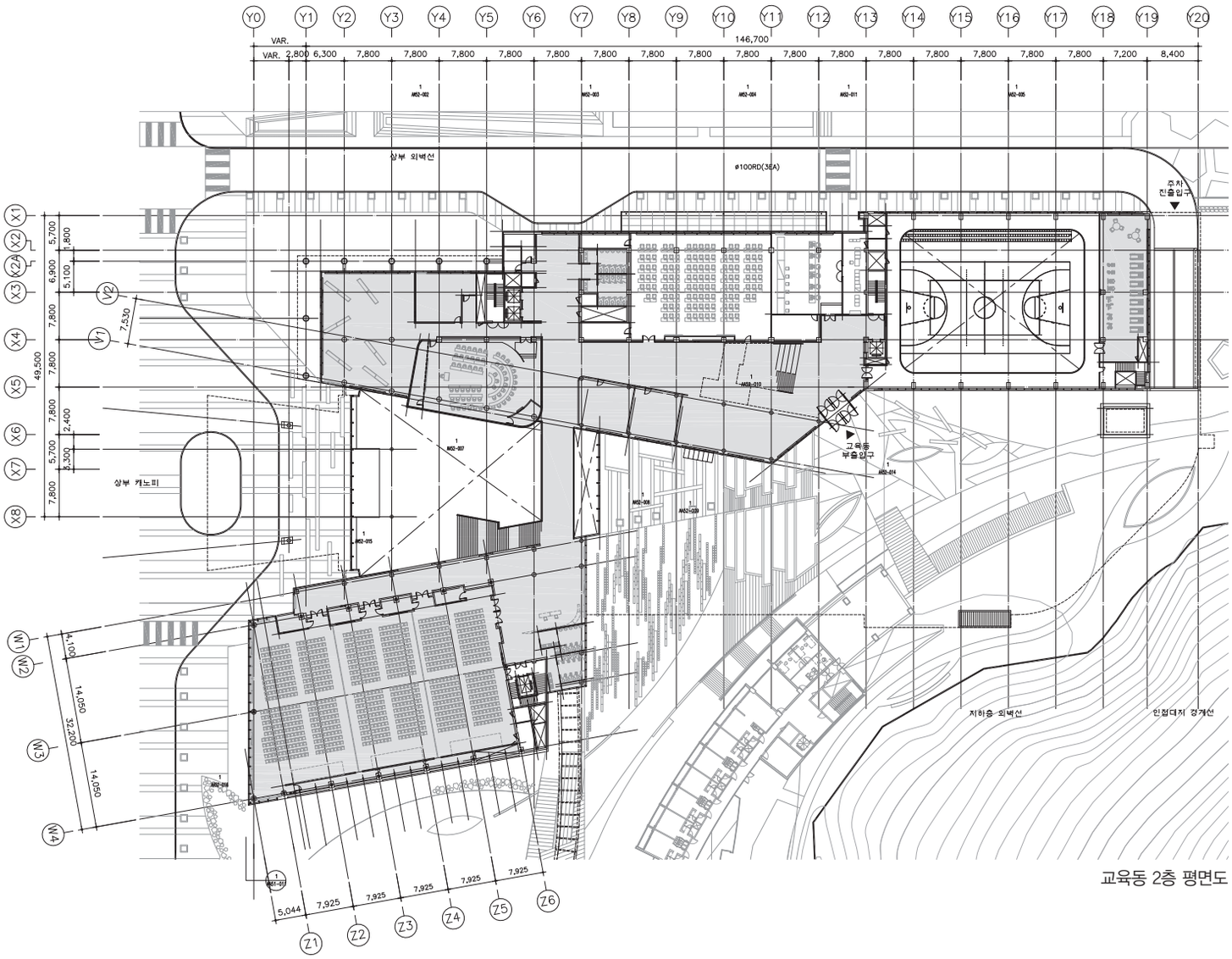
전체 전경

충주호를 향한 자연의 흐름은 기업은행연수원의 비상을 통해 새로운 풍경이 된다. 본 계획안은 기업은행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복지/문화 시설의 준비선상에서 시작되었다. 충주호의 절경을 담은 대지 위에서 그 원형을 형상하고자 하는 배치 형태는 건물 자체가 다시 자연의 배경이 되고자 하는 구상의 일환이다. 본 연수원은 계획단계에서 충주호라는 경관과의 미적 고려만큼이나 상수원보호지역으로써 환경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기능적 해결이 관건이었다. 이에 순응, 조화, 풍경의 자연적 아이콘 위에 비상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친환경 생태 연수원을 지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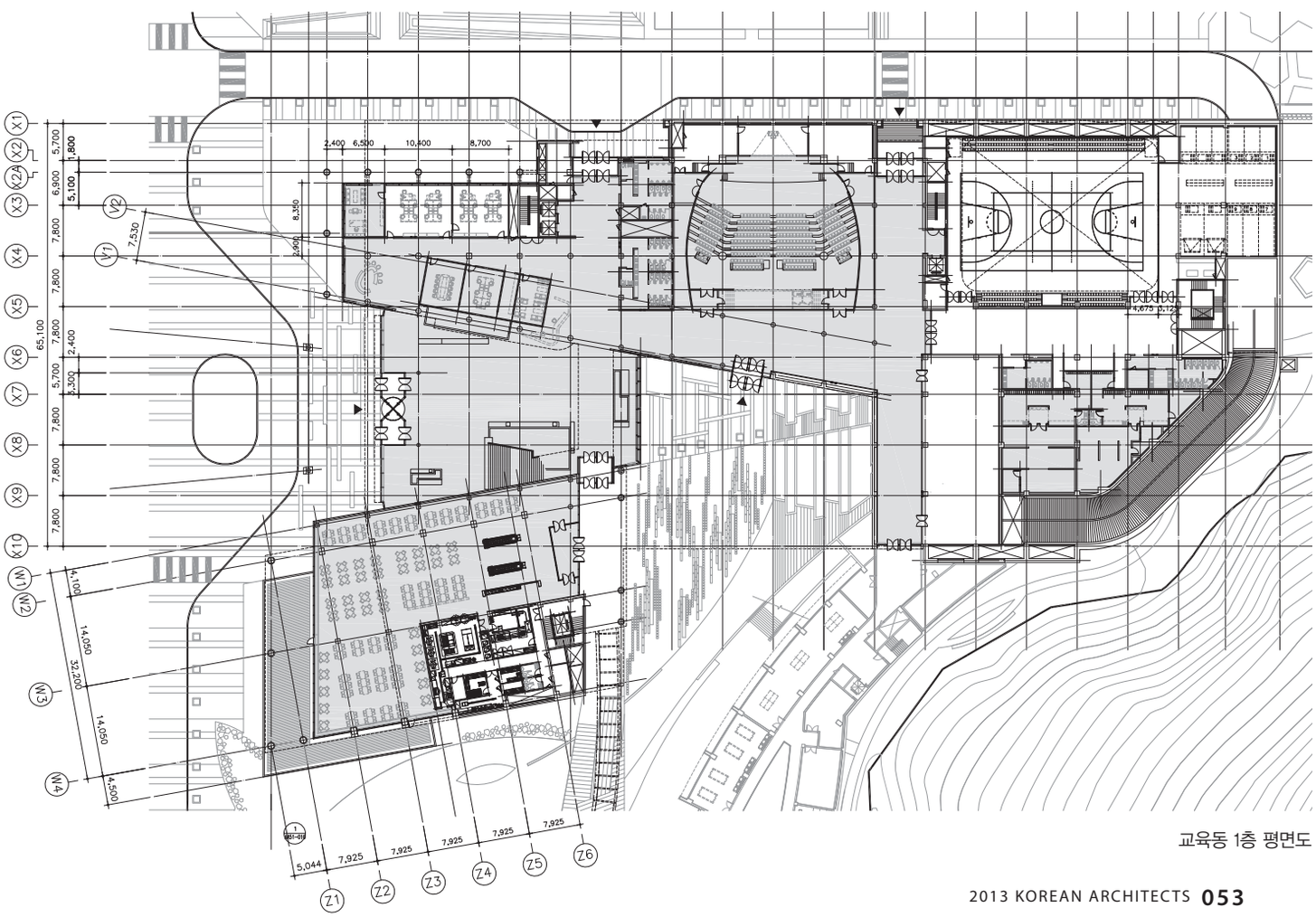
본 건물은 단기일정의 연수생들이 저층으로 구성된 대규모 연수프로그램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선의 주요 결절점에 3개의 대형 아뜨리움 및 중정 공간을 설치하였다. 이 공간들은 선형메스들 사이에 투명 공간으로 인지되어 건물내부에서 자연과 조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여타 연수원들이 지니는 긴 복도의 단순이동의 공간을 본대지의 특성에 맞게 적극적으로 이용하고자 계획되었던 공간이다. 이들 아트리움을 통해 모든 공용공간에서는 충주호를 사이에 둔 자연을 향유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타 연수 시설규모와 비교하여 대규모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동선의 시설물로 인식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인해 설계 초기단계부터 충주호로의 조망권이 최대 이슈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대산의 독립적 조망권을 가진 일부공간을 제외한 대부분에서는 사선과 곡선의 특징을 최대한 이용하여 각 실에서 충주호의 조망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그와더불어 사선과 곡선형 메스들은 주어진 대지의 부정형적 형태와 조화를 이루어 부대산, 연수단지, 충주호로의 연속된 흐름을 유지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적 측면에서는 국내에 설계된 건축물중 몇 안되는 '무방류 시스템'이 철저히 적용된 건축물로써 건물내부에서 사용된 오수는 '상수화 시스템, 계류활용, 중수 재활용, 증발시스템' 등의 2~3중의 안전시스템을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계획되어 친환경 디자인에 있어 형태적 측면에 그치지 않고 그 기능에 충실한 친환경건축물을 실현하였다.

외부 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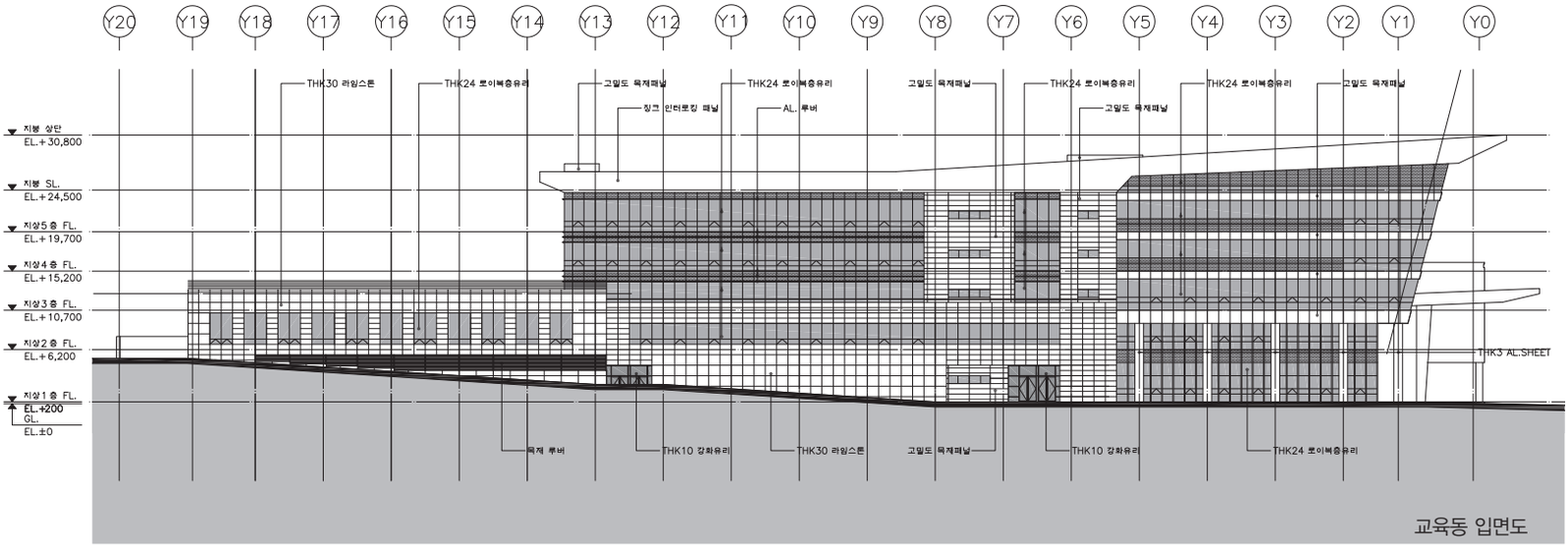
외부 야경



교육동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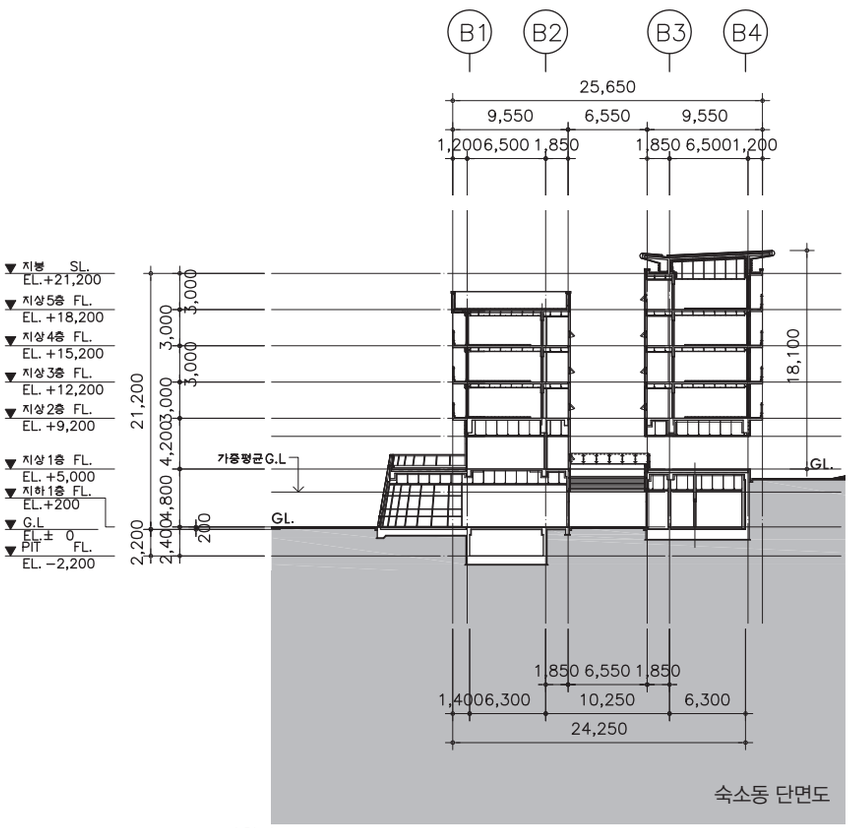
교육동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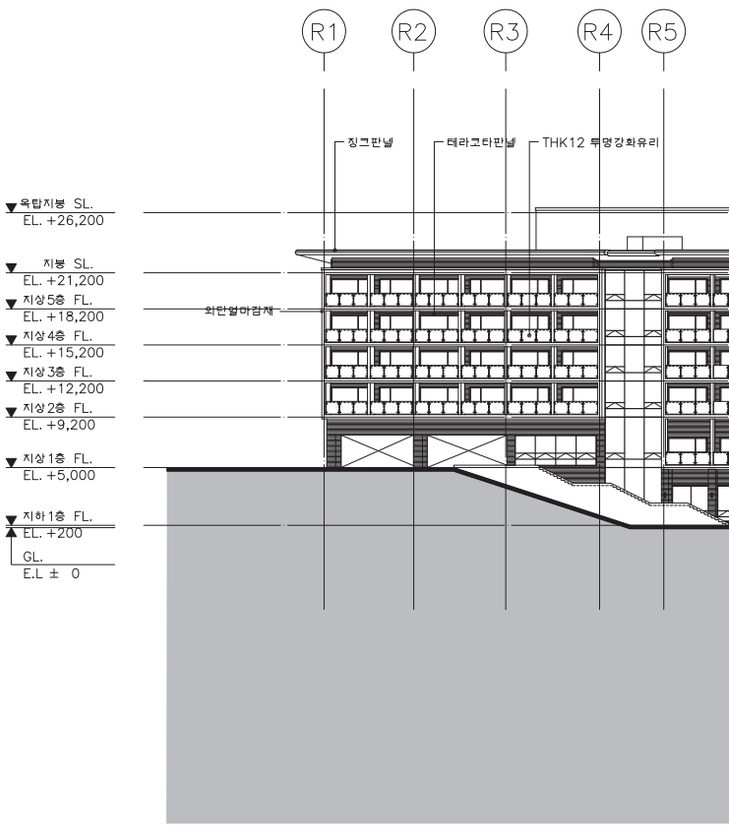
교육동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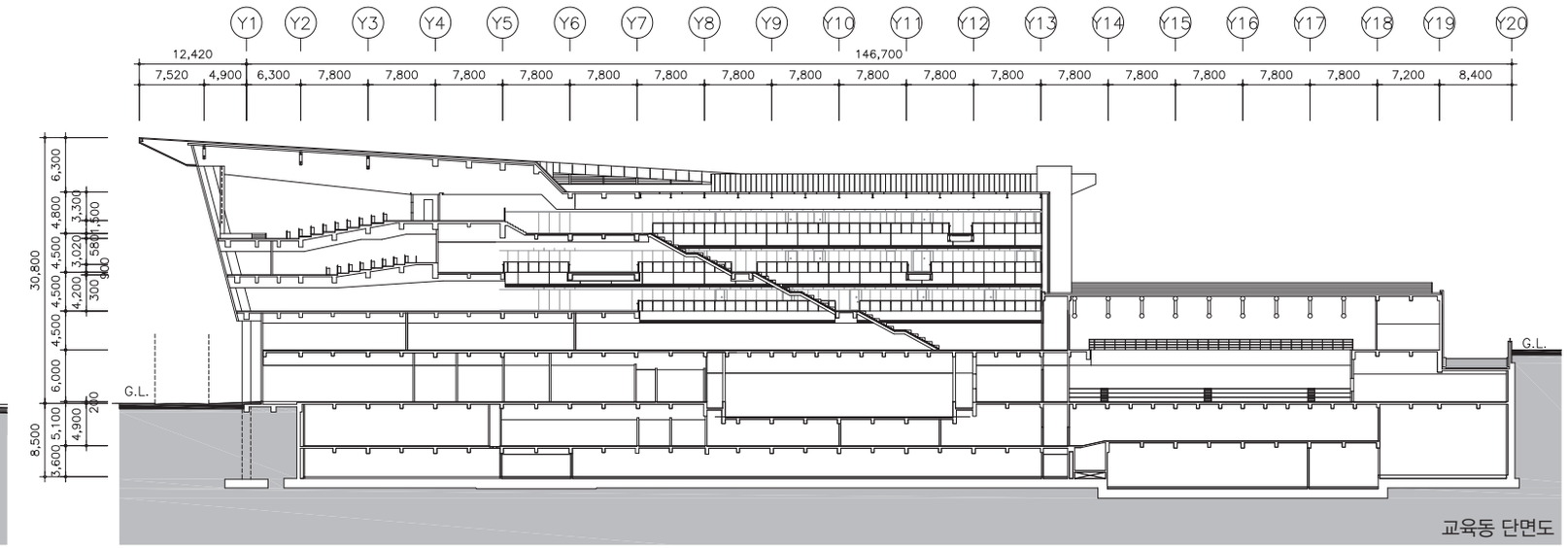
교육동 외부

숙소동 전경



숙소동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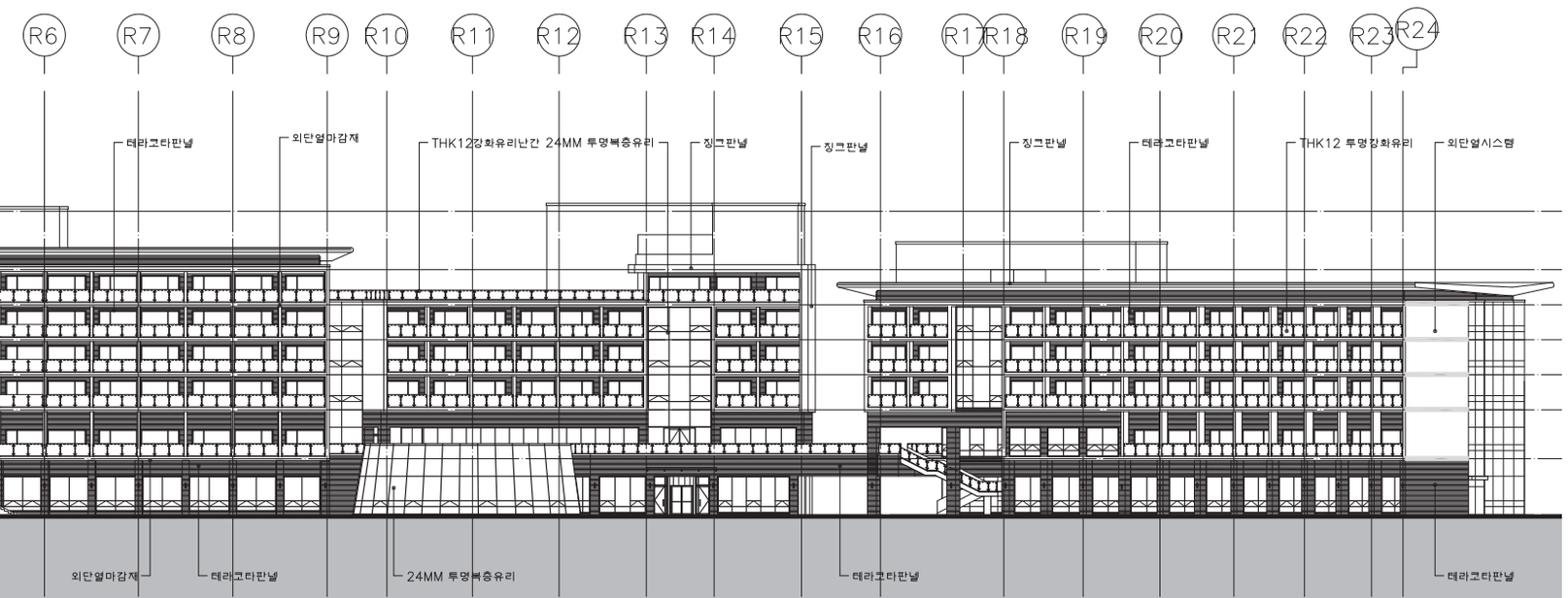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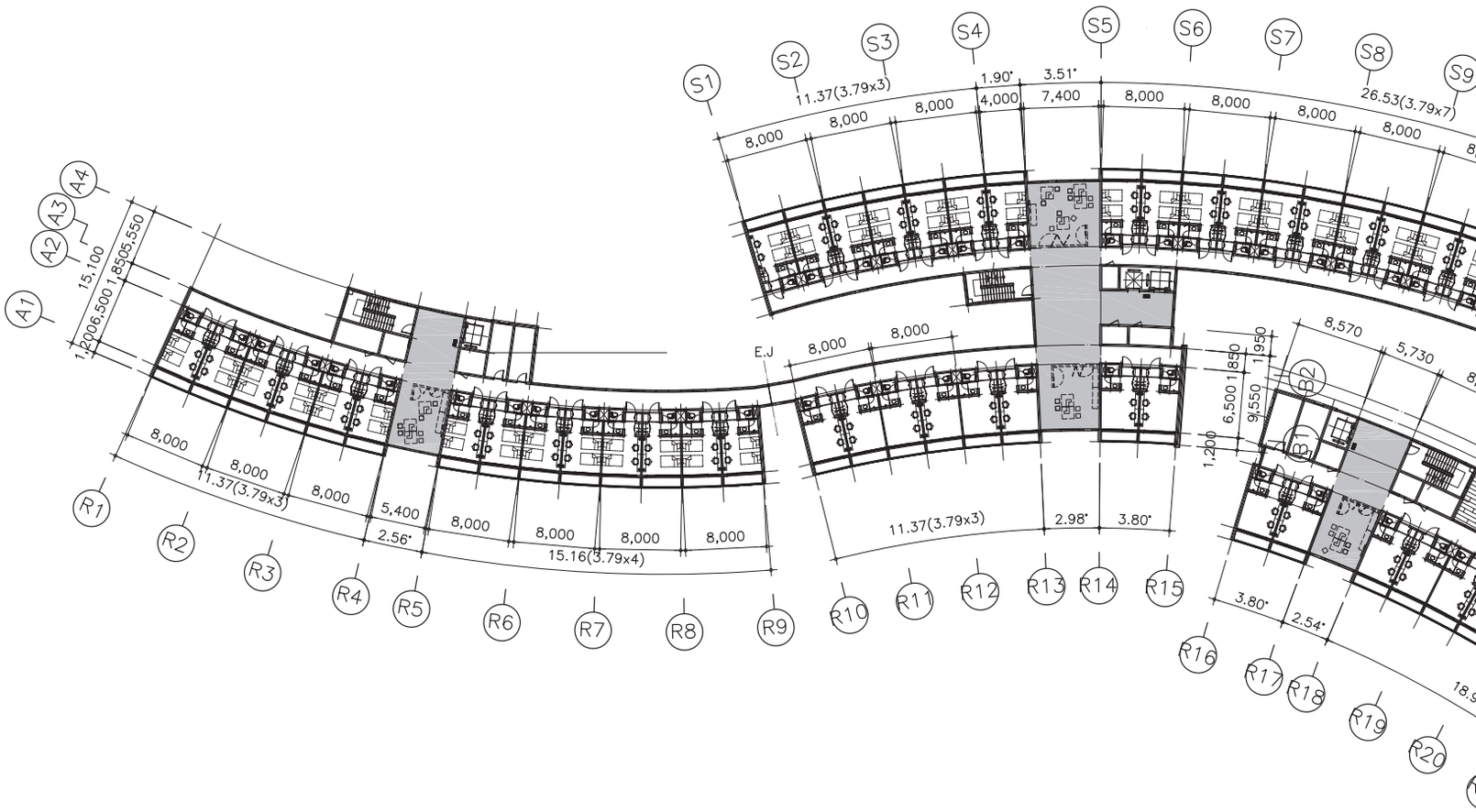
교육동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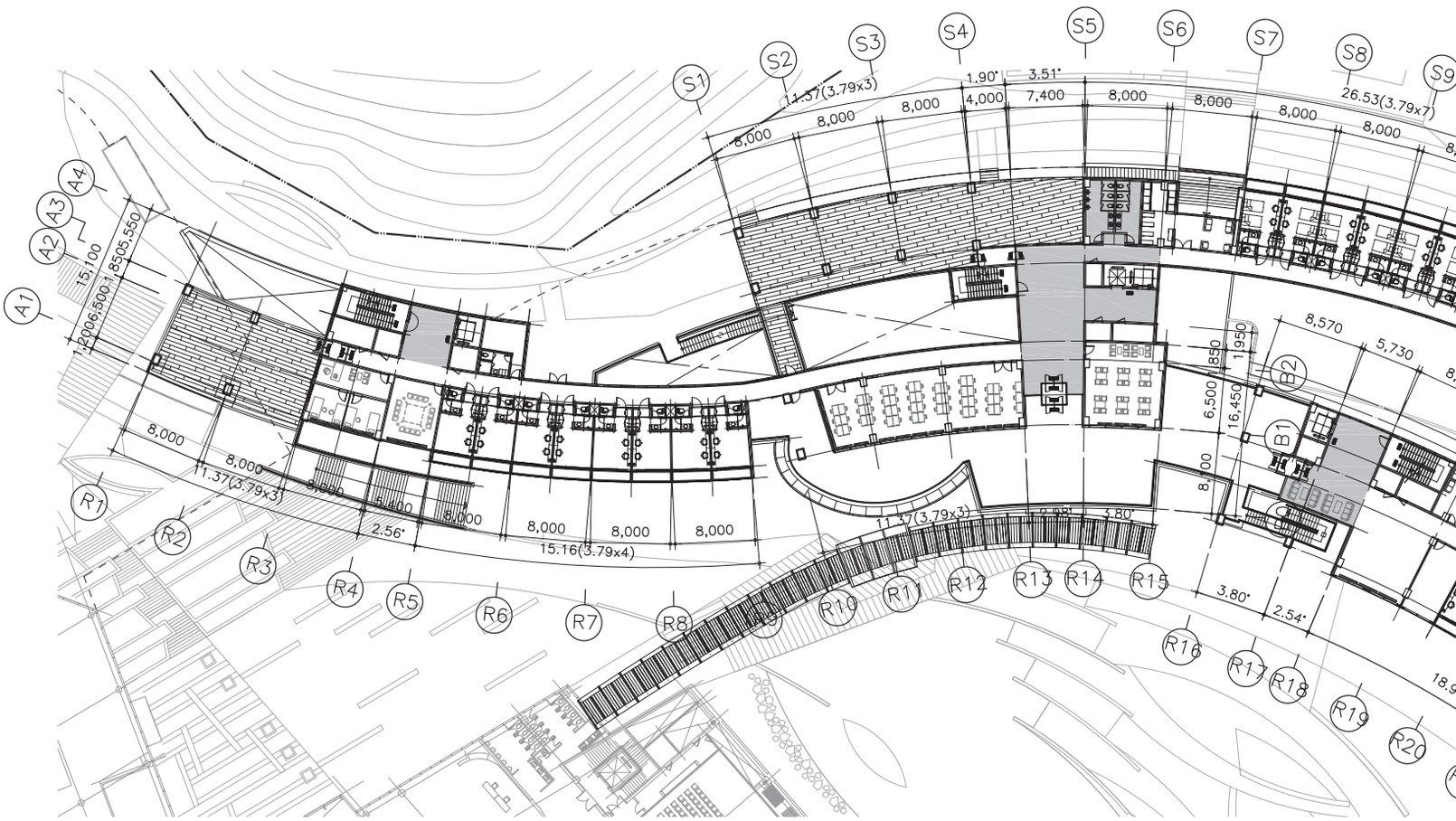
휴양동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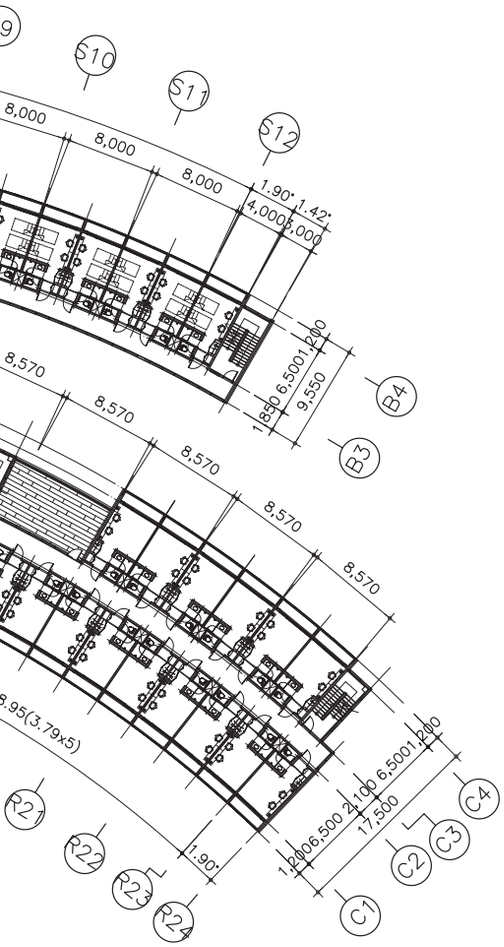
교육동 내부



숙소동 입면도


S1
S2
S3
S4
S5
S6
S7
S8
S9
A1
A2
A3
A4
R1
R2
R3
R4
R5
R6
R7
R8
R9
R10
R11
R12
R13
R14
R15
R16
R17
R18
R19
R20
B1
B2
E.J
11.37(3.79x3)
26.53(3.79x7)
15.16(3.79x4)
1.90°
3.51°
2.56°
2.98°
3.80°
2.54°
8,000
4,000
7,400
5,400
8,570
5,730
15,100
1,200
6,500
1,850
1,950
9,550


S1
S2
S3
S4
S5
S6
S7
S8
S9
A1
A2
A3
A4
R1
R2
R3
R4
R5
R6
R7
R8
R9
R10
R11
R12
R13
R14
R15
R16
R17
R18
R19
R20
B1
B2
11.37(3.79x3)
26.53(3.79x7)
15.16(3.79x4)
1.90°
3.51°
2.56°
2.98°
3.80°
2.54°
8,000
4,000
7,400
5,400
8,570
5,730
15,100
1,200
6,500
1,850
1,950
16,450



숙소동 2층 평면도

숙소동 1층 평면도

교육동 홀

온실 전경

교육동 강당

WORKS

안국빌딩 신관
ANGUK BUILDING

건물전면

안국빌딩 신관

설계자 | 이기옥_KIRA | (주)필립 종합건축사사무소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국제설계학교(MIT-SNU)를 수료하였다. 도코모모코리아 이사 및 디자인공모전 총괄코디네이터, 건축설계정보(Archidata) 이사,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였고, 현재 ㈜필립 종합건축사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 설계팀 : 박상대, 이서호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사림구조
  - 설비분야 : 세진이앤이
  - 전기분야 : 극동전기

건축주 | 성안흥업

감리자 | 이기옥(주.필립 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자 | 알앤알건설주식회사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3번지

대지면적(Site Area) | 1,145.40㎡

건축면적(Building Area) | 636.97㎡

연면적(Gross Floor Area) | 2,566.51㎡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55.61%

용적률(Floor Area Ratio) | 164.45%

규모(Building Scope) | B1 – 4F

구조 | 철근콘크리드조, 철골조(주차타워)

주요마감재 | 실외 – THK.30 마천석, 노출콘크리트
실내 – 노출콘크리트, 페인트

설계기간(기획/계획/실시) | 2009. 08. ~ 2010. 04.

공사기간 | 2010. 04. ~ 2011. 06.

사진(Photographer) | Yoon, Joon-hwan

Client | SUNGAN CO.,LTD

Architect | Lee, Ki-ok

Project team | Park, Sang-dae / Lee, Seo-ho

Location | 175-3, Anguk-dong, Jongno-gu, Seoul,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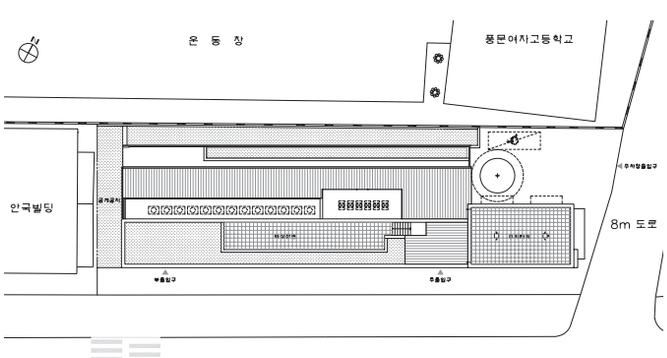
Structural Engineer | SALIMENG

HVAC Engineer | SEJINENE

Electrical Engineer | KUKDON-MUNHWA ENG CO.,LDT

Design period | 2009. 08. ~ 2010. 04.

Construction period | 2010. 04 ~ 2011. 06.



배치도

인사동의 시작이자 끝이 되는 지점, 북촌과 삼청동으로 오르는 길목, 창경궁에서부터 이어진 율곡로가 살짝 꺾여 경복궁을 향해 뻗어나가는 곳. 바로 그곳 안국동 로터리에 오랜 시간 상징적 건물로 주목 받아왔던 안국빌딩, 그리고 낮고 긴 수평성을 통해 안국빌딩의 강한 수직성과 짝을 이룬 건물, 안국빌딩 신관이 있다.

안국빌딩 신관은 원래 지상 3층, 지하 1층의 규모의 오래된 붉은색 타일 건물이었다. 지리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이 건물은 행인들에게 어느 정도 각인되고 있었지만, 이곳이 가진 특별한 장소성을 받아주기는 부족함이 있었다. 경복궁과 인사동, 그리고 삼청동과 북촌이 교차하는 지점으로써 내외국인을 불문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머무는 곳, 이곳에 있는 건물은 사람들의 다양한 활동과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했다.

증축과 높이제한이라는 조건은 원 건물의 낮고 긴 수평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다. 도로를 따라 길게 형성된 건물의 형태는 행인들의 흐름에 일직선의 방향성을 부여한다. 사람들의 눈높이로 마주할 건물 정면의 매스는 2층 높이 위로 띄워 거대한 인공물이 의도치 않게 줄 수 있는 위압적인 느낌을 피하려 했다. 건물 하부인 1, 2층에 외부로 개방된 출입구 및 계단실을 두고, 곳곳에 필로티를 활용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설계 당시 있었던 횡단보도와 안국동 로터리에서 유입되는 인구를 흡수하기 위해 건물의 서쪽 끝에는 내부로 크고 깊게 파인 출입구를 두었다. 여건상 공공공지를 내어줄 수 없음을 대신해 만들어진 이 공간은 건물에서 사람들이 가장 자유롭게 드나들고 머물 수 있는 장소다. 또한 1층에서 4층까지 곧바로 연결된 계단을 통해 건물 꼭대기 옥상정원까지 행인들의 걸음이 닿길 바랐다.
반대편 동쪽 끝에는 안국빌딩 신관을 구성하는 제3의 매스인 주차타워가 있다. 수평의 긴 매스에 수직으로 꽂힌 반투명한 유리의 주차타워는 반대 편 안국빌딩의 수직성과 균형을 맞춘다.

역사와 문화, 그리고 관광의 교차점 안국동 로터리. 이곳에서 안국빌딩 신관은 새롭게 탈바꿈한 모습으로 주변과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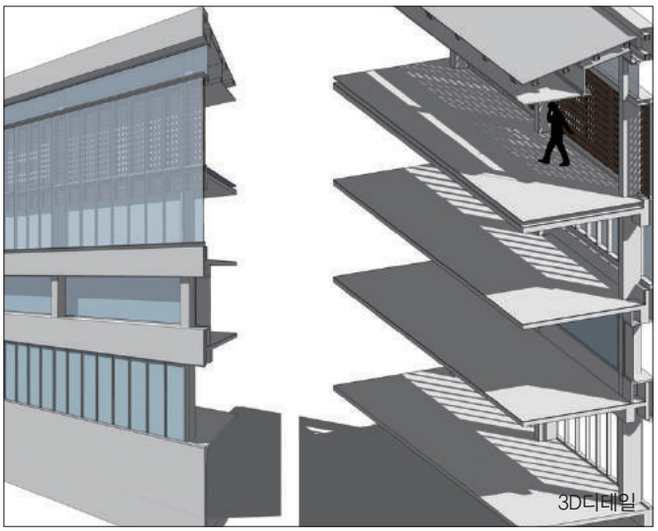
리모델링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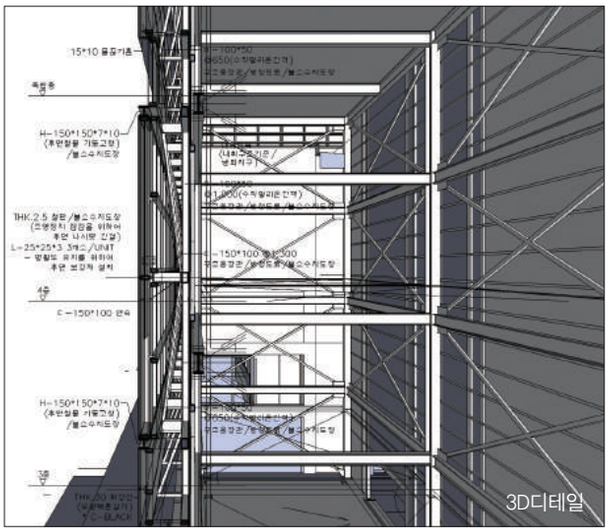
리모델링 후

출입구쪽에서 바라본 건물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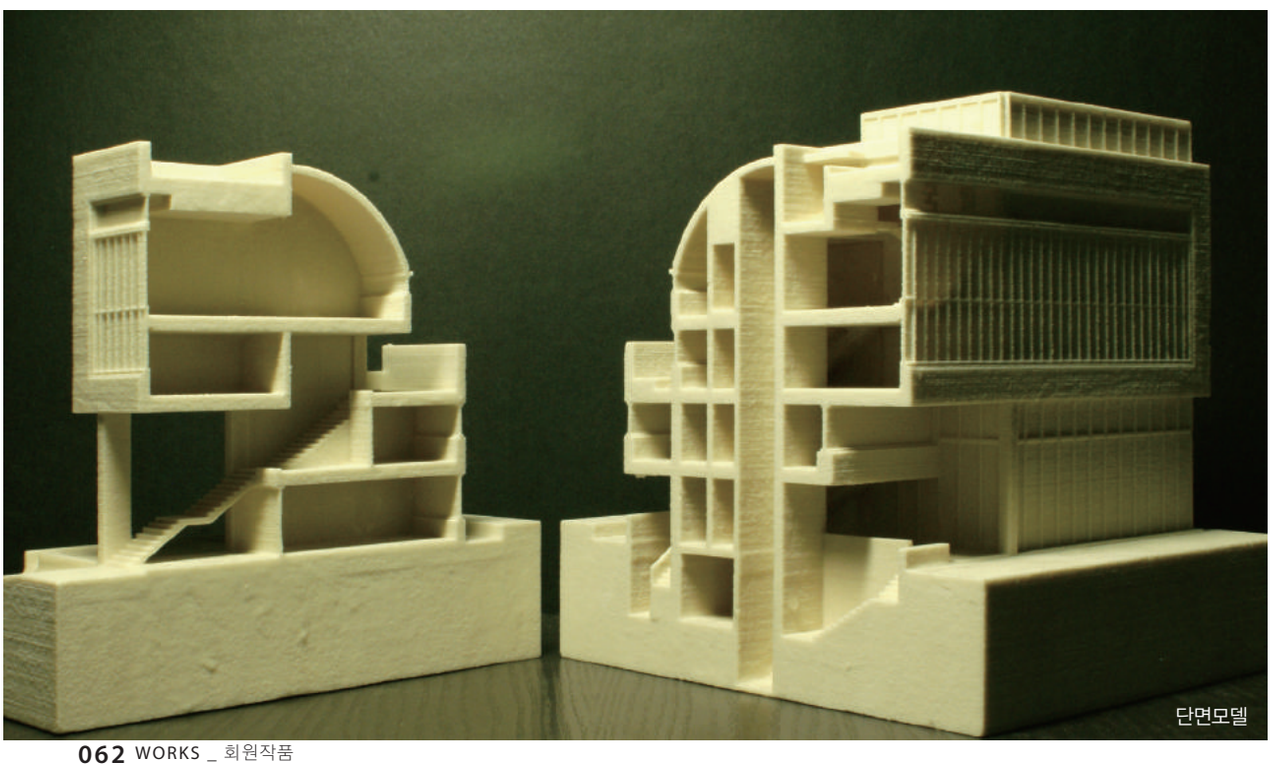
건물건체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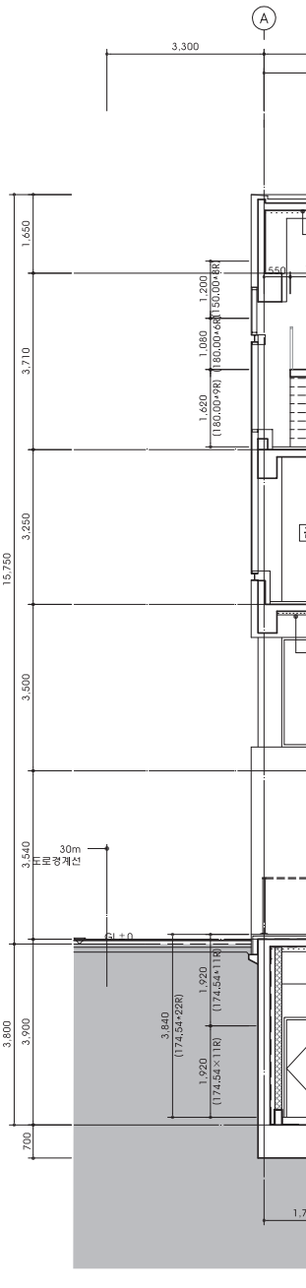
주차타워 측면


3D디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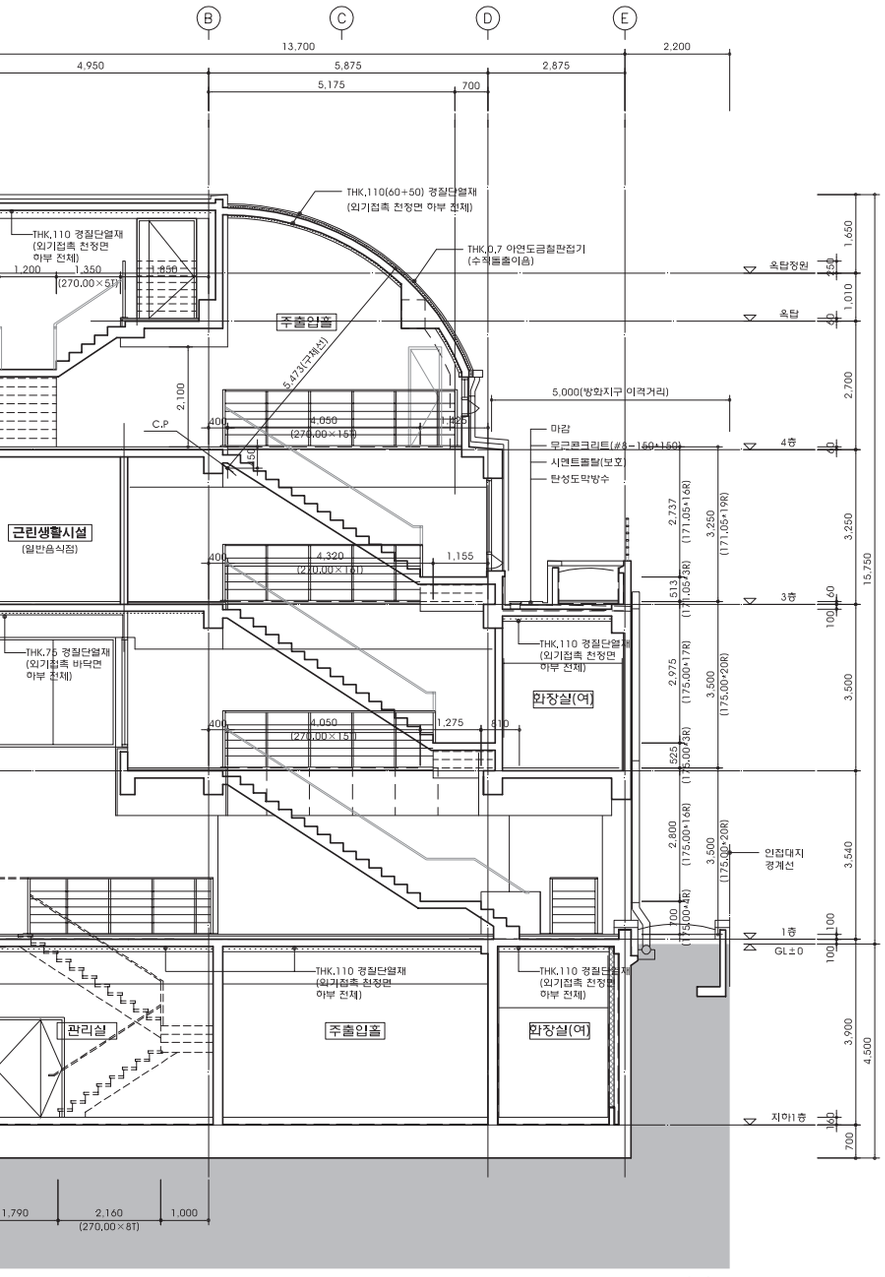


3D디테일


단면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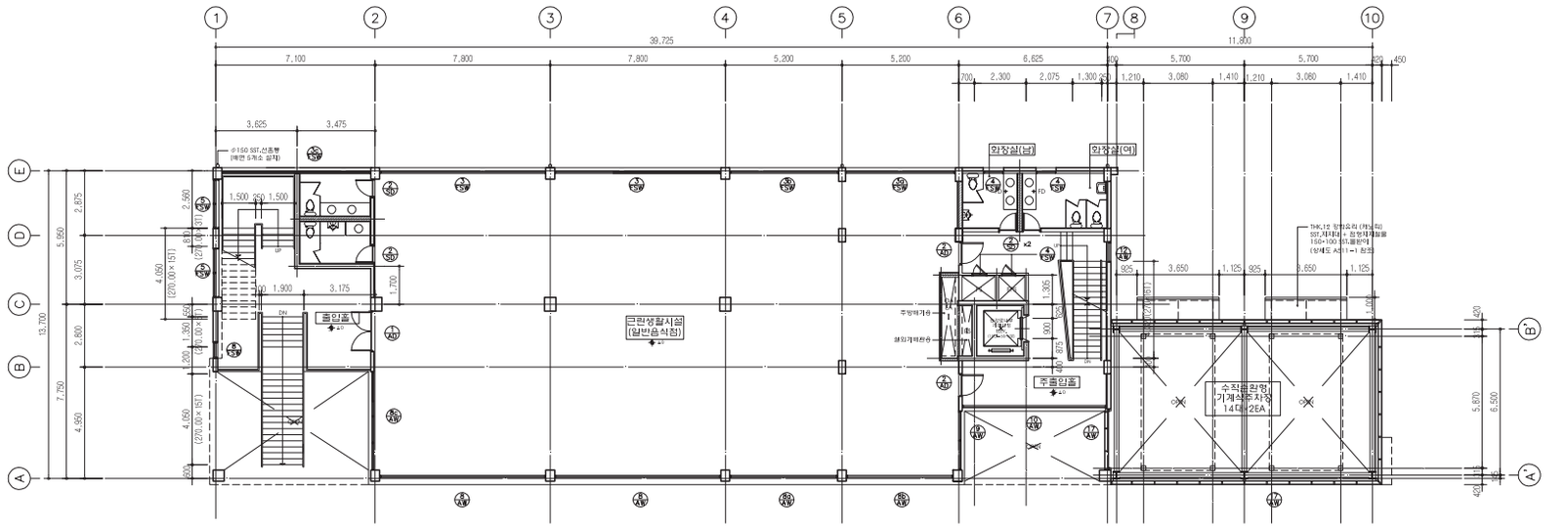
건물 우측 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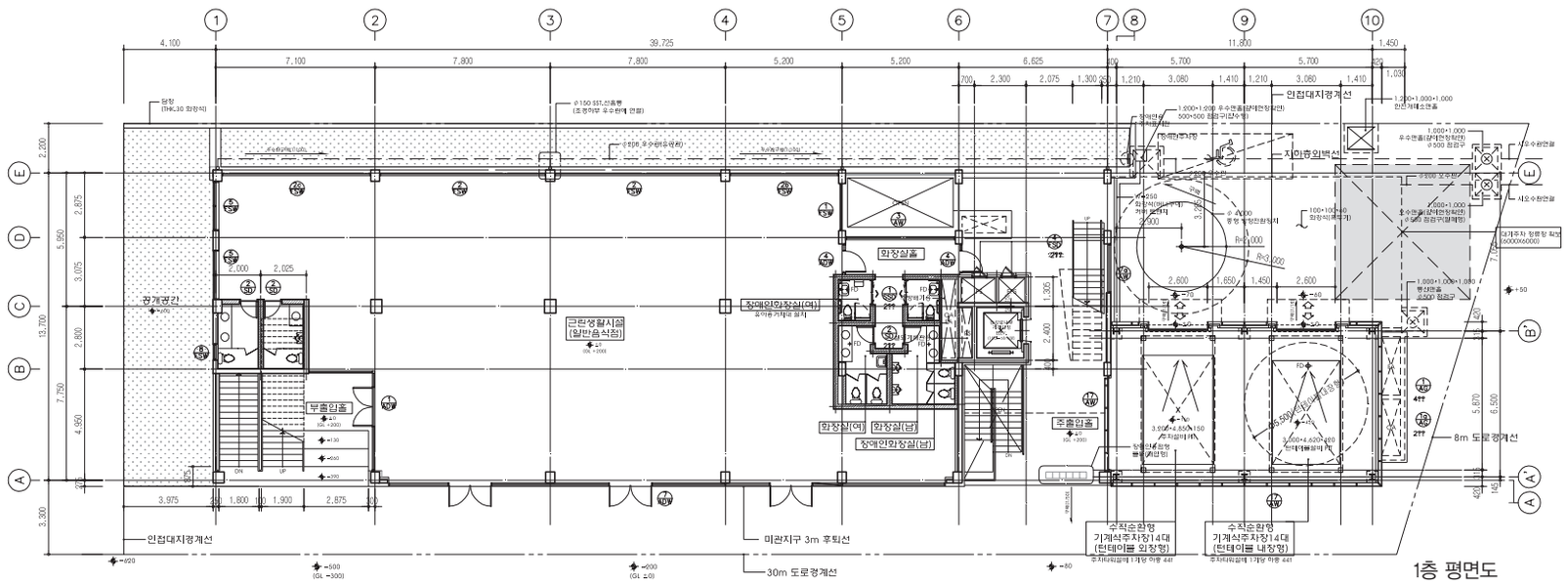
종단면도

주차타워 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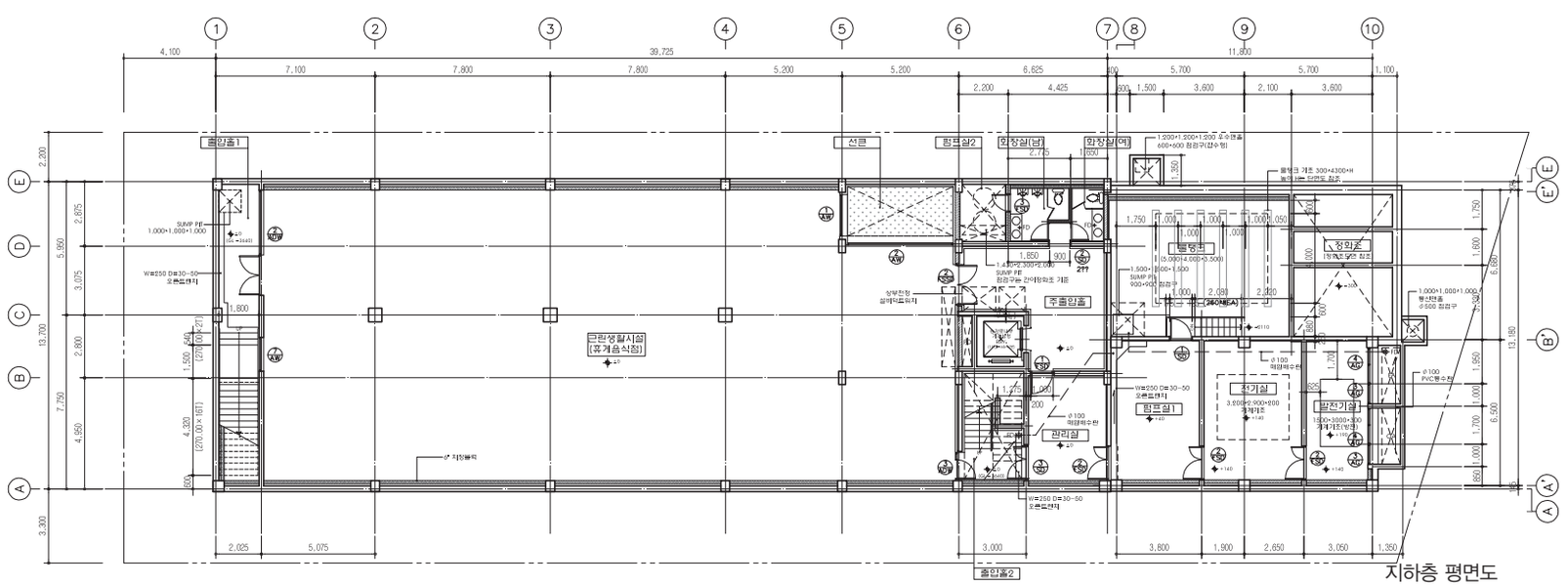
출입구에서 본 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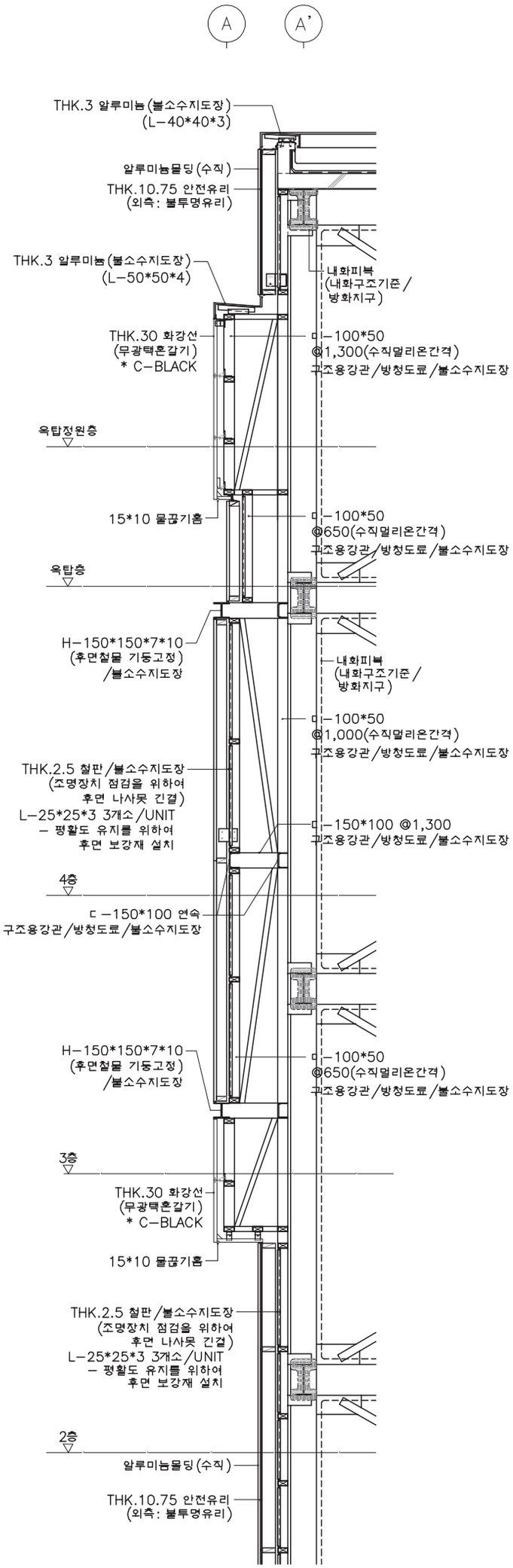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주차타워 외벽 단면 상세도

건물 후면 발코니

계단실

하남미사2 중학교 _당선작

HANAM MISA 2 MIDDLE SCHOOL

발주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설계자 : 노형래 KIRA | (주)건정 종합건축사사무소
조환우 KIRA | (주)건축사사무소 시그에이
설계팀 : 박진수, 장승현, 윤새봄, 박재광, 윤지영_건정건축
허철민_시그에이

전문기술협력
– 구조 : (주)태경구조엔지니어링
– 기계/설비 : (주)건창기연
– 전기/통신 : (주)동도엠이씨
– 토목 : (주)태경CH – 조경 : (주)디오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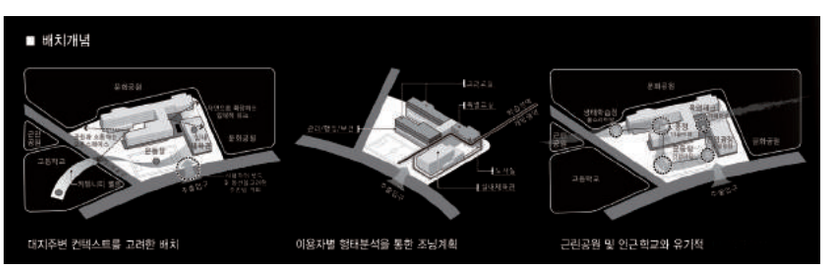
대지위치 경기도 하남시 선동 181-1 일원
지역/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용도 교육시설
대지면적 13,297㎡
건축면적 4,277.91㎡
연 면 적 10,721.77㎡
건 폐 율 32.17%
용 적 률 80.63%
구 조 학교동–철근콘크리트조 / 체육관–철골조
규 모 지상 4층
주요마감 외부–점토벽돌, 금속패널, 고밀도 목재패널, 로이복층유리
내부–목재후로링, 테라죠타일, 무석면비닐타일,
친환경 흡음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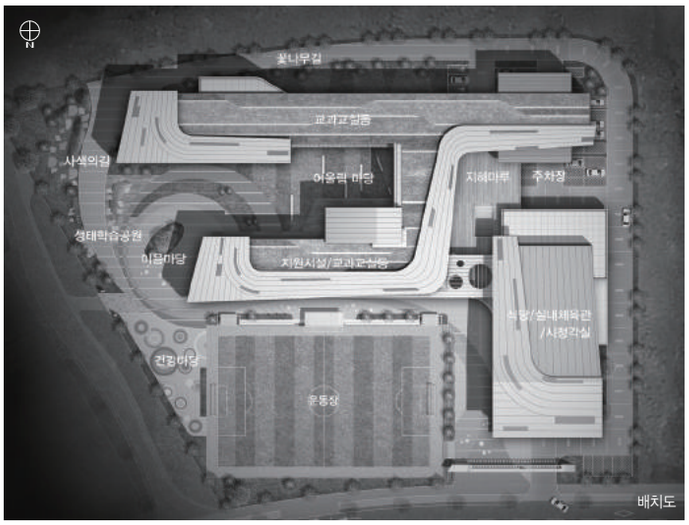
풍부한 녹지환경속에 공원과 같은 학교를 만들다.
하남미사 보금자리 지구에 우수한 교육환경의 조성과 풍부한 녹지 환경속의 대지에 연결녹지를 자연축으로 강하게 연계하여 열린 공간을 형성해 자연속의 공원과 같은 학교를 만든다.

접근성을 고려한 진입공간에 주민개방영역을 배치하고 연결녹지측으로 운동장을 배치해 자연을 향해 열린공간을 형성하고, 각각의 기능을 담고 있는 영역은 유기적으로 배치하여 그 사이의 틈새공간을 내,외부가 소통하면서 자연이 유입되고 확장하는 열린 교류의 장을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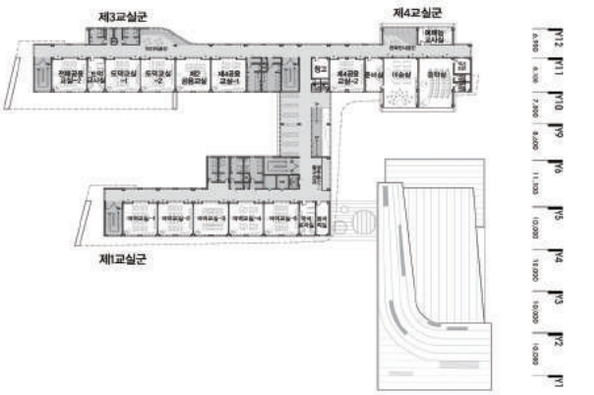
한강의 물줄기를 형상화한 지붕 형태는 각 영역의 형태를 통합시켜 상징성을 고조시키고 주변으로 확장한다. 지붕프레임이 데크로 이어져 중심으로 강하게 유입되게 하고 각 영역을 연결한다.

정렬되고 불규칙한 입면요소는 책장의 책을 형상화하여 기능을 담으면서 하나로 통합시키는 전체적으로 열려있는 자연속의 학교를 연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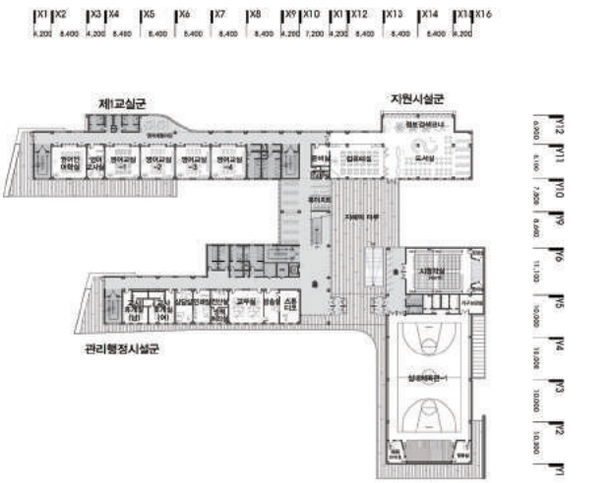


배치도



4층 평면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횡단면도

종단면도

투시도

하남미사2 중학교 _가작

HANAM MISA 2 MIDDLE SCHOOL

발주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설계자 : 이용익, 김인배 KIRA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동우건축
설계팀 : 김성길, 김헌준, 조호균, 김대선, 박충만,
이재훈, 강유리, 권경원, 변희영, 안규혜, 심선

전문기술협력

- 구조 : 김범진(지우구조)
- 전기 · 통신설비 : 진호순(세진전기연구소)
- 기계설비 : 박기철(건창기연)
- 토목 : 한성호(초석엔지니어링)
- 조경 : 정주원(민조경)
- CG : 한인수(나르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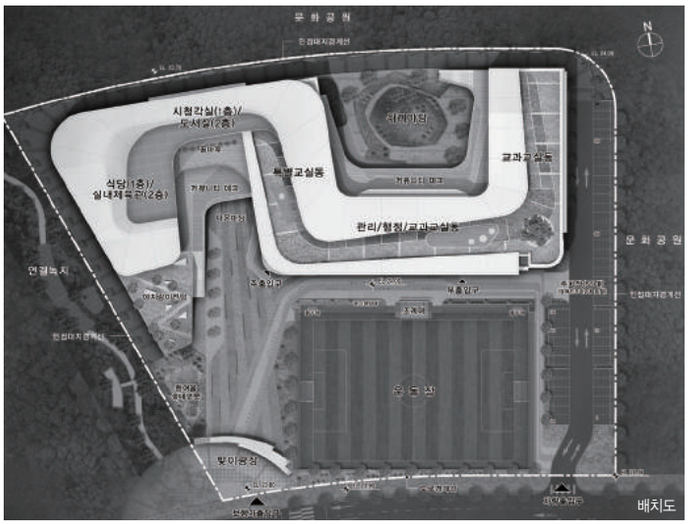
대지위치 경기도 하남시 선동 181-1 일원
지역/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용도 교육시설
대지면적 13,297.00㎡
건축면적 4,459.34㎡
연 면 적 10,769.07㎡ (지상 연면적 : 10,313.79㎡)
건 폐 율 33.54%
용 적 률 77.56%
구 조 철근콘크리트
규 모 지하 1층, 지상 4층
주요마감 외부마감 _ 점토벽돌, 로이복층유리, 금속패널
내부마감 _ 목재후로링, 방염벽지, 흡음패널

경기도 하남 미사지구 최북단에 위치한 하남미사2중학교는 남측으로 공동주택과 인접하며, 남측을 제외한 삼면이 녹지로 둘러싸인 입지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징에 따라 여러 가지 줄이 하나로 엮여 단단하면서도 아름다운 하나를 이루는 우리네 전통 매듭처럼 푸른 자연과 도시, 그리고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참된 교육을 제공하는 아름다운 만남의 장을 계획하고자 하였다.

학습영역과 개방영역을 분리하고, 대지 전면을 비운 건물의 후방배치로 주변 문화공원과의 통경축을 이어주었으며, 모든 실을 남향/남동향으로 배치하여 학습공간을 보호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보행자와 차량의 주출입구를 이격하는 명확한 보차분리 계획으로, 안전한 학교진입이 가능하도록 배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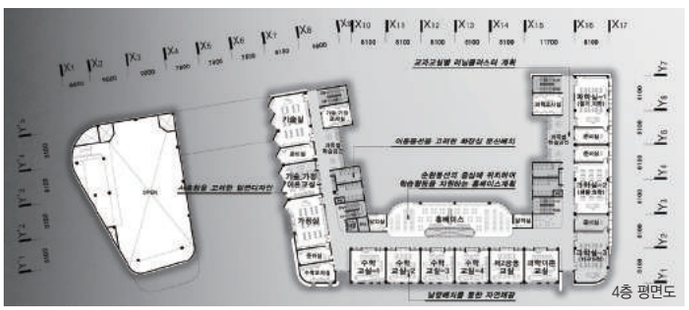
공원의 녹지축을 적극적으로 유입하여 주변공원과 연계되는 다양한 외부공간을 조성하고, 커뮤니티데크를 활용한 순환동선체계를 구축하여 동선을 단축하고 관리 및 이용의 편의성을 향상 시켰으며, 개방시설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가능하게 하였다. 교과교실과 연계한 다양한 실내외 커뮤니티 공간은 학습효율을 높이고, 이용자의 교류를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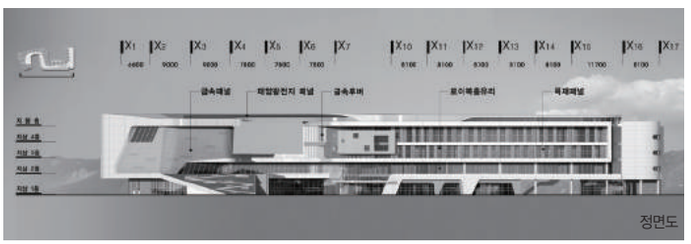
하남시를 상징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남시의 심볼마크를 디자인에 반영하는 동시에, 각 향별 태양의 입사각을 고려한 입면계획으로 심미성과 기능성을 만족시켰으며,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학교의 정체성을 부여하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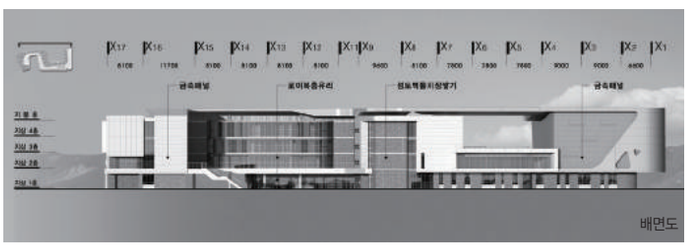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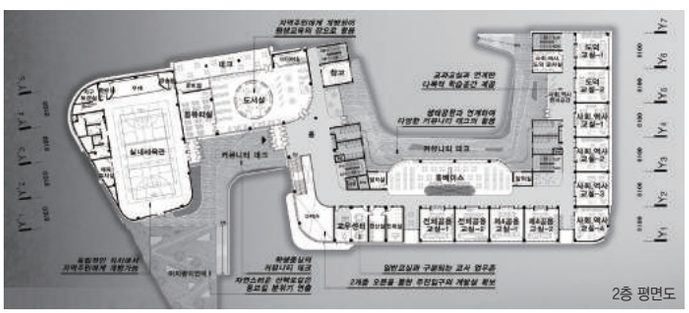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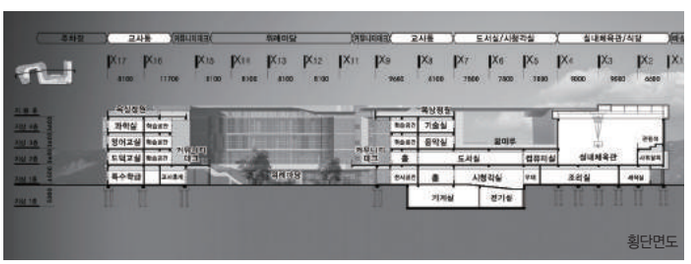
home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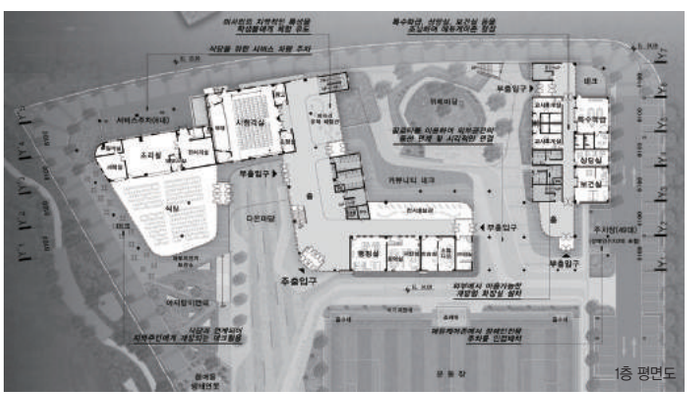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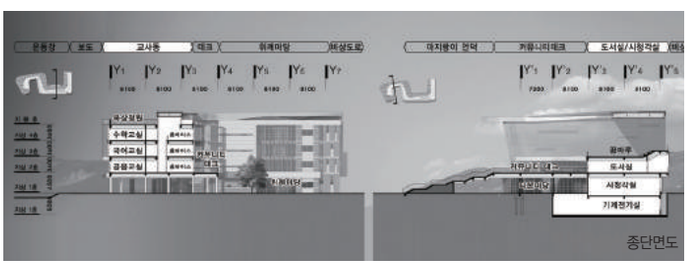

정면도


배면도


2층 평면도


횡단면도


1층 평면도


종단면도

투시도

전주 도시재생 거점센터 _당선작

JEONJU URBAN RENAISSANCE SERVICE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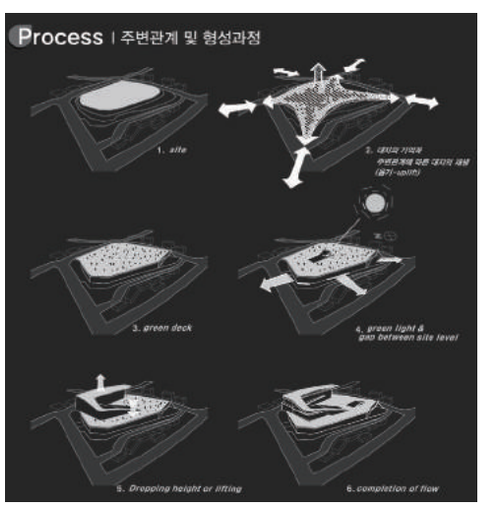
발주자 : 전주시

설계자 : 이길환 KIRA | (주)길 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김완중, 설형진, 김대진, 서한규,
선태훈, 김진배, 조두현

대지위치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735-13번지 외 9필지
지역/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 주거환경개선지구
주요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3,809.13㎡
건축면적	2,222.52㎡
연 면 적	4,862.39㎡
건 폐 율	58.35%
용 적 률	80.52%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주요마감	노출콘크리트, 목재루버, THK24 로이복층유리, 잔디블럭(비오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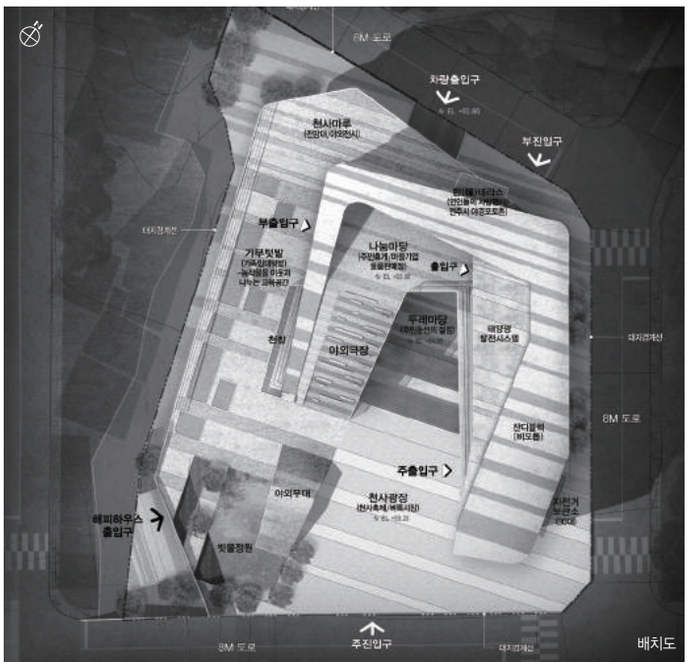
Prologue / 회복과 재생

본 프로젝트는 "장소성의 회복"에서부터 시작한다.
대지와 주변경계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공간의 확장성을 부여하고 대지가 기억하는 "켜와 판"이 만드는 공간의 흐름은 들려진 유연한 랜드스케이프를 생성, 다시 융기하여 지역의 상징으로 "천사의 날개"를 형상화한다.
또한 흐름에 따른 다양한 접점들은 단절되었던 지역이 지켜온 정체성을 회복하고, 사람과 각 콘텐츠를 엮어 시간이 지나는 기억과 공간 그리고 생활을 연결하여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생명력과 쉼터를 제공하는 Test Bed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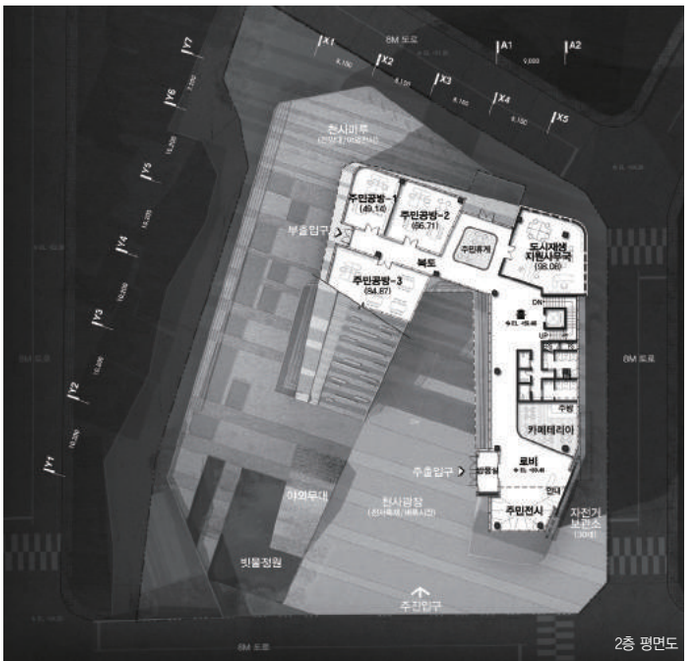


디자인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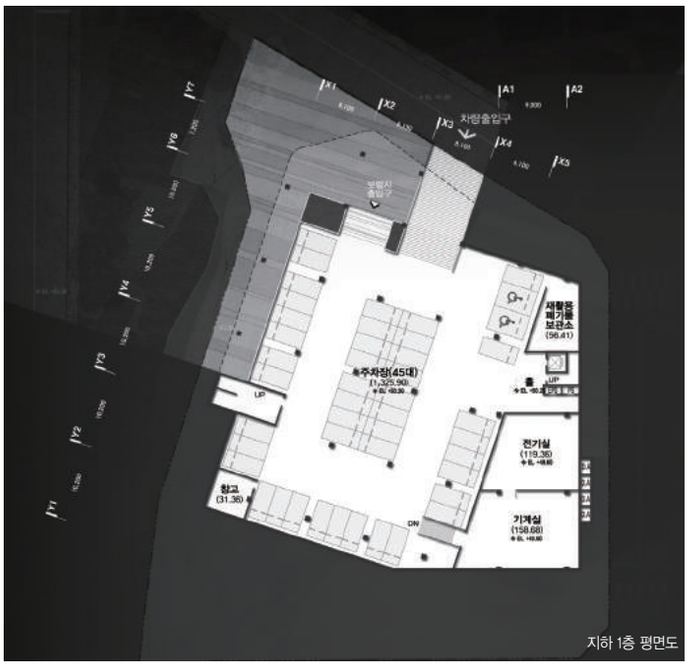
- 흐름에 따른 Activity와 community를 엮는 공간계획
- 주변 컨텍스트를 고려한 열린 공간 디자인
- "그린 흐름"으로 지역과 소통하며 사람과 문화를 엮는다.
- 지역의 특수성과 얼굴 없는 기부천사를 상징적으로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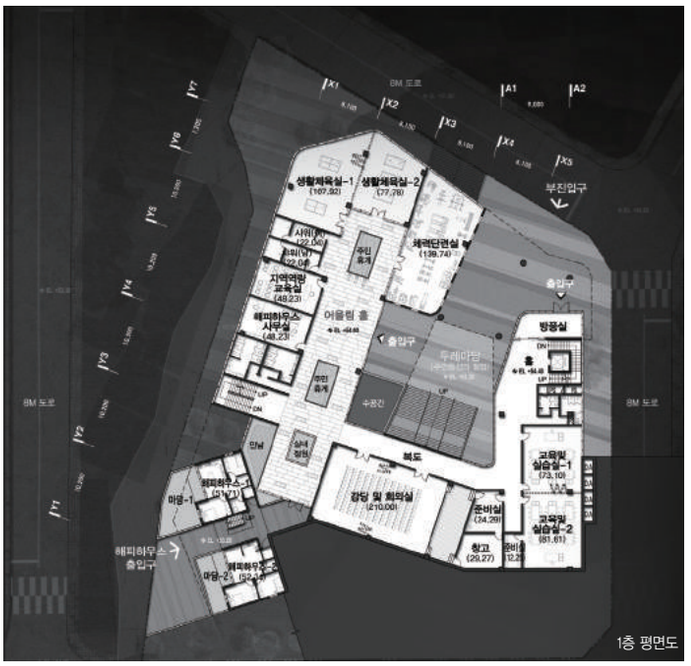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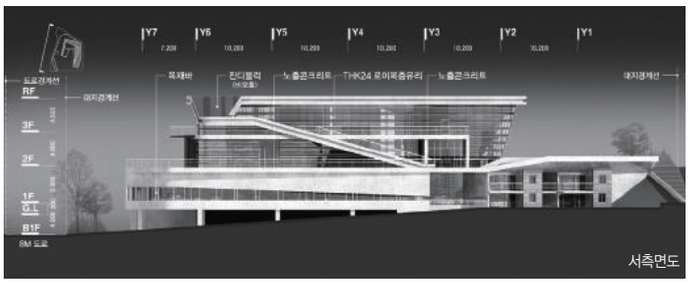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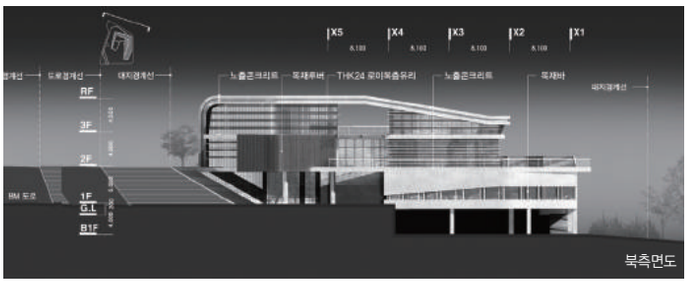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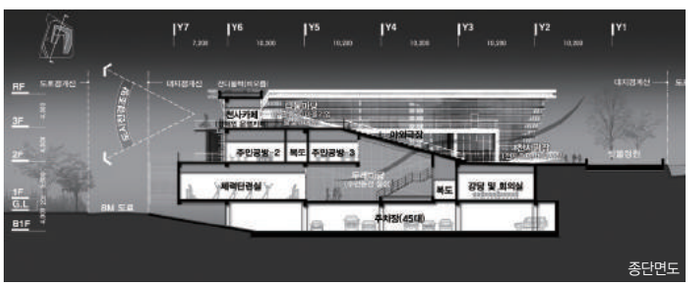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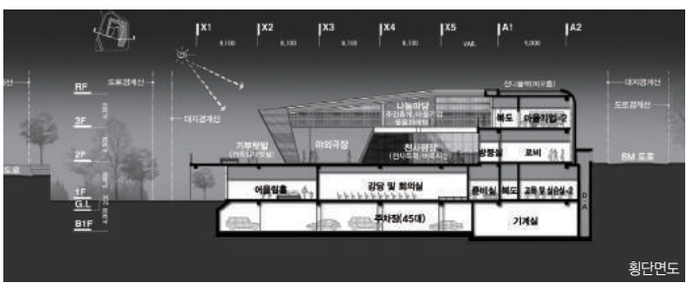
서측면도



북측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전주 도시재생 거점센터 _우수작

JEONJU URBAN RENAISSANCE SERVICE CENTER

발주자 : 전주시

설계자 : 김희순, 강문수 KIRA | 율그룹 건축사사무소
김종성 KIRA | CL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김희순, 강문수, 김종성, 박문규

대지위치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735-13번지 외 9필지
지역/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주요용도	1종 근린생활시설 (지역자치센터)외 복합용도
대지면적	3,809.00㎡
건축면적	1,959.81㎡
연 면 적	4,860.46㎡
건 폐 율	51.45%(법정 60%)
용 적 률	70.55%(법정 180%)
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규 모	지하 1층, 지상 2층
주요마감	외부-THK 6mm 스틸플레이트(산화피막도장), THK 18mm 이삐목 사이딩 (외벽 및 지붕 네오폴 및 진공 단열재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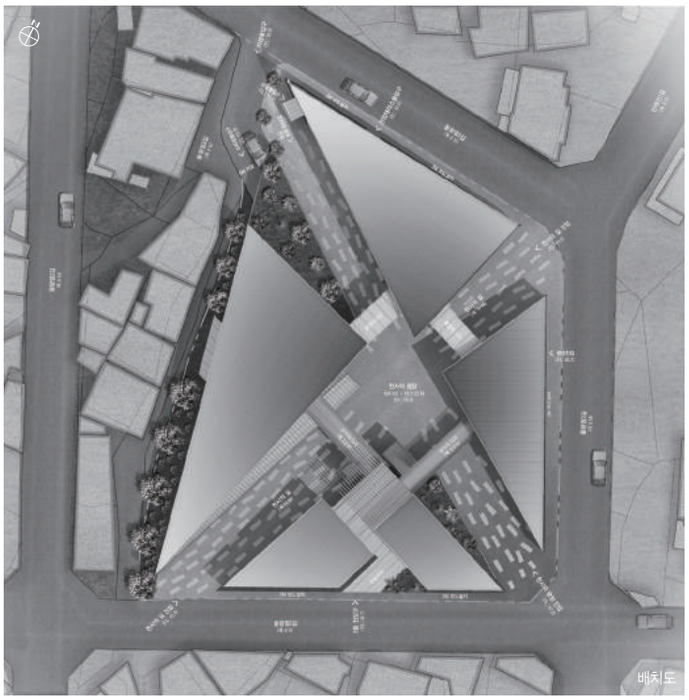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상징성으로써 목구조인 한옥의 서까래를 디자인 모티브로하여 '천사의 길' 양 옆 상부에 보행자들을 위한 루버를 계획하였고, 도심 속 고지대에 위치한 지형적 특성을 살려 전주 시민들이 도시전경 및 야경을 즐길 수 있도록 건물의 배치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였다.

도심 속 길을 연결하여 주민의 커뮤니티 장소로 활용하고 천사축제, 벼룩시장 등 야외행사를 할 수 있는 오픈공간을 확보하여 노송지구의 커뮤니티 허브를 구축하였다. 본 건물의 외부형태 및 색상은 노송재생센터의 독창성을 살리고 특히 주변시설과의 조화를 이루며, 천사날개를 추상적으로 형상화 하여 기부천사의 랜드마크 건축물이 되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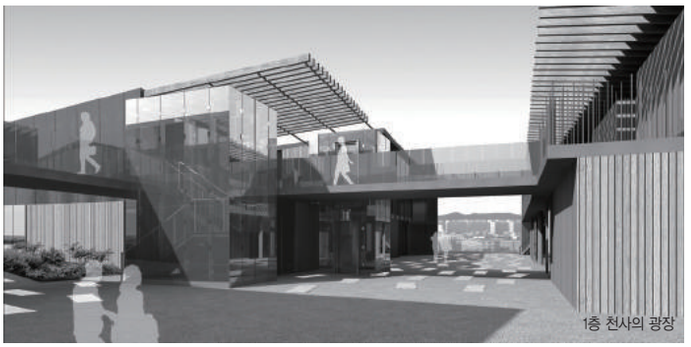
남측 천사의 길 진입구
남측면에 형성된 천사의 길은 물왕멀3길과 반태산 1길을 연결하는 입구의 역할을 하고 폭은 11m이며, 양 옆으로 마을 기업, 청년벤처 창업실 및 주민공방이 있다.

서측 천사의 광장 진입구
서측면에 형성된 천사의 길은 물왕멀3길과 물왕멀4길을 연결하는 입구의 역할을 하고 폭은 6.5m이며, 진입부에 주민들을 위한 다목적 강당 및 주차장 출입구가 있고, 오른편에 주민 커뮤니티 장소를 위한 휴식 공간 및 조경시설이 배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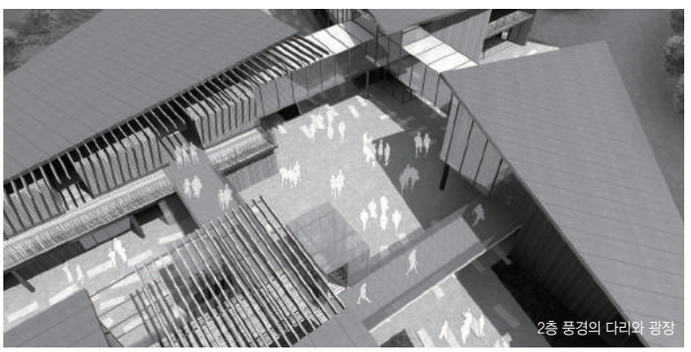
동측 천사의 광장 진입구
왼편에 있는 진입마당은 정주환경 재생공간(사무실, 사무국) 및 주민생활 지원공간(체력단련실, 교육실 등)에 갈 수 있고, 오른편에 있는 천사의 길은 폭 8m이며, 양 옆으로 주민 커뮤니티 장소를 위한 휴식 공간 및 조경시설이 배치되어 있다.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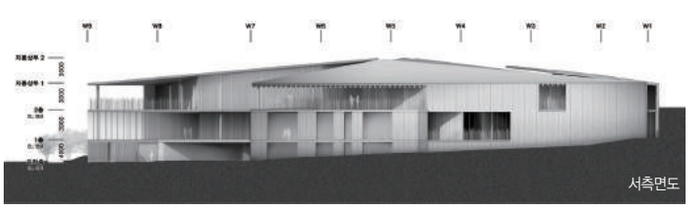


1층 천사의 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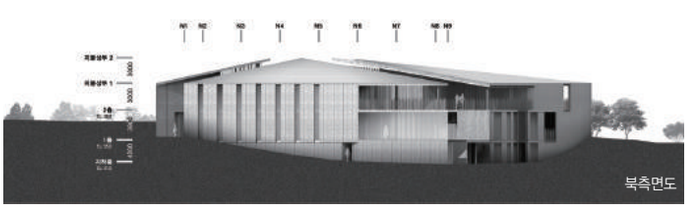


2층 풍경의 다리와 광장

지하층 평면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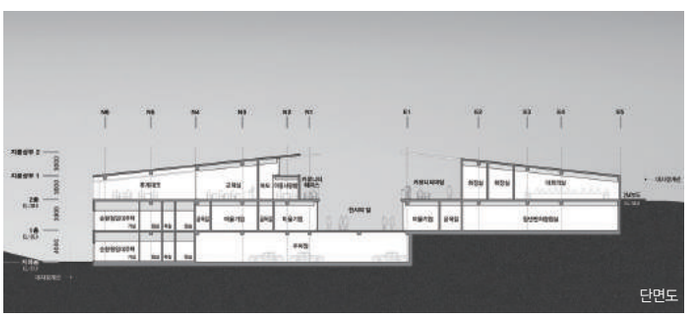


서측면도



북측면도

단면도



단면도

전주 도시재생 거점센터 _가작

JEONJU URBAN RENAISSANCE SERVICE CENTER

발주자 : 전주시

설계자 : 민중식 KIRA | (주)내외 종합건축사사무소
최진호 KIRA | 우창 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박희준, 민형준, 문홍규, 조규덕, 정원영, 김세희, 윤동아

전문기술협력
– 구조 : (주)지원이엔지
– 전기 · 통신설비 : 태양이엔씨
– 기계설비 : 미래에프씨
– 토목 : 대한기초

대지위치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735-13번지 외 9필지
지역/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주요용도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 등
대지면적	3,809.13㎡
건축면적	1,655.42㎡
연 면 적	4,896.92㎡
건 폐 율	43.45%
용 적 률	73.93%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주요마감	외부마감 _ 세라믹패널, 목재패널, 로이복층유리 내부마감 _ 화강석마감, 친환경페인트, 흡음텍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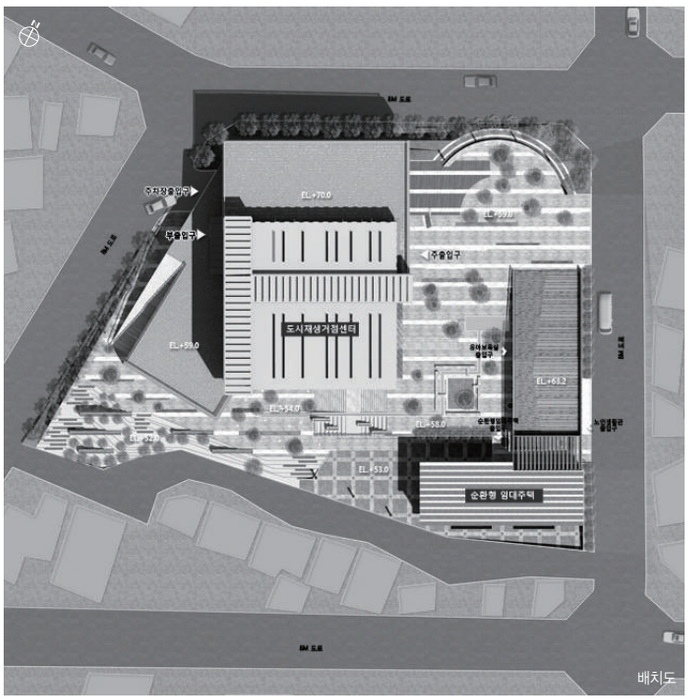
본 프로젝트는 국토부 도시재생 R&D 테스트베드 사업으로써 주민자력 수복형 도시재생을 위한 거점기능 시설을 계획하는 프로젝트이다.
또한 노송동 천사마을을 중심으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기념관 시설을 계획하게 된다.
대지는 노송동 재개발 구역의 중심으로 주변 대지보다 3~10m 이상 돋아져 있어 조망 및 상징적 매스 그리고 대지의 각 방향에서의 접근을 위한 대지의 고저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계획이 필요하였다.

CONCEPT _'천사 어울터'

복합적 이슈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하여 어울터라 명명한 다양한 오픈공간들을 계획하였고, 각 오픈 공간은 프로그램별로 대응하는 성격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각 공간들을 연결하는 하나의 패스를 설정하여 오픈공간을 통해 사람들이 만나고, 정보를 공유하며, 다양한 나눔들이 소통하는 주민 커뮤니티 장소로 활용되도록 하였다.
천사 어울터의 매스는 오픈스페이스의 성격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조닝을 구현하여 불특정다수의 공공적 성격에 대응하는 영역과 특정 이용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노인복지 / 유아보육 / 순환형 임대주택)으로 분리 계획되었다.

배치계획

– 메인 오픈스페이스의 형성 : 어울마당
– 기능적 프로그램 분리 : 사무+관리+교육 / 보육+케어+주거
– 외부공간의 프로그램 연계
– 경사를 이용한 입체적인 보행동선 및 패스계획
– 오픈공간과 대지에 대응하는 정형의 매스로 계획
– 각 공간을 연결하는 패스와 다양한 접점을 만들어 내는 분리되고 적층된 매스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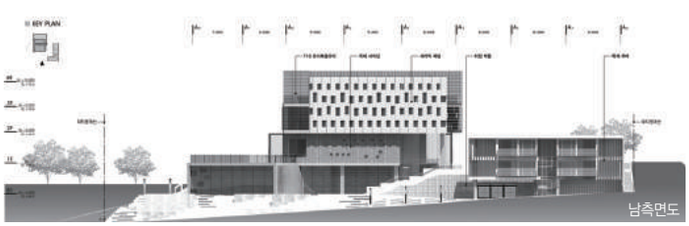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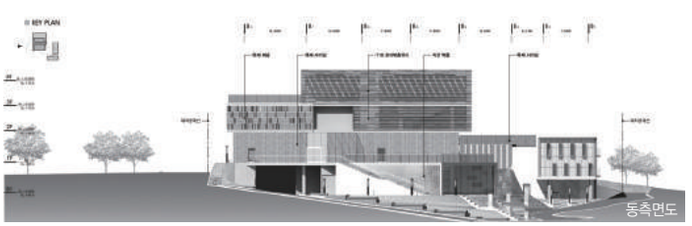
투시도

부분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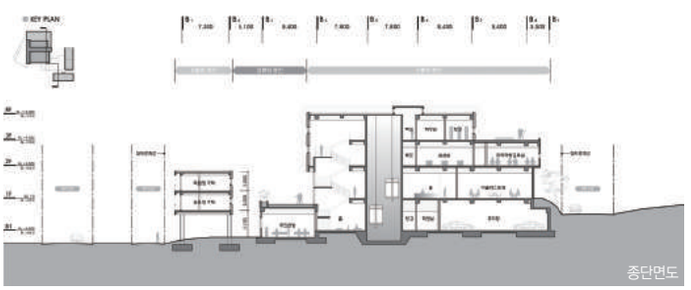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남측면도


동측면도

횡단면도


종단면도

‘맹지’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가

Is it right to construct buildings on a lot where has no access roads?

박시준 |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건축법 제44조 제1항). 이를 건축법상 ‘대지의 접도의무’라고 하며, 이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건축허가가 날 수 없다. 접도의무를 만족하지 못한 대지를 ‘맹지’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이유 등으로 맹지의 가치는 낮게 평가된다.
다만, 건축법은 ①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②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도로와 접하지 않은 대지의 경우에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선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의 의미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이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써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에 관하여는 대법원이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건축물의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 · 피난상 · 방화상 · 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 · 보존케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여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대지가 접하고 있는 시설물의 종류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설시하고 있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두6382 판결 참조).

그러나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이러한 일반론만을 가지고 어떠한 경우가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
따라서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판례와 비중 있는 법률 문헌 등을 검토하여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해당 건축물 인접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 소유자의 인접 토지에 대한 매수신청을 받아들이거나 적어도 해당 건축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인접 토지를 통행하는 것을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위 대법원 2003두6382 판결 사안)
②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대법원 2001.8.21. 선고 99두8596 판결 및 ‘이상호, 주위토지통행권과 건축허가, 재판실무연구 3권, 수원지방법원, 2006’ 논문)
③ 하천을 복개함으로 인해 도로가 확보되었으나 아직 공용개시결정이 없는 현황도로인 경우 또는 개인소유의 토지이지만 장기간 현황도로로 사용되어 온 사실상의 도로(‘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박영사, 2008’ 제96면)

다만, 사실상의 도로라는 형태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지적법상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대지의 접도의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한다(건교부해설 99. 5 및 위 김종보 앞의 책 제96면).

조선, 새로운 나라를 꿈꾸다

Joseon, Dreaming the Modern Korea

안창모 | 경기대학교 대학원 건축설계학과 교수, 역사문화환경보존프로그램

을미사변–아관파천–대한제국

1895년 국모 시해라는 일본의 도발은 조선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바꿔놓았다. 을미사변으로 불리는 이 사건으로 인해 국정운영의 한 축이 사라짐과 동시에 고종의 큰 결심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일본의 조선에 대한 압박이 국모 살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면서, 고종은 자신의 거처를 경복궁에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겼고, 이후 친일파를 숙청하는 등 정치쇄신을 꾀하는 동시에 새로운 나라의 밑그림을 그렸다. 황제국! 대한제국의 출범이었다.

대한제국의 출범은 국가 체제의 변화지만 조선 개국이라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수도의 공간구조의 틀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고종은 1896년 2월 11일 러시아 공사 베베르(Karl Ivanovichi Weber, 1841–1910)의 지원 하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 직후인 2월 16일에 다음과 같은 명을 내렸다.

"짐이 왕조의 500년에 한 번 변하는 때를 당하고 우내만방(宇內萬邦)의 개명하는 시운을 만나 짐이 정력을 가다듬고 정사를 도모하여 부강하게 할 대책을 강구한 지가 몇 해 되었으나 국가가 다난(多難)하여 그 효과가 없다. 이제부터 나라에 이롭고 백성들을 편하게 할 방도를 더욱더 강구하여 나의 백성들과 함께 문명(文明)한 경지에 올라 태평한 복을 누릴 것이니, 모든 나의 신료와 백성들은 짐의 뜻을 잘 본받고 짐의 사업을 도와 완성하라. 전날 며칠 안으로 대궐에 돌아갈 뜻을 선시(宣示)하였으나 경운궁(慶運宮)과 경복궁(景福宮)을 수리하도록 이미 유사(有司)에 명령하였다. 그 공사가 우선 끝나는 대로 돌아가든지 거처를 옮기든지 확정할 것이니, 너희들 백성들은 그리 알라."

경운궁이 역사의 전면에 다시 등장하는 순간이다.

고종의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일국의 왕이 외국 공사관에 몸을 의탁한 치욕스러운 사건으로 배웠던 아관파천의 주인공의 모습이 아니다.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당면한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주인공만이 보여줄 수 있는 태도다.

아관파천 직후에 신속하게 경운궁에 대한 수리를 명한 것은 아관파천이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파천이후의 계획이 이미 준비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러시아공사관에 기약 없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필요한 시기 동안만 거주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다. 경복궁과 함께 경운궁의 수리를 명한 것은 자신이 돌아갈 거처가 경운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경운궁은 1593년 임진왜란으로 도성 내 궁궐(경복궁과 창덕궁)이 소실됨에 따라, 의주에서 돌아온 선조가 도성에서 거처할 곳으로 월산대군의 사저가 선택되어 임시행궁으로 궁궐의 위상을 갖게 되었고, 후에 경운궁이라는 궁호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인조가 창덕궁으로 이어(移御)하면서, 경운궁이 해체되어 궁궐의 위상을 잃었었다. 궁역이 해체되면서 경운궁 내 대부분의 전각과 땅이 원 주인에게 돌아갔지만, 미증유의 국난을 극복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던 석어당(昔御堂)과 인조 자신이 즉위했던 전각인 즉조당(卽阼堂)만은 남겨놓았다.

이후 300년 가까이 옛 경운궁 터에는 석어당과 즉조당이 남아 있었는데,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두 개의 전각을 중심으로 경운궁의 수리를 명함에 따라 경운궁이 역사의 전면에 다시 등장했다. 두 전각이 새 경운궁의 모태가 된 것이다.

경운궁이 우리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것이 두 차례였는데 두

차례 모두 일본으로 인한 것이었으니, 경운궁과 일본은 악연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렇게 역사의 전면에 다시 등장한 경운궁은 300년 전의 경운궁과는 달랐다. 1883년 미국공사관이 정동에 자리 잡은 이후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공사관이 옛 경운궁 주변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운궁 북쪽에는 영국 공사관, 남쪽에는 독일 공사관, 서쪽으로 가깝게는 미국 공사관이 위치해 있고, 멀리는 프랑스 공사관과 러시아 공사관이 위치해 있었다. 경운궁은 이들에 의해 둘러싸인 형국이었다. 고종이 옛 경운궁을 정궁으로 삼음에 따라 마치 고종은 경운궁이 서구 열강의 지원 하에 일본에 대항하는듯한 공간적 구조를 구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서구 열강 중 미국과 영국 그리고 프랑스가 일본에 우호적이었기 때문이다. 고종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가 유일했다. 이것이 고종이 일본의 압박을 피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 이유였다.

고종은 1896년 2월부터 1896년 2월까지 1년간 러시아공사관에 머물며 새로운 나라를 구상했다. 새로운 국가 체제를 구상하는 동시에 근대국가의 조건을 하나 둘 갖추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정궁을 옮기는 작업과 동시대 근대국가의 화두였던 위생적인 도시환경의 구축이었다.

근대 도시궁궐 경운궁

을미사변을 계기로 다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경운궁은 조선의 궁궐이 아닌 제국으로 새출발한 한국(韓國)의 황궁의 위상을 가졌다. 따라서 근대기에 지어진 제국의 정궁을 고궁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덕수궁의 입지를 살펴보면 덕수궁이 경복궁을 비롯한 창덕궁, 경희궁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경복궁이 북악, 창덕궁이 응봉 그리고 경희궁이 인왕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경운궁은 산을 배경을 하고 있지 않다. 주변에 산이 없을 뿐 아니라 경복궁이나 창덕궁보다 500여년 늦게 도심 한 복판에 세워진 탓에 궁궐의 경계도 반듯하지 않았다. 경복궁이 광화문을 정문으로 위풍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덕수궁의 대한문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다고도 할 수 있다. 덕수궁이 경복궁이나 창덕궁과는 달리 조선이 개국한지 500년이 지나서 시가지화가 완성된 도심 한 복판에서 세워졌기 때문이다.

경운궁이 서울을 조성할 당시 궁궐의 입지와 영역이 정해져있던 궁궐과는 존재하는 방식이 달랐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조선이 개국한지 5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세워진 덕수궁은 조선이 아닌 '한'제국의 황궁으로 지어졌고, 여느 궁궐과 달리 도심 한 복판에 세워진 도심궁궐이라는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 바로 이점이 덕수궁의 정체성의 핵심이다.

그림 1. 환구단 배치도

그림 2. 환구단 전경

경운궁으로의 환궁과 제국 건설의 행보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을 떠나 옛 경운궁으로 거처를 옮긴 것은 1987년 2월 20일이었다. 임금이 머문다는 것은 곧 옛 경운궁이 다시 궁궐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조선이 개국한 이래, 정궁과 이궁의 2개 궁궐을 운영하는 양궐 운영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옛 경운궁이 정궁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전의 정궁이었던 경복궁과 이궁이었던 창덕궁 중에서 하나의 궁이 궁궐의 위상을 잃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러시아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돌아온 고종은 국가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한 단계를 밟아 나갔다. 고종은 황제의 위에 오르라는 주위의 권유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불가하다고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황제국을 위한 준비를 하나하나 준비해 나갔다. 재야에서 칭제 요구가 빗발치던 무렵 왕실의 위상을 높이는 요청의 하나로 교전소 설치를 주장했던 내부대신 남정철에 의해 1897년 6월 3일 조선왕조 역대 임금의 치적을 정리하기 위한 역사편찬기관인 사례소가 내부에 설치되었고, 후에 사례소 직원이었던 장지연에 의해 대한제국의 '대한예전'과 '황례'도 편찬되었다.[1)]

1897년 8월 17일에는 새로운 연호가 만들어졌다. 1896년 친일내각이었던 김홍집 내각에 의해 만들어졌던 '건양'이라는 연호를 버리고 '광무'를 새로운 연호로 제정했다. 부국강병의 의지를 담은 '광무'를 만든 후 8월 16일에는 연호 개정을 알리는 환구제(圜丘祭)를 지냈다. 이때의 환구제는 대한제국기의 환구단이 아닌 조선 개국후에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제단인 남단[2)]에서 이루어졌다. 황제만이 치를 수 있는 환구제를 대한제국 출범이전에

1) 한영우, 명성황후 제국을 일으키다, 2006, 효형출판사
2) 남단은 현 미군 병영인 코이너캠프 안에 위치해 있다./글쓴이 주.

지냈다는 것은 칭제 요구에 대한 공개적인 반응이었으며, 칭제에 대한 의지를 굳혔음을 의미한다.

1897년 9월 25일에는 환구단 건설이 결정되었고 공사는 10월 2일에 시작되었다. 장소는 남별궁이었다. 남별궁은 태종의 둘째 딸 경정공주와 남편 평양부원군 조대림의 집이었으나 임진왜란 이후 명나라 사신들의 거처로 사용되었던 곳이다. 따라서 남별궁에 환구단을 지은 것은 제국건설에 대한 의지와 의미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의지의 표명이었다고 할 수 있다.

환구단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단'과 신위를 모시는 '황궁우'를 비롯한 부속시설로 구성되었지만, 대한제국 출범 당시에는 제단만이 존재했다. 황궁우가 지어진 것은 그로부터 2년 뒤인 1899년이었다.

고종이 칭제를 승낙하고 조선의 국체를 대한제국으로 새롭게 출발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1897년 10월 3일이었다. 고종은 "짐이 부덕한 몸으로 34년간 임어하는 동안 어려운 때를 만나 마침내 만고에 없는 변고까지 있었다. 또, 정치가 뜻대로 되지 않아 근심과 걱정이 눈에 가득차고 부끄러운 생각에 진땀이 흘렀다.…진신들이 편지로써 청하고, 대산들이 연석에서 청하고, 6군 만민이 복합하여 청하고, 상하가 서로 통하고 쉴 틈이 없이 머무르고 있으니, 대동의 정을 도저히 막을 수 없도다. 깊이 생각해 보니 부득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큰일이니 만큼 그 예의를 짐작하여 행해야 할 것이다". 며 칭제를 승낙했다.

칭제를 결심한 고종은 10월 7일 경운궁 즉조당의 이름을 태극전으로 바꾸고, 10월 8일 사직단의 신위판을 태사와 태직으로 격상시켰다. 10월 11일 오후 2시에는 환구단을 사전 시찰하였고, 10월 12일 새벽 드디어 황제에 올랐다. 고종이 황제의 위에 오르던 날의 모습에 대해서는 1897년 10월 12일 자 독립신문 기사에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십일일밤 장안의 사가와 각 전에서는 등불을 밝게 달아 길들이 낮과 같이 밝았다. 가을 달 또한 밝은 빛을 검정 구름 틈으로 내려 비추었다. 집집마다 태극 국기를 높이 걸어 애국심을 표하였고, 각 대대 병정들과 각 처 순검들이 만일에 대비하여 절도 있게 파수하였다. 길에 다니던 사람들도 즐거운 표정이었다. 그러나 국가의 경사를 즐거워하는 마음에 젖은 옷과 추위를 게의치 않고 질서정연히 각자의 직무를 착실히 하였다.

사람들의 옷이 젖었다는 기사를 보니 하늘에 황제 즉위를 고하던 날, 비가 왔던 모양이다.

황제 즉위식의 모습을 살펴보자.

십일일 오후 두시 반 경운궁에서 시작하여 환구단까지 길가 좌우로 각 대대 군사들이 질서 정연하게 배치되었다. 순검들도 몇백 명이 틈틈이 벌려 서서 황국의 위엄을 나타냈다. 좌우로 휘장을 쳐, 잡인 왕래를 금하였고, 옛적에 쓰던 의장 등물을 고쳐 황색으로 만들어 호위하게 하였다. 시위대 군사들이 어가를 호위하고 지나갈 때에는 위엄이 웅장했다. 총 끝에 꽂힌 창들이 석양에 빛을 반사하여 빛났다. 육군 장관들은 금수로 장식한 모자와 복장을 하였고, 허리에는 금줄로 연결된 은빛의 군도를 찼다. 옛 풍속으로 조선 군복을 입은 관원들도 있었으며, 금관 조복한 관인들도 많이 있었다.

어가 앞에는 대황제의 태극 국기가 먼저 지나갔고, 대황제는 황룡포에 면류관을 쓰고 금으로 채색한 연을 탔다. 그 뒤에 황태자가 곤룡포를 입고 면류관을 쓴 채 붉은 연을 타고 지나갔다. 어가가 환구단에 이르자 제향에 쓸 가색 물건을 둘러보고 오후 네 시쯤에 환어하였다.

십이일 오전 두시 다시 위의를 갖추어 황단에 가서 하느님께 제사하고 황제 위에 나아감을 고하였다. 황제는 오전 네 시 반에 환어하였다. 동일 정오 십이시에 만조백관이 예복을 갖추고 경운궁에 나아가 대황제와 황태후, 황태자와 황태비에게 크게 하례를 올렸고, 백관들이 크게 '황제폐하 만세'를 불러 환호하였다.

'한'제국이 공식적으로 출범한 것은 1897년 10월 13일이었다. 고종은 반조문(頒詔文)에서 자신을 '봉천승운황제(奉天承運皇帝)'[3]라 칭하고, "*짐은 생각건대, 단군과 기자 이후로 강토가 분리되어 각각 한 지역을 차지하고는 서로 패권을 다투어 오다가 고려 때에 이르러서 마한 진한 변한을 통합하였으니, 이것인 삼한(三韓)을 통합한 것이다. 우리 태조가 왕위에 오른 초기에 국토 밖으로 영토를 더욱 넓혀 북쪽으로는 말갈의 지경에 이르러 상아, 가죽, 비단을 얻게 되었고, 남쪽으로는 탐라국을 차지하여 귤, 유자, 해산물을 공납으로 받게 되었다. 사천리 강토에 하나의 통일된 왕업을 세웠으니, 예악과 법도는 당뇨와 우순을 이어받았고, 국토는 공고히 다져져 우리 자손들에게 만대토록 길이 전할 반석 같은 터전을 남겨주었다. 짐이 덕이 없다 보니 어려운 시기를 만났으나, 상제가 돌봐주신 덕택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안정되었으며, 독립의 터전을 세우고 자주의 권리를 행사하게 되었다. 이에 여러 신하들과 백성들, 군사들과 장사꾼들이 한 목소리로 대궐에 호소하면서 수십 차례나 상소를 올려 반드시 황제의 칭호를 올리려고 하였는데, 짐이 누차 사양하다가 끝내 사양할 수 없어서 올해 9월 17일 백악산(白嶽山)의 남쪽에서 천지에 고유제를 지내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국호를 '대한'으로 정하고 이해를 광무 원년으로 삼으며, 종묘와 사직의 신위판을 태사와 태직으로 고쳐 썼다. 왕후 민씨를 황후로 책봉하고 왕태자를 황태자로 책봉하였다. 이리하여 밝은 명을 높이 받들어 큰 의식을 비로소 거행하였다.… 아! 애당초 임금이 된 것은 하늘이 도움을 받은 것이고, 황제의 칭호를 선포한 것은 온 나라 백성들의 마음에 부합한 것이다. 낡은 것을 없애고 새로운 것을 도모하며 교화를 시행하여 풍속을 아름답게 하려고 하니, 세상에 선포하여 모두 듣고 알게 하라.*"고 하였다.

3) 조서에 쓰는 황제의 자칭(自稱). 곧 천명에 따라 황제의 운을 계승하였다는 의미임.

그림 3. 조선시대 도시의 중심(좌)과 대한제국기 도시의 중심(우)

드디어 '한'제국이 출범한 것이다.

미국의 호레이스 알렌 공사, 러시아의 알렉시 스페예르 공사, 프랑스의 콜랭 드 플랑시 공사, 독일의 크린 영사, 일본의 가토 마스오 공사 등이 황제 즉위를 축하하며 알현을 청하였다. 이제 대한제국은 당당한 제국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경운궁 중심의 도시구조 개편

제국의 출범으로 경운궁이 황궁이 되었고, 서울의 도시구조는 황궁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조선시대의 수도 한양의 상징적 중심은 경복궁과 육조거리였지만, 도시기능의 중심은 종로와 남대문로가 교차하는 운종가였다. 그러나 '한'제국이 출범하면서 상징적 중심이 경복궁에서 경운궁으로 옮겨졌을 뿐 아니라 기능적 중심도 운종가에서 대한문 앞으로 옮겨지기 시작했다. 조선시대에는 상징적 중심과 기능적 중심이 일치하지 않았으나, 대한제국기에는 수도의 상징적 중심과 기능적 중심이 일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도시구조의 변화는 경운궁의 건설로 촉발되었다. 경운궁이 제국의 황궁으로 부활하였지만, 나라의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관아는 육조거리에 남아있었기에 황궁과 행정부 사이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새로운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었고, 이는 오늘날 태평로의 개설로 이어졌다. 한편, 남별궁에 환구단이 건설되면서 오늘의 소공로가 새로 개설되었는데, 신설된 소공로는 남촌을 대한문 앞으로 연결시켰을 뿐 아니라 남대문 상권을 대한문과 정동 주변으로 확산시키는 루트가 되었다. 이렇게 재편된 경운궁 중심의 도시구조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면서 서울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다.

대한제국의 출범과 경운궁의 건설은 조선 개국이래 지속되었던 도시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현대도시 서울의 근간이 되었다. 경운궁과 대한문 앞 광장이 근대한국의 원공간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제국의 얼굴, 석조전 건설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는 동안 환궁에 대한 각계의 요구를 물리쳤던 고종은 해를 넘겨 경운궁으로의 이어를 단행하면서 새로운 나라의 청사진을 하나씩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 중 하나가 석조전의 건설이었다. 1897년 4월 6일자 독립신문 기사에는 '영국사람 브라운씨와 통변관 최영하 씨가 3월 15일 경운궁에 들어가서 궁 안에 지형을 실측하고 나왔다더라'는 기사가 실렸다. 무엇을 위한 실측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이 없었지만, 이후 전개되는 상황과 기록을 살펴보면 총세무사(總稅務司)[4] 맥리비 브라운(John McLeavy Brown, 柏卓安, 1835-1926)의 실측 행위가 석조전을 짓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매일신보 기사에 따르면 석조전 건축은 브라운의 발의로 시작되었다.

대한제국 출범을 위해 『대한예전(大韓禮典)』을 발간하는 등 황제국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졌다. 1897년 10월에는 환구단(圜丘壇)[5]이 만들어졌고, 1897년 10월 12일 환구단에서 황제 즉위 의식이 행해졌다. 황제국의 상징적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석조전이 서양의 신고전주의 건축양식으로 지어졌는데 반해, 또 다른 상징인 환구단의 경우 중국의 예를 모델로 삼았다. 이 대립적인 양상은 오랜 세월 동아시아 전통의 강한 관성 속에서 새롭게 서구 제국을 모델로 하는 근대국가를 지향했던 조선이 처했던 딜레마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대한제국 출범 이후 고종 황제는 다른 나라의 예에 따라 황제가 군을 통솔하는 대원수, 황태자를 원수로 하는 군부제도를 개편하였으며, 이때 원수부(元帥府)가 건축되었다. 원수부는 대한문 우측에 건설되었는데, 벽돌로 지어진 2층 건물 2개 동으로 구성되었다. 2개 동 그 사이에는 궁궐 밖으로 직접 연결되는 출입문이 있었다. 동 시기에 경운궁에는 궁궐의 호위를 위한 망대가 세 곳에 세워졌다. 이들 건축물은 특별한 건축양식을 논하기는 어려우나 벽돌로 지은 실용적인 서양식 건축물이었다.

석조전을 짓기 위한 측량이 1897년 3월에 행해졌고, 상해에서 활동하던 영국인 건축사 하딩(J. R. Harding)에게 설계가 의뢰되었는데, 하딩은 석조전을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유럽은 물론 아시아와 아메리카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신고전주의 건축양식으로 디자인했다. 1900년 5월 26일자 미국 저널 『American Architecture and Building News』에는 석조전의 모형 사진이 게재되었으며, 같은 해에 석조전 공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석조전이 유럽 건축에 뿌리를 둔 전형적인 신고전주의 건축양식으로 디자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석조전에는 유럽건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베란다가 건물 전면은 물론 양 측면에 설치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석조전 뿐 아니라 덕수궁에 남아있는 양관인 정관헌(靜觀軒)과 중명전(重明殿, 구 修玉軒)에도 모두 정면과 양 측면에 서양식 베란다가 디자인되고 설치되었다는 사실이다.

세 개의 건물은 모두 서양 건축양식으로 지어졌지만, 건축적 특징은 판이하게 다르다. 정관헌이 이국적 모습에도 불구하고 곳곳

4) 조선 말기 개항장의 관세를 관장하기 위한 해관(海關)을 지휘하고 관리하는 관직.
5) 풍작과 비를 기원하는 국가행사로써 하늘에 제사를 올리던 제단.

에 전통 건축과 장식 요소가 사용된 한양 절충식 건축으로 지어진 반면, 석조전은 전형적인 신고전주의 건축으로 지어졌고, 중명전은 실용적인 벽돌조 건축으로 지어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건축양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세 건물에 모두 베란다가 정면과 양 측면에 설치된 이유는 뭘까? 이러한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럽 밖에서 신고전주의 건축양식의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기 시작했고, 그곳에 지어진 신고전주의 건축에서 베란다가 언제, 어디에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신고전주의 건축이 유럽 이외의 지역에 지어지기 시작한 것은 콜럼버스에 의한 아메리카 대륙 발견 이후 대항해 시대에 개척된 식민지에서다. 대항해 시대 후반에 식민지 개척에서 큰 성과를 냈던 영국과 프랑스가 식민지였던 인도와 인도차이나 지역에 지은 지배기구 건축이나 공공 건축은 예외 없이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지어졌다. 그런데 신고전주의 건축의 본거지인 유럽과 인도와 인도차이나는 기후가 전혀 달랐다. 고온 다습했던 이들 식민지에서 유럽풍의 건물이 온전하게 작동될 수 없었고, 현지의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 햇볕을 피하고 통풍을 도와줄 수 있는 건축적 해법이 발명되었다. 베란다가 등장한 것이다. 그리고 베란다가 건물 전체에 둘러쳐진 새로운 건축양식이 형성되었는데, 이러한 건축양식을 식민지에서 만들어진 건축양식이라는 의미를 담아 식민지건축(colonial architecture)이라 불렀다. 그러나 식민지 건축이라는

그림 4. 석조전 모형사진

그림 5. 돌로 지은 신고전주의 양식의 석조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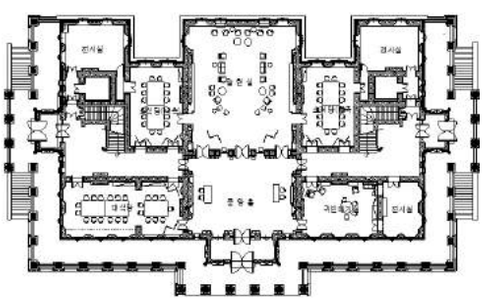


그림 6. 석조전 1층 평면도(복원후)

그림 7. 석조전 내 접견실

그림 8. 석조전 중앙홀 일부

용어가 일제의 식민지를 경험한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잘 못 이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우리는 이를 베란다가 건물 외부에 둘러쳐진 건축이라는 뜻에서 베란다 건축이라 부르고 있다.

한편, '돌로 지은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석조전'이라는 이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궁궐의 주요 전각이 전각의 용도에 따라 의미 있는 이름이 붙임으로써 전각에 정체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보면, 일국의 정전으로 지어진 건물에 '돌로 지은 집'이라는 뜻을 가진 '석조전'이라는 이름은 참으로 이상한 이름이 아닐 수 없다.

석조전이라는 이름의 작명에 대한 수수께끼는 우리의 전통적인 집짓기가 나무와 흙으로 지어졌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우리 역사에서는 돌로 집을 짓는 전통이 없었기 때문에 돌로 지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건물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동시대에 서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신고전주의 건축양식을 택한 것은 곧 서구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새롭게 출범하는 대한제국이 서구를 모델로 하는 근대국가일 뿐 아니라 서구와 같은 국가체제를 운영할 수 있음을 과시하는 상징적 장치였다고 할 수 있다. 대한제국의 첫 건축프로젝트로서 시작된 정인인 석조전의 이름과 신고전주의 건축양식의 모습은 그 자체로 대한제국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이다.

석조전은 단층으로 지어지는 전통건축과는 달리 지하 1층에 지상2층으로 지어진 탓에 여러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지어졌다. 석조전이 1910년에 준공된 탓에 비록 호아궁의 정전으로 사용되지는 못하였지만, 태황제가 황위에서 물러난 후 덕수궁에 머물면서 석조전을 사용한 용도를 보면, 침전과 편전의 복합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석조전은 1층에 접견실 및 홀, 2층에는 중앙 홀과 황제 황후의 침실과 거실 그리고 지층에는 부속실 들이 배치되었다.

협회소식

우리협회 회장 이 · 취임식 개최

우리협회는 지난 3월 6일(수) 오전 11시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회장 이 ·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 · 취임식에는 이상정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심상정 국회의원을 비롯해 건축계 인사 및 정부인사 등 3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 · 취임식은 제29대 강성익 회장의 이임사로 시작하여 제30대 김영수 회장의 취임사로 이어졌다. 강성익 회장은 이임사에서 "지난 2년의 임기동안 대한건축사협회의 회장으로서 협회발전과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온 힘을 쏟았던 시간이, 건축사로서 지낸 34년의 시간 중 가장 보람된 순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제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새로 취임하시는 김영수 회장님과 신임 집행부에도 변함없는 성원으로 대한민국 건축문화가 더욱 발전하고 협회와 건축사 모두 국가경쟁력을 갖추어 세계 속에 우뚝 서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제30대 김영수 회장은 취임사에서 "대한건축사협회 제30대 회장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먼저, 새롭게 건축사의 위상을 점검하고 정립해 나가겠다. 건축전문가로서 품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자긍심을 세울 새로운 가치의 정신운동을 추진하겠다. 또한 건축사 회원들이 땀 흘린 만큼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협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고 한다. 변화에 부응한 건축사의 위상정립, 협회의 역량과 대외협상력 강화, 국가와 국민을 위한 협회 및 건축사의 새로운 가치방향 설정 등을 앞세워 건축의 미래를 위한 새 시대를 활짝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상정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강성익 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김영수 신임회장도 강성익 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아울러 전임 강성익 회장이 신임 김영수 회장에게 협회기를 전달하는 협회기전달식이 진행됐다.

또 퇴임하는 부회장(이각표, 조성원) 및 이사(김윤, 김항년, 신춘규, 정익현, 정태복, 조충기, 최광식)와 이영호 감사에게 공로패가 수여되는 한편, 김득수 감사의 짧은 취임인사도 함께 있었다.

식후 만찬식에서는 이취임을 축하하는 김만성 고문과 김연태 건설감리협회 회장의 건배제의가 있었으며, 기념사진 촬영을 끝으로 식을 마쳤다.

회장 공로패 전달

국가건축정책위원장 감사패 수여

퇴임 부회장 공로패 수여

퇴임 이사 공로패 수여

협회 고문진과 함께

협회 임원진 기념 촬영

신임 임원(이름 가나다순)

비상근부회장 **김의중**

건축사사무소 서보건축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대한건축사협회 서초구건축사회 회장 역임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역임
現 서울 고등법원 조정위원
現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자문위원

비상근부회장 **심재호**

제이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주)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종합건축사사무소 범건축 부회장 대표이사 역임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위원
세계건축사연맹(UIA) 이사
서울지방항공청 설계자문위원회 위원

이사 **고은영**

건축사사무소 가진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現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現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위원
現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現 대한여성건축사회 회장

이사 **배기업**

명신 건축사사무소
울산과학대학 건축과 졸업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울산광역시건축사회 회장 역임
現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現 울산광역시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이사 **백승천**

백건축그룹 건축사사무소(주)
수원과학대학 건축과 졸업
수원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
대한건축사협회 수원지역건축사회 회장 역임
現 수원지방법원 조정위원회 부회장
現 경기도 건축디자인 자문위원

이사 **오근석**

(주)유진인터내셔날 종합건축사사무소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주한 미8군 설계실 근무
대한건축사협회 회관 공모전 당선
대한건축사협회 친환경T/F 분과위원장
산업자원부장관 표창장

이사 **윤혁경**

에이앤유디자인그룹 건축사사무소(주)
서울산업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공학석사
대통령 직속 건설기술 · 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위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자문위원
現 서울특별시 주거재생지원센터 조정관

이사 **이택붕**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남양
영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대한건축사협회 대구광역시건축사회 회장
現 (사)대구건축문화연합 부이사장
現 대구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
現 영남대학교 건축과 총 동문회 부회장

이사 **임창희**

창조 건축사사무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공학석사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광역시건축사회 회장 역임
인천건축문화제 조직위원장
現 인천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이사 **정종태**

(주)쿠파이엔지 종합건축사사무소
대전공업대학 건축공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건축설계전공)
대한건축사협회 대전광역시건축사회 회장
現 철도공사 건축심의위원
現 대전광역시 건축위원

신임 감사

감사 **김득수**

종합건축사사무소 S.S.P. 삼대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축계획전공 석사
서울건축사회 영등포지역건축사회 회장 역임
서울건축사회복지회 신용협동조합 감사 역임
서울건축사회 부회장 및 회장 직무대행 역임

현임 감사

감사 **김상부**

현임 임원(이름 가나다순)

상근부회장 **권병조**

비상근부회장 **조형식**

이사 **김용주**

이사 **김용찬**

이사 **김주식**

이사 **서용주**

이사 **최남수**

이사 **최용달**

위원회 개최 현황

■ 제2회 법제위원회

제2회 법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2월 14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2년도 활동사항 평가 및 2013년도 활동계획의 건
  - 2013년도 법제위원회 사업계획에 따라 대처하고 중요과제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법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2호 : 에너지평가제도 도입에 대한 대처방안의 건
  - ① 에너지 평가업무를 건축사가 수행할 수 있는 법안 마련과 ② 에너지평가서 발급 체계를 합리적으로 제도개선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함.
- 제3호 : 건축신고 관련 건축법령 개정 건의의 건
  - 신고제도를 이용한 부실공사 사례조사를 시도회장협의회에 요청하여 사례를 취합한 후 사무처가 건의안을 작성하여 위원장 확인을 받아 국토부에 건의하는 것이 필요함.
- 제4호 : 기타의 건

① 미관지구 건축선의 기존건축물 특례적용 건의 관련의 건

- 서울시에서 미관지구의 건축선을 지정한 취지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해 기존건축물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건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배경

-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에서 건축물 높이 9미터까지 1.5미터 이격하도록 완화 적용된 건축법 시행이 해당 조례가 개정된 이후 허가신청 건에 대해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 일부 사업자들이 개정이전에 개정이후 규정을 적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위법의 소지가 있는바, 이에 대한 협회 입장 정리 필요

② 정북방향 일조권 완화 개정규정 선적용 진행 건 처리 관련의 건

- 해당 변경한 내용이 사용승인신청시 일괄신고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면 설계변경으로 인정하여 적법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김철중 자문위원 의견)

③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관련의 건

- 회원의 협동조합 설립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차기 구성될 법제위원회에서 동 법령 분석 후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모델링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제1회 실내건축제도TF

제1회 실내건축제도TF 회의가 지난 2월 14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실내건축 제도개선 관련 사항 검토의 건
  - 인테리어 설계업무는 건축사의 업무이므로 별도의 자격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없음. 실내 디자인 산업분야의 교육, 해외사례, 실내 디자인 현황의 자료를 수집하여 실내 디자인 제도의 변화에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함.
    - ▷ 리모델링관련 법으로 인테리어나 실내공사 관련 설계업무를 건축사업무에 포함 시키는 방안에 대한 조사를 김승욱 위원이 하기로 함.
    - ▷ 실내 디자인 산업의 교육관련 사항 조사는 김시원 위원과 신경선 위원이 하기로 함.
    - ▷ 실내 디자인 제도와 관련한 해외사례 조사는 김은하 위원과 이재진 위원이 하기로 함.
- 제2호 : 기타의 건
  - '실내건축'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말아야 함, '실내건축 제도개선 TF팀'의 명칭을 '실내디자인 제도개선 TF팀'으로 바꾸기로 함.
  - 다음 회의는 2013년 2월 21일(목요일) 오후 14시에 개최키로 함.

■ 제2회 실내건축제도TF

제2회 실내건축제도TF 회의가 지난 2월 21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실내디자인 제도개선 관련 사항 검토의 건
  - TF위원들이 조사한 관련 법제도, 학제, 해외사례 분야의 내용을 A4용지 1~2페이지 분량으로 정리하여 다음 회의 때 검토 · 보완하여 정리하기로 함.
    - ▷ 실내디자인 관련제도의 해외사례는 국가자격 인증 유무 조사, 민간자격 시행국 조사, 국가별 사용하는 용어를 의역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여 보고서에 대한 대응논리를 마련하기로 함.

■ 제3회 실내건축제도TF

제3회 실내건축제도TF 회의가 지난 2월 28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실내디자인 제도개선 관련 사항 검토의 건
  - 실내디자인 제도개선 TFT에서 조사한 관련 법제도, 학제, 해외사례 분야의 내용과, TFT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정리

하여 회장에게 보고키로 함.

▷ 실내디자인은 건축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음.

▷ 건축사는 건축물의 안전 · 기능 · 미를 다루며 지속적인 건축을 하는 사람임

☞ 리모델링 설계업무에 대한 건축사만이 설계하는 당위성(안전, 기능, 미)

▷ 새로운 자격제도를 만들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함.

▷ 디자인관련 분야의 자격제도 정리 등

■ 제2회 건축위원회

제2회 건축위원회 회의가 지난 2월 14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2년 건축위원회 활동보고서 검토의 건

– 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안건들을 보완하고, 표지 · 목차 · 위원회 명부 등을 추가하여 파일을 정리하고 사용 가능 예산이 있으면 책자로 제본하여 자료로 남기기로 함.

▷ 위원회 회의자료, 회의록을 합철하기로 함.

• 제2호 : 기획업무 의뢰절차 개선방안 관련의 건

– 단 시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기획업무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자문회의에서는 가장 간략한「건축물의 기획업무 계약서 약식」만을 회의 자료로 제시해야함.

*자문회의자료 : 1) "기획업무 계약서 약식",
2) "기획업무 계약서(안)"

■ 제1회 친환경 TF

제1회 친환경 TF 회의가 지난 2월 26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하위법령 제정에 따른 협회의 역할 정립의 건

– 우리협회가 녹색건축센터 또는 에너지평가사 교육기관 등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협회내 친환경건축연구원을 별도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한바, 연구원에서 기존 검토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다음회의에서 추진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 녹색건축물을 위한 건축사 역할 강화방안은 소위원회(조병섭, 조일권, 이기완 위원)를 구성하여 위원회(안)으로 마련하기로 함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령 제정 · 공포 내용에 대해 회원등에게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필요한바, 관련내용을 정리하여 건축사지에 기고하기로 함

• 제2호 : 기타의 건

– 한국환경건축연구원과의 MOU체결에 관한 건

▷ 11개 인증기관 및 단체의 장단점을 파악(기술자보유현황, 실적, 수수료 할인혜택 등)하여 분석한 후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 제4회 선거관리위원회

제4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2월 20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선거사무 관리의 건

– 선거실시에 따른 선거사무 관리에 관한 아래사항을 협의 결정함.

1) 선거인명부 확정

⇒ 각 시도건축사회의 대의원 보고에 따라 당초 대의원 458명중 현직임원 사퇴(강석후)로 인한 1인을 제외한 457명의 선거인명부를 확정함.(회원권리정지자는 없음.)

2) 투표용지 확인

⇒ 투표용지의 일련번호, 인장날인을 확인하고, 투표용지 사용은 각 선거별로 교차하여 사용키로 함.(회장선거 1차 파란색, 2차 노란색, 3차 녹색 순으로, 감사선거 1차 노란색, 2차 녹색, 3차 파란색)

3) 당선증 교부시점

⇒ 회장선거와 감사선거의 개표결과에 따라 당선자가 확정되면 당선자 발표후 당선증을 교부하고 이후 이사를 선출하기로 함.

4) 투표방법

① 투표는 시간단축을 위해 회장선거와 감사선거 동시 투표로 진행하며, 대강당 연단에 투표소(교부대, 기표소)를 설치하여 실시키로 함.

② 투표용지 교부업무는 선관위원 3인과 직원 1인의 4인 1조로 하여, 2개조로 구성하여, (직원 1)대의원명찰과 신분증 확인, (위원 1)선거인명부확인 및 명부와 대의원명찰에 각각 "√"표기, (위원 2)회장투표용지 교부, (위원 3)감사투표용지 교부하는 등 업무를 분담키로 함.

⇒ 제1조 : 권연하,도무찬,석종구, 제2조 : 정부교, 김한진, 이무열

투표함감시 및 신분증미지참자 확인: 이유림, 이아희, 신정철, 김정한

③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과 명찰, 선거인명부를 대조확인하고, 명찰표기는 1차투표시 성명 앞에, 2차투표시에는 성명 뒤에, 3차투표시는 건축사회명 사이에 표기하기로 함.

④ 개표는 감사투표함을 먼저 개표하고, 이후 회장투표함을 개표하여 개표결과를 발표하고, 이후 개표결과에 따라 결선투표를 진행하기로 함.

5) 참관인신고

⇒ 각 후보자로부터 참관인 회원 3인씩 신고받되, 참관인

의 업무(투표용지교부 2인, 개표 1인)를 지정하도록 함.

▲기타사항

- 선거규정상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선거당일 각 후보자의 어깨띠, 홍보물 배부 등의 홍보행위를 허용하기로 함.
- 시도회장협의회에서 후보자에게 질의서를 발송한 사항에 대해 협회나 선관위와는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이므로 선관위에서는 관여하지 않기로 함.

■ 제5회 선거관리위원회

제5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3월 5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선거사무 종료의 건

1) 선거사무 종료

⇒ 제30대 회장선거 및 2013년 감사선거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으므로 투표용지는 폐기하고 금번 선거의 사무는 종료키로 함.

2) 선거기탁금 반환

⇒ 후보자 기탁금 사용내역과 정산반환금을 확인하고 해당 후보자에게 반환토록 함.

⇒ 유효투표 15%미만 득표자(강석후회장후보, 김담옥감사후보)에 대한 선거비용 정산 잔액은 협회 수입으로 하되, 장학회회계의 출연금으로 세입처리토록 건의함.

▲기타사항

- 정관개정으로 회장직선제 시행에 따라 선거관리규정 보완이 필요하므로, 아래와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수렴과 초안을 마련한 후 이사회에 건의키로 함.

– 소위원회 : 위원장 이무열, 위원 권연하, 김한진, 석종구, 정부교

■ 제3회 건축사등록원 운영위원회

제3회 건축사등록원 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 2월 19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 실무교육 인정의 건

– 건축사교육원에서 요청한 '2012 한국건축산업대전 연계 건축사교육'은 전문교육으로 1시간,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연계 건축사교육'은 윤리교육으로 1시간 인정하기로 함

– 자기계발은 항목별로 최대 2시간만 인정하기로 기준을 정하고, 인정신청 사항 중 '제13회 부산공간포럼', '제18차 열린부산도시건축포럼', '제2차 공공건축포럼', '회원간담회 및 권역별 해외건축물 탐방 보고회', '대한건축사협회 정책토론회', '한옥건축의 미래와 개선방향 세미나', '하우징 브랜드 페어', '제30대 회장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 'midas eGen 고급교육' 및 '소형주택 친환경인증제도 및 모듈러건축 현황과 시공사례 세미나'는 각각 1시간 인정하고, '특수전문분야 상담활동(건축민원상담)' 및 '한옥설계전문인력양성교육'은 각각 2시간 인정하기로 함

- 제2호 : 건축사자격등록 경과조치기간 만료 후 미등록자 대책의 건

– 5월 31일부터 건축사자격을 취득한지 3년이 경과한 미등록 건축사는 자격등록 전에 실무교육을 12시간 이수해야 하므로, 교육과정이 충분히 개설되도록 건축사교육원에 요청하고, 건축사등록원은 미등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주력하기로 함

■ 제2회 건축사교육원 운영위원회

제2회 건축사교육원 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 2월 19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실무교육 교육계획서 보완제출의 건

– 세부계획서를 확인한 결과 교육비, 강사의 자격, 과목 분류작업 및 실무에 맞는 과목명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한 실정이나 2013년도 실무교육은 시간적 여유가 없으며 시행초기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단 전반기 교육을 실시한 후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교육의 질을 강화해 나가기로 함.

– 2013년도에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경쟁력 있는 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강사 인력풀 구성은 우선 협회 회원부터 체크해 나가도록 하고, 강사의 자격 조건 등에 대해서는 동정근 위원이 교육과정개발 연구과정에 포함하기로 함.

– 윤리교육에 한해 수강인원을 150~200명으로 증원해달라는 각 시 · 도건축사회의 요청에 대해서는 협회의 실정 및 교육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국토부 변경 승인 시 수강인원 증원(200명)에 대해 적극 협의하기로 함.

- 제3호 : 교육수강료 결제방법 검토의 건

– 실무교육 신청시 다양한 결제방법을 검토해달라는 시 · 도건축사회의 요청에 대해서는 원활한 교육시행 및 단일화된 교육관리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구도 정립을 위해 원칙대로 단일화 하기로 함.

– 또한 체계적인 교육업무 시행을 위하여 수강등록 시한규정 및 환불처리, 폐강기준 등을 규정한 세부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음 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함.

울산광역시건축사회, 산불 피해지역에 설계 등 지원

울산시건축사회는 지난 3월 9일 울주군 언양읍 일대에 발생한 피해 복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울산건축사회는 지난 3월 18일 긴급 총회를 개최하고, 피해 주택에 지역건축사를 투입해 무료 설계 제공하는 등의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인 대상은 상북면, 언양읍 일원 주택 28동이며, 건축주가 희망할 경우 설계도서 및 예정공사비 산정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노원지역건축사회, 건축상담을 위한 재능 나눔

서울특별시건축사회 노원지역건축사회는 노원구청과 재능나눔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3월 13일부터 건축관련 상담 및 소규모 건축물 도면작성 · 감리 등을 무료로 실시했다.

해당 건축사들은 면적이 85㎡ 이내의 증 · 개축이나 재건축에 대한 도면작성과 감리 등의 상담을 실시하고, 상담시간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며, 구청 디자인건축과 내 따로 마련된 상담공간에서 진행된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 날짜와 시간을 맞춰 상담하면 된다.

화성 · 오산지역건축사회, 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금 전달

경기도건축사회 화성 · 오산지역건축사회는 지난 2월 13일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화성 · 오산지역건축사회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인재육성대잔에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불우한 계층의 주택 보수 등 다양한 지역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파주지역건축사회, 소외된 이웃에 성금 · 위문품 전달

경기도건축사회 파주지역건축사회와 파주시청 건축직공무원 모임(건우회)은 지난 2월 6일 구정을 맞이해 장애인직업재활 공동체 '새꿈터'와 지적장애인 생활시설인 '주람동산'을 방문,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천안지역건축사회, (재)천안사랑장학재단에 1,000만원 기탁

충청남도건축사회 천안지역건축사회는 지난 3월 6일 천안시청을 방문해 1,000만 원을 재단법인 천안사랑장학재단에 기탁했다.

충주지역건축사회, 충주시와 MOU 체결

충청북도건축사회 충주지역건축사회는 지난 2월 15일 충주시청과 '대한민국 중심고을 충주 재탄생'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충주지역건축사회는 지역 건축사들의 재능기부, 충주 재탄생 계획 참여 및 아이디어 제안, 마을만들기 사업 협력 등 '대한민국 중심고을 충주 재탄생'을 위한 협력관계 유지 및 지원할 예정이다.

남해지역건축사회, 남해군향토장학회에 200만원 기탁

경상남도건축사회 남해지역건축사회는 지난 2월 1일 남해군청 군수실을 방문해 남해군향토장학회에 장학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명희 남해지역건축사회 회장은 언론을 통해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도 남해 인재육성을 위해 회원들의 뜻을 모아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향토장학회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13 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공모

한국건축문화대상 시행위원회는 '2013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을 공모한다.

2013 한국건축문화대상은 2011년 5월 1일부터 2013년 5월 1일 사이 국내에 준공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준공건축물 부문'과 건축과 도시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의 계획작품을 대상으로 한 '계획건축물 부문'으로 나눠 시행한다.

준공건축물 부문은 오는 6월 7일까지, 계획건축물 부문은 5월 20일부터 5월 28일까지 참가신청 해야 하고, 작품접수는 준공건축물 부문 6월 10~11일, 계획건축물 부문은 5월 30~31일 각각 양일간이다.

준공건축물부문은 '사회 · 공공부문', '민간부문', '공동주거부문', '일반주거부문' 4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대상, 본상, 우수상을 선정해 시상한다. 대상으로 선정된 4개 작품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에게 대통령상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상이 각각 수여되며, 본상 수상작 4개 작품에는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에게 국무총리상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상이, 우수상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과 서울경제신문사장 공동명의 상이 수여된다.

계획건축물 부문의 작품 주제는 '지역×문화, 再生…'이며, 대상 1점에게는 상금 500만원과 국토해양부장관상, 해외건축탐방의 기회가 주어진다. 우수상 5점에게는 상금200만원과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이 수여되며 대상과 마찬가지로 해외건축탐방의 기회가 주어진다. 특선과 입선에게는 각 100만원, 30만원과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이 수여된다.

또 우리나라 건축문화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1인을 '올해의 건축문화인상'으로 선정, 국토해양부장관상과 트로피를 수여하며, 한국건축문화대상 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공로상'을 수여한다.

국토해양부, 대한건축사협회,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하고 대한건축사협회가 주관, LH, 대한주택보증(주),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후원하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은 우리건축의 본질과 시대의 정서, 그리고 기능성이 구현된 역작 건축물을 발굴해 시상함으로써 새로운 한국 건축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마련된 건축제전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13 한국건축문화대상 홈페이지(http://kaa.kira.or.kr)나 본지 528호(2013년 4월호 00페이지)에서 참조하면 된다.

· 문의 대한건축사협회 문화홍보실 홍보편찬팀(02-3415-6861~4, 홈페이지 kaa.kira.or.k)

2013년도 '제2회 어린이건축창의교실 및 한옥체험행사' 개최

대한건축사협회는 2013년 어린이날과 연계하여 '제2회 어린이건축창의교실 및 한옥체험행사'를 오는 5월 3일(금)부터 5월 4(토)일까지 1박2일간 천안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대한건축사협회가 어린이에게 건축을 통한 창의력 개발과 우리 건축문화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참가자는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생 120명이며, 신청동기와 '미래에 내가 살고 싶은 집', '건축사님께 – 이런 건축물을 만들어주세요' 지정 글을 작성한 어린이 중 120명을 선정하여 개최한다. 참가신청은 오는 4월 5일(금)부터 4월 12일(금) 18:00까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buildSMART 포럼 2013' 개최

(사)빌딩스마트협회, (사)한국건설IT융합학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buildSMART 포럼 2013'이 오는 4월 18일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논현동 건설공제조합 2층에서 개최된다.

2008년을 처음으로 올해 6회를 맞이하는 이번 포럼은 BIM이 점차 널리 확산됨에 따라, 산업계의 BIM에 대한 요구사항이 매우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이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업계에서 궁금해 하는 사항에 직접적인 답변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참가 대상은 건축사를 비롯해 건설사, 엔지니어링, FM 및 관련업체 및 개인 등이며, 1차 사전등록은 지난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됐다.

2차 사전등록은 오는 4월 8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당일 현장등록도 가능하다. 기타 문의 사항은 빌딩스마트협회 사무국(070-7012-0409)으로 문의하면 된다.

선진엔지니어링,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 개설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유상천, www.sunjin.co.kr)가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선진엔지니어링은 기존 홈페이지와 별도로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sunjinea)를 개설했다고 27일 밝혔다.

선진엔지니어링의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은 홈페이지만으로는 부족했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한 것으로 수주소식 등 최신 정보는 물론 건축과 엔지니어링에 관한 공감할만한 이야기들을 폭

넓게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건설엔지니어링사들은 대중과의 직접적인 접점이 없다는 이유로 SNS를 통한 소통에 소극적이었다. 따라서 이번 선진엔지니어링의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은 매우 이례적인 동시에 긍정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선진엔지니어링의 관계자는 페이스북에 관해 "지금까지 업무를 통해 만난 국 · 내외의 많은 클라이언트와 관계자들이 회사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손쉽게 얻고 싶어했는데 그 해결책으로 페이스북 페이지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특히 우리 선진엔지니어링은 단순한 제품 판매가 아닌 종합컨설팅을 제공하는 만큼, SNS를 통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채널 확보는 잠재적인 고객 확보는 물론 대중들에게 건축 · 엔지니어링에 관한 긍정적 인식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선진엔지니어링은 페이스북 외에도 비즈니스 소셜미디어인 링크드인(Linkedin)에도 공식 페이지를 함께 개설함으로써 SNS활동 강화에 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제31회 정동 도시건축 세미나

정동 도시건축 세미나가 오는 4월 21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주제는 '튀는 도시, 참한 도시'로 「나는 튀는 도시보다 참한 도시가 좋다」의 저자인 정석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가 주재한다.

자세한 문의는 구가도시건축(02-3789.3372/www.guga.co.kr)으로 하면 된다.

신간안내

구본준의 마음을 품은 집: 그 집이 내게 들려준 희로애락喜怒哀樂 건축 이야기

구본준 저 | 352쪽 | 서해문집

저자는 「한겨레」신문에서 대중문화팀장, 책지성팀장, 기동취재팀장, 기획취재팀장 등을 지냈고 지금은 문화부 기자로 일하면서 건축과 미술을 소개한다. 그는 '땅콩집'을 지은 이야기를 담은 『두 남자의 집짓기』, 어린이를 위해 썼지만 어른들이 더 많이 읽은 『별난 기자 본본 우리 건축에 푹 빠지다』 등의 건축 분야 책과 『한국의 글쟁이들』, 『서른살 직장인 책읽기를 배우다』 같은, 책에 대한 책을 냈고, 특히 이번 신간 『구본준의 마음을 품은 집』은 건축에 대한 저자의 오랜 애정이 녹아든 책으로, 시공간을 넘나들며 여러 건축들이 품고 있는 마음속 이야기를 오롯이 담았다.

이진아기념도서관,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봉하마을 묘역, 창덕궁 정자 등에서 저자는 이야기를 통해 건물의 희노애락을 읽어낸다. 쉽고 재미있게 쓰여진 건축물들의 뒷이야기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새 독자들도 건축에서 인생을 읽어낼 수 있다

건축을 위한 철학: 세상에 단 하나뿐인

브랑코 미트로비치 저/이충호 역 | 280쪽 | 컬처그라퍼

이 책은 건축사, 건축 실무자,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이 설계 작업에서 맞닥뜨리는 광범위한 철학적 문제들을 인식하도록 돕는 것에 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현대 건축 및 건축 이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철학적 견해들을 순서대로 소개함으로써 각 시대의 사회적 맥락 안에서 건축과 그 배경이 되는 철학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건축은 근원을 아는 철학의 바탕 위에서 생각할 줄 아는 장인이 구사하는 기술이다. 하이데거의 「짓기, 거주하기, 사고하기」는 사람은 '짓지 않으면' 거주를 사고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집을 '짓는 것'이 인간 존재에 이렇듯 중요하다. 건물을 '짓는 것'은 하이데거가 지적하였듯이 거주하고 사고하는 것의 출발이며 근본이다. 그러니 건축하는 사람이 철학을 알고 철학과 함께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김광현 교수(서울대학교 건축학과)는 추천했다.

이승석_Lee, Seung-seok I (주)시아플랜 건축사사무소

건축대학에 침투한 첨단기술

Advanced technologies in architectural education

– 3D 프린터를 이용한 모형제작

– architectural models made by 3D printer

첨단의 로봇공학을 이용한 모형제작은 보다 정교한 표현을 가능하게 하지만 높은 비용의 문제로 아직은 보편화가 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첨단공학의 발전으로 인한 많은 자동화 기기들은 건축교육 현장에 파고들어 그동안 답습되어 왔던 여러가지 전통적인 디자인 방법들을 변화시키고 있다. 예일대 건축학과의 모형제작실을 소개하고 그곳에 도입된 여러 가지 첨단 기계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학생들의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면서 앞으로 건축실무 현장에 불어올 변화를 예측해 보고자 한다.

예일대 건축학과 내에 위치하고 있는 모형 제작실을 가보면 첨단공학이 접목된 많은 종류의 기계들이 학생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CNC(computer numerical control) 툴과 waterjet 커터, 레이저 스캐너와 3D 프린터 등이 비치되어 건축모형을 만드는 도구로써 훌륭히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오토매틱 스케일 암(Automatic Scale Arm)이라 불리는 것인데, 2006년 구입 당시 예일대학은 건축학교로써 최초로 이 기계를 도입하였다. 현재는 미국 전역에 걸쳐 많은 학교들이 점차 구입을 더해가는 추세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3D프린터를 도입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자동화 기계에 의한 모형제작이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의 발전을 바라보는 시각은 양날의 검으로 비유된다. 첨단기기를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실물과 거의 흡사한 모형 제작이 가능해졌으며, 학생들은 자신들의 디자인에 대하여 훨씬 정확한 판단과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기계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높아지고, 모델 제작에 드는 시간이 줄어듦으로써 더 많은 대안들을 만들게 되고, 따라서 전체적인 디자인 프로세스는 오히려 느려지고 있다고 모형제작실의 지도교수 Taylor Dansby는 지적하고 있다.

최근에 들여온 3D프린터는 그 결과물이 거의 완벽에 가깝다. 어떤 형태든 모형으로 구현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 훌륭한 성능만큼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한 개의 모델을 프린트하는데 학생들은 200달러나 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플라스틱 재질의 정교한 결과물을 보장하지만 일반적인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매우 높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고비용 환경에서는 의도하지 않게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물론 이러한 첨단기기의 제조사들이 좀 더 저렴한 제품들을 조만간 출시한다면 바로 해결될 문제이지만 말이다. 첨단의 테크놀러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이 갖추어진 것은 무엇보다 환영할 일이지만 비용에 따른 학생들간의 접근성 격차는 올바른 교육환경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할 숙제이다.

지난해 말 학교는 Makerbot이라는 새로운 3D 프린터를 구입했다. 이것은 작은 미니어쳐 모델을 만드는데 24달러 정도로 훨씬 저렴한 비용이 든다. 학생들은 기말 프레젠테이션에 쓰이는 정교한 모델을 위해서 비싸고 정교한 기계를, 중간 리뷰 혹은 다른 과제물을 위한 모델을 제작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의 기계를 사용하며 나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예를 들어, 한개의 모형을 만들어 학기말 최종 프레젠테이션에서 바로 보여주는것 보다는 디자인을 발전해 나가면서 반복적으로 모형을 만들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디자인을 검토하고, 교수님들의 피드백을 받는 경우에 훨씬 작품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시험기간이 되면 Makerbot는 매우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이용하려는 학생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으며, 보통 2주 전부터 예약을 하지 않으면 사용이 어렵다. 학교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올해 여름까지 추가로 보급형 3D프린터를 구입하여 학생들의 이용에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첨단 기기들을 도입한 이후 새로운 디자인의 작품들이 눈에 띠게 늘었다. 문제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이 앞으로 더욱 많이 시도될 것이며 이에 따른 건축시공기술의 발전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시공분야에서 더욱 많은 첨단기술이 필요하게 되는 이유이다. 3D프린터와 같은 여러 기기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설계단계에서 무수히 많은 형상과 다양한 디테일을 완벽한 수준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는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축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는 여러 가지 도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3D 프린터가 디자인 프로세스의 변화에 끼친 영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앞서 언급했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사실이 있다. 지금까지는 모형제작을 위하여 금속, 목재, 종이 등 여러가지 실물과 흡사한 재료들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이젠 모든 모형이 동일한 재료로 만들어진다.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학생 개개인이 보여주는 창조적인 모형들은 이제 사라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다. 결국 이러한 기술의 발전이, 다양한 방법의 고찰과 분석을 통하여 디자인을 도출해 가는 건축행위의 기본속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된다.

우리가 이러한 첨단 기술의 편리함에 중독 되어 간다는 것은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컴퓨터를 이용해 복잡한 형상을 구현하고, 또다시 컴퓨터와 연결된 기계의 힘을 빌어 순식간에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으니 굳이 다른 힘든 방법을 떠올릴 필요를 못느낀다. 한마디로 혁신이다. 하지만 디자이너의 창의력이 기계의 지배를 받으면 될 것인가?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여러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앞에 언급한 첨단기기들을 사용하지 않기를 권하고 있다. 물론 일부 선택과목은 그 특성상 첨단기기의 사용을 권장해야 하는데 일례로 비정형 기하학 이라는 수업이 그렇다. 형태의 연구를 위한 과목이니만큼 과제물을 제출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만 한다.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이런 변화의 중심에 있다. 그들은 이러한 첨단기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좋게 생각하고 있다. 학교가 기기를 도입한 것이 불과 십여 년 전 일이고 아직 시도되지 않은 무한한 활용도를 지금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다.

모형제작실 지도교수인 Taylor Dansby는 오늘도 본인이 직접 모든 기계들의 활용 매뉴얼을 학생들과 함께 만들며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사용법을 익히고 숙련된 기술로 더 나은 기술을 응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아직은 소수의 교수진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변화의 흐름이지만 미래에는 첨단공학을 응용한 더 많은 기기들이 건축교육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이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발전들을 이어나갈 것이다.

본 내용은 Yale Daily News에 게재된 'Robotics enhances architecture courses'의 일부를 발췌, 인용 하였습니다.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13년 2월말

구분 / 건축사회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합계	
	1인		2인		3인이상		소 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소 계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합계	5,956	5,956	91	182	7	21	6,054	6,159	1,709	1,709	234	468	55	165	26	104	19	123	2,043	2,569	8,097	8,728
서울	946	946	22	44	0	0	968	990	869	869	125	250	40	120	11	44	13	76	1,058	1,359	2,026	2,349
부산	515	515	11	22	2	6	528	543	118	118	24	48	1	3	2	8	2	14	147	191	675	734
대구	498	498	21	42	4	12	523	552	69	69	16	32	4	12	2	8	0	0	91	121	614	673
인천	288	288	3	6	0	0	291	294	66	66	6	12	1	3	0	0	0	0	73	81	364	375
광주	217	217	0	0	0	0	217	217	43	43	7	14	1	3	3	12	0	0	54	72	271	289
대전	263	263	6	12	0	0	269	275	31	31	7	14	4	12	1	4	1	13	44	74	313	349
울산	189	189	5	10	0	0	194	199	19	19	3	6	0	0	0	0	0	0	22	25	216	224
경기	826	826	2	4	0	0	828	830	242	242	18	36	3	9	2	8	1	5	266	300	1,094	1,130
강원	200	200	2	4	0	0	202	204	23	23	2	4	0	0	1	4	0	0	26	31	228	235
충북	229	229	2	4	0	0	231	233	38	38	4	8	1	3	2	8	1	9	46	66	277	299
충남	287	287	1	2	0	0	288	289	54	54	7	14	0	0	1	4	0	0	62	72	350	361
전북	266	266	4	8	0	0	270	274	24	24	4	8	0	0	1	4	0	0	29	36	299	310
전남	215	215	0	0	0	0	215	215	22	22	2	4	0	0	0	0	1	6	25	32	240	247
경북	399	399	4	8	1	3	404	410	39	39	4	8	0	0	0	0	0	0	43	47	447	457
경남	482	482	7	14	0	0	489	496	36	36	4	8	0	0	0	0	0	0	40	44	529	540
제주	136	136	1	2	0	0	137	138	16	16	1	2	0	0	0	0	0	0	17	18	154	156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분 / 건축사회	회원		준회원
	건축사	비율	
합 계	8,728	100%	17
서 울	2,349	27%	2
부 산	734	8.4%	10
대 구	673	7.7%	0
인 천	375	4.3%	0
광 주	289	3.3%	0
대 전	349	4.0%	0
울 산	224	2.6%	0
경 기	1,130	12.9%	3
강 원	235	2.7%	0
충 북	299	3.4%	0
충 남	361	4.1%	0
전 북	310	3.6%	0
전 남	247	2.8%	0
경 북	457	5.2%	0
경 남	540	6.2%	2
제 주	156	1.8%	0

건축사등록원 통계현황

구분	자격등록	실무수련
계	7,099	1,342
서 울	1,576	943
부 산	502	46
대 구	554	22
인 천	313	4
광 주	190	24
대 전	221	24
울 산	181	13
경 기	994	45
강 원	212	7
충 북	183	39
충 남	273	31
전 북	224	9
전 남	187	37
경 북	441	11
경 남	535	16
제 주	156	13
기 타	357	58
비 고	회원: 6,223 / 비회원: 876	대학: 1,224 / 대학원: 118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 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합 계	비 고
회원수	6,159	2,569	8,728	
비율	70.57%	29.43%	100%	
사무소수	6,054	2,043	8,097	
비율	74.77%	25.23%	100%	